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염상섭의 초기작에 나타난  
'개인'의 의미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김 윤 주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황보 염상섭(1897-1963)의 초기 평론 및 소설에서 ‘개인’이 어떻게 사유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1920년대 주체의 모습을 새롭게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염상섭이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1920년대는 근대적 의미의 ‘개인’이 일본을 경유하여 식민지 조선에도 유입되는 시기이다. 염상섭 또한 일본 유학생으로서 개인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주의(文化主義)’ 사조를 수용하여 ‘개인’ 개념을 정립해나간다.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소설을 창작하기 전, 염상섭의 평론을 통해 그가 사유한 ‘개인’ 개념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귀국 이전 평론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그가 개인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문화주의’의 맥락에서 마련한다는 점이다.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을 전제로 개개인이 내면의 인격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문화주의의 핵심 인간관이 이 시기 염상섭의 평론에서도 드러난다. 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염상섭의 ‘개인’은 귀국 이후 ‘현실폭로의 비애’라는 키워드를 통해 변모한다. 자아와 자연의 무매개적 합일을 강조한 여타 『폐허』 동인들과 달리, 염상섭은 주체의 반성 과정을 중시한다. 외부의 권위를 타율적으로 수용하던 개인이 자율성을 회복하면서 겪는 ‘현실폭로의 비애’를 강조함으로써, 염상섭은 자기반성을 통해 주체 스스로 지식을 정립할 것을 역설한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염상섭의 초기 소설을 분석한다. 염상섭의 평론이 자기반성이 가능한 자율적인 주체라는 ‘개인’의 규범적 의미를 제시한다면, 소설은 등장인물들이 개인의 이상에 도달하려는 과정을 서사화한다. 초기 단편은 남성 지식인과 신여성 인물을 주동인물로 하는 두 계열로 나뉜다. 남성 지식인의 서사에서, 지식인 인물들은 개인 간의 배타적인 소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를 거부하고 정신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지향을 보인다. 한편, 신여성의 서사는 개인의 자아실현이 물질적 교환관계로 변질될 때, 개인의 자율성은 보존될 수 없음을 경고한다. 신여성의 실패를 통해, 염상섭은 개인의 권리를 물질적 욕망의

추구로 혼동하는 인물들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염상섭의 초기 장편 『만세전』과 『너희들은 무엇을 어딴느냐』를 분석함으로써 염상섭이 ‘개인’에 대한 사유를 장편소설의 양식으로 정립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장편소설의 지식인 인물들은 개성을 실현하려는 본성과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반된 두 본성이 공존하는 내면을 지닌 존재로 형상화된다. 이같은 인물의 내적 모순을 서사화하기 위하여, 서사 기법 ‘아이러니’가 채택된다. 『만세전』에 아이러니적 상황이 설정되어 있음을 분석함으로써, 이 서사를 서술자가 과거의 자신이 보인 모순된 심리와 행동을 자성(自省)하는 과정으로 재독하였다. 신문연재소설 『너희들은 무엇을 어딴느냐』에 이르면, 비판의 대상이 복수(複數)의 지식인 인물로 확장된다. ‘자유연애’로 대표되는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아이러니컬하게 드러냄으로써, 염상섭은 자기반성이 결여된 지식인 인물들을 비판한다.

염상섭의 초기작은 식민지 조선의 구성원이 어떻게 이상적인 ‘개인’에 도달할 것인지를 모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는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이라는 ‘문화주의’의 가치관에서 출발하여 ‘자기반성이 가능한 자율적 주체’를 정립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비판되는 것은 정신적 가치의 추구를 역설하면서도 물질적 욕망에 이끌리는 지식인들의 내적 모순이다. 이처럼 등장인물의 내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는 서술을 통해, 염상섭의 초기작은 계몽의 비전이 뚜렷하였던 1910년대의 서사와는 다른 인간형을 형상화하였다는 문학사적 의의를 갖게 된다.

주요어 : 염상섭, 개인, 개성, 문화주의, 개조론, 생명, 아이러니, 자기 서사

학 번 : 2015-20035

# 목 차

<국문초록>

1. 서론 .....	1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	1
1.2. 연구의 시각 .....	9
2. 염상섭의 평론에 나타난 ‘개인’의 의미 .....	16
2.1. 문화주의 사상을 통한 ‘개인’의 발견 .....	16
2.2. ‘현실폭로의 비애’를 통한 비판적 자기인식 .....	25
3. 개인의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욕망의 성찰 .....	39
3.1.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과 배타적인 공동체 .....	39
3.2. 신여성의 실패를 통한 물질적 욕망의 비판 .....	57
4. 내면의 모순과 아이러니의 기법 .....	82
4.1. 균열된 자기 서사와 새로운 자아 인식 .....	82
4.2. 지식인의 내적 모순을 비판하는 장편소설의 아이러니 .....	102
5. 결론 .....	125

<참고문헌>

<Abstract>

# 1. 서론

##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본고의 목적은 횡보 염상섭(橫步 廉想涉, 1897.8.30.-1963.3.14.)의 초기작에서 ‘개인(個人)’이 어떻게 사유되었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염상섭의 초기 문학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일제시기 문학연구에 비추어볼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민족적 주체와 계급적 주체라는 이분법을 넘어 ‘근대적 개인의 형성’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문학사를 보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 그동안 일제시기 문학연구는 문학에서 일제의 탄압과 검열에 가려진 피식민자의 저항을 밝혀내는 성과를 이루었다.<sup>1)</sup> 이 연구들에서 일제시기의 행위자들은 저항의 자원을 어디서 찾는가에 따라 민족 혹은 계급적 주체로 나뉘었다. 그런데 식민 현실에 대한 저항에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관점은 근대 이행기에 이루어졌던 다양한 주체의 활동을 단순화할 우려가 있다. 염상섭의 초기 문학에는 민족과 계급에 대한 관심도 드러나지만, 이보다는 근대적 개인과 새로운 도덕에 대한 구상이 핵심을 이룬다. 이처럼 민족·계급운동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측면인 인간관의 층위를 다룸으로써 염상섭을 ‘근대성의 형성’<sup>2)</sup>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작품에서 작가의 현실인식을 측정하려는 기존의 리얼리즘적 독해가 놓친 부분을 조명할 수 있다. 표준적인 문학사는 작가들의 미학적 경향을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으로 나누고, 전자는 현실의 반영 정도를 후자는 형식적 실험에 각각 주의를 기울여왔다.<sup>3)</sup> 특히 염상섭은 동 시기 예

---

1) 대표적인 성과로는 임종국의 『친일문학론』(평화출판사, 1966)과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민음사, 1974)가 있다.

2) 윤해동·천정환·허수·황병주·이용기·윤대석 엮음, 『근대를 다시 읽는다 1·2』, 역사비평사, 2006.

3)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으로 이분화된 문학사적 통념에 대한 문제 제기로는 손유경의 지적이 대표적이다. 그는 1920-30년대 문학연구에서 나타나는 사회주의/유미주의, 민족주의/계급주의, 리얼리즘/모더니즘 등과 같은 이분법을 상대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술지상주의로 분류된 김동인과 대비를 이루며, 작자의 주관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그려낸 리얼리즘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자연히 염상섭의 작품을 독해하는 방식도 작품 내의 설정을 곧바로 외부 현실에 대응시키는 것으로 고착화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접근법으로는 인간관과 결부된 염상섭의 미학적 실천을 조명하기 쉽지 않다. 1920년대 초반이 구한말 개화·계몽운동과 차별화된 새로운 주체를 구상하는 동시에 근대문학의 본격적인 형식 실험이 전개되는 시기임을 고려한다면, 염상섭의 초기 문학 또한 개인에 대한 사유를 발전시키면서 이에 걸맞는 미학적 형상화를 모색하는 노력으로 독해할 수 있다.

염상섭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세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다.<sup>4)</sup> 첫 번째 계열은 염상섭의 소설에서 식민지에 대한 작가의 현실인식을 읽어내고자 했던 반영론적 연구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윤식, 이보영, 권영민의 연구가 있다. 김윤식은 염상섭이 중인 계층이었음을 근거로 그의 문학의 핵심을 ‘가치중립적 현실감각’으로 파악한다. 그에 따르면, 돈의 논리와 일상에 예민한 가치중립적 시각은 이념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획득하게 하는 한편, 이념이 제거되었을 때 관념성이나 트리비얼리즘으로 빠질 수 있는 한계를 내포한다. 이념과의 긴장이 완성된 형태가 『삼대』라면, 상대적으로 전반기 문학은 동경에서 배운 ‘제도적 장치로서의 보편 근대’를 관념적으로 받아들인 미달태로 평가되었다.<sup>5)</sup>

이보영은 염상섭의 문학을 식민지라는 난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자 한 ‘정치소설’로 독해하고자 한다. 이보영의 입장은 사회주의에 대한 염

---

손유경, 「최근 프로 문학 연구의 전개 양상과 그 전망」, 『상허학보』 19집, 2007, 291면.

4) 염상섭에 관한 본격적인 학술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김종균의 연구(『염상섭연구』, 고려대출판부, 1974)는 전기적 사실을 정리하고 작품 전반을 다룸으로써 염상섭 연구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염상섭 연구는 연구사를 정리하는 연구가 진행될 정도로 방대하게 축적된다. 염상섭의 연구사에 대한 논문들로는 양문규, 「근대성·리얼리즘, 민족문화적 연구로의 도정」, 문학과사상연구회,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깊은샘, 1998 ; 한승옥, 「염상섭연구의 변증법적 전개」, 김종균 편, 『염상섭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 김종균, 「염상섭 연구 성과와 과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2001 ; 이혜령, 「소시민, 레드콤플렉스의 양각」, 한기형·이혜령 편, 『저수하의 시간, 염상섭을 읽다』, 소명출판, 2014 등이 있다.

5)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상섭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김윤식과 다르다. 즉, 염상섭은 사회주의를 가치중립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민족독립운동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sup>6)</sup> 한편, 권영민은 염상섭의 지향을 ‘민족의식의 추구’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염상섭이 말하는 ‘개성’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민족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는 이후 염상섭이 “개성론이 빠져들기 쉬운 관념적인 허구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이를 통해, 권영민은 염상섭 초기 문학의 핵심을 “개성론과 생활론의 통합 절충”으로 보면서 점차 민족문학론으로 성숙되어간다고 평가했다.<sup>7)</sup>

이 계열의 연구는 염상섭 문학의 미학을 리얼리즘으로 규정하고 식민지 시기 민족·계급 문제에 대한 염상섭의 입장을 밝힌 의의가 있다. 그러나 민족·계급의 중요성이 부각되다보니, 자아와 개성을 주제로 한 염상섭의 전반기 문학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개인’을 사회문제를 도외시한 관념론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시대적 맥락과 함의를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였다. 전반기부터 전개된 ‘개인’에 대한 염상섭의 사유를 근대이행기에 필요한 새로운 주체를 구상하려는 시도로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계열은 염상섭의 문학에서 ‘근대적 개인의 형성’을 포착하려는 연구이다. 특히 2000년대의 연구들은 1920년대 초 문학에서 ‘근대성’을 발견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sup>8)</sup> 염상섭의 초기 문학에 주목한다. 이 계열은 다시 내적 성격에 주목한 연구와 외적 영향을 추적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내적 성격에 주목한 연구들은 민족·계급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키워드로 염상섭의 작품을 논한다는 특징이 있다. 김경수와 서영채는 통속적이라 비판받은 염상섭의 장편소설을 ‘연애소설’의 문법으로 새롭게 독해한다. 김경수는 염상섭의 소설에서 연애가 “동시대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비유”로 활용된다고 보면서, 연애담의 구조와 식민지적 조

6)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지가, 1991, 24면.

7) 권영민, 「염상섭의 민족문학론과 그 성격」, 권영민 편, 『염상섭 문학연구』, 민음사, 1987, 21-44면.

8) 대표적인 성과로는 상허학회, 『1920년대 동인지 문학과 근대성』, 깊은샘, 2000이 있다.



건을 연관지어 분석했다.<sup>9)</sup>

김경수의 연구가 식민지적 현실에 맥락을 한정하였다면, 서영채는 사회적 코드로서의 사랑을 통해 근대적 주체 형성의 문제를 고찰한다. 그에 따르면, 염상섭이 구상한 근대적 주체는 진정성을 추구하는 자율적 개인이다. 이같은 개인의 시선으로 염상섭은 연애로 인해 “일상 속의 개인들이 지니게 되는 복합 심리의 세계”를 다채롭게 포착한다는 것이다.<sup>10)</sup> 한편, 손유경은 ‘동정’ 담론을 통해 염상섭의 위치를 가늠한다. 낭만주의적 기원을 가진 동정을 염상섭은 ‘동정의 메커니즘에 대한 해부’를 통해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염상섭의 개인은 “구성원 간에는 진솔한 감정의 직접 교환이 불가능”한 고립된 개체로 파악된다.<sup>11)</sup>

한편, 외적 영향에 주목한 연구들은 주로 염상섭의 초기작과 일본 다이쇼 시기 담론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초반에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와 작가 간 비교 연구가 수행되었다면,<sup>12)</sup> 3.1운동 직후의 지식장에 대한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sup>13)</sup> 당대 담론의 맥락에서 염상섭의 초기 문학을 재

9)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1999.

10) 서영채, 「사랑의 리얼리즘과 장인적 주체: 염상섭」,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129-248면.

11) 손유경, 「값싼 동정의 신화」,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231-282면.

12) 영향에 대한 초창기의 연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텍스트에서 가지적으로 드러난 영향을 추적하는 연구이다. 자연주의, 야나기 무네요시, 오스카 와일드, 아리시마 다케오, 슈티르너 등의 영향이 실증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보영, 강인숙의 연구가 있다.

이보영, 「오스카 와일드문학의 수용과 그 한국적 변용」, 이보영 외, 『한국문학과 외국문학』, 규장각, 1998, 13-48면 ; 강인숙, 『자연주의 문학론: 불일한 삼국의 대비 연구』, 고려원, 1987.

둘째, 작가 및 작품 간 비교를 통해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는 연구이다. 구체적인 작가와 작품의 일대일 비교가 주를 이룬다. 류리수와 장두영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류리수, 「아리시마 다케오의 『선언』과 염상섭의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 - 신여성의 자아각성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57집 2호, 2003 ; 장두영, 「염상섭의 『만세전』에 나타난 ‘개성’과 ‘생활’의 의미-아리시마 다케오의 『아낌없이 사랑은 빼앗는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34집, 2011.

13) 1920년대 초반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지적 유행과 다이쇼 테모크라시의 지식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시기로 문화주의, 개조주의, 생명주의, 교양주의 등 다양한 키워드로 논의되었다. 이 시기의 지식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최추한, 「개조론과 근대적 개인-1920년대 초반 <개벽>지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2집 4호, 2004 ; 박현수, 「동일시와 차별화의 지식 체계, 문화 그리고 문학」, 『상허학보』 12집, 2004 ; 손유경, 「『개벽』의 신흐트주의 수용 양상」, 『철학사상』 20호, 2005 ; 한기형, 「『개벽』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근대문학의 사상화」,

독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졌다. 박현수는 염상섭의 초기 소설을 물질문명에서 벗어나 정신생활에 충실하고자 하는 ‘문화주의’의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했다.<sup>14)</sup> 이철호와 이행미는 다이쇼 생명주의를 키워드로 염상섭의 문학을 다루었다. 이철호는 염상섭이 ‘개개인의 내적 진정성’을 중시하는 기독교적 생명의식에서 출발하되 현실의 기독교가 생명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까지를 간파했다고 본다.<sup>15)</sup> 이행미는 생명주의 사상 중 특히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 개념에 주목하여 초기작의 변모양상을 검토하였다.<sup>16)</sup>

한편, 민족주의·사회주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아나키즘으로 염상섭의 지향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두드러진다. 한기형은 잡지 『삼광』에 수록된 염상섭의 초기 자료를 통해 아나키즘의 영향을 조명하였다.<sup>17)</sup> 이후, 박현호<sup>18)</sup>, 권철호<sup>19)</sup>, 이종호<sup>20)</sup>의 연구가 이어지면서 아나키즘적 자원이 염상섭의 전반기 평론과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 분석되었다.

이 계열의 연구는 민족·계급의 틀에서 벗어나 염상섭 문학의 근대성을 다양한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단편적인 키워드나

---

『상허학보』 17집, 2006 ; 허수, 「러셀 사상의 수용과 『개벽』의 사회개조론 형성」, 『역사문제연구』 21집, 2009 ; 권보드래, 「영혼, 생명, 우주-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의 충격과 ‘죽음’의 극복」, 『개념과 소통』 7집, 2011 ; 오문석, 「1차대전 이후 개조론의 문학사적 의미」, 『인문학연구』 46집, 2013 ; 유선영, 「식민지의 ‘문화’주의, 변용과 사후」, 『대동문화연구』 86집, 2014.

14) 박현수, 「염상섭의 초기 소설과 문화주의」, 『상허학보』 5집, 2000.

이 연구는 염상섭과 당대 수용된 담론을 연결지었다는 의의가 있으나, 식민지기 문화주의의 실현가능성을 “처음부터 닫혀 있는 것”이라 단정한 후, 염상섭의 소설을 문화주의에 대한 좌절과 극복의 과정으로 단순화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15) 이철호,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종교적 자아 담론: 영, 생명, 신인 담론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6) 이행미, 『염상섭 초기소설에 나타난 생명의식의 변모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7) 한기형,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 수용과 탈식민적 태도-잡지 『삼광』에 실린 염상섭 자료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43집, 2003.

18) 박현호, 「염상섭과 ‘조선문인회」, 『한국문학연구』 43집, 2012.

19) 권철호, 「『만세전』과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적 정치미학」, 『민족문학사연구』 52집, 2013.

20) 이종호, 「염상섭 문학과 사상의 장소-초기 단행본 발간과 그 맥락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6집, 2014.

영향관계로 염상섭의 작품에 접근하다보니 등단작부터 『만세전』까지 이어지는 염상섭 초기 문학의 일관성 및 변화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내적 성격을 다루는 연구와 외적 영향의 연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어, 염상섭의 문제의식이 새로운 지식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세 번째 계열인 염상섭의 소설 기법에 주목한 연구도 꾸준히 축적되었다. 초기부터 염상섭 소설의 서술방법에 관심을 기울여온 것은 조남현이다. 그는 염상섭의 소설 형식이 『만세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는다고 본다. 초반의 작품이 작가의 주관이 그대로 서술되는 ‘말하기’의 서술방식에 경사되었다면, 『만세전』 이후에는 전지적 작가의 개입이 사라지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로 변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남현은 작가와 작중 인물 사이의 거리가 지나치게 벌어지면서 현실에 대한 대응논리가 약화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sup>21)</sup>

한편, 최시한은 염상섭 소설의 발전 양상을 ‘주관에서 객관’이라는 급진적인 변화로 보는 기존의 입장을 지양하고, 작가와 서술자가 분리되는 ‘서술자의 객체화’가 성숙하는 일관된 과정으로 파악한다. 그에 따르면, 염상섭의 소설은 초반에는 작품 내적 세계와 외부세계가 구분되지 않아 실제 작가의 과도한 개입이 관찰되다가 점차 작가와 서술자가 분리되며 작품 내적 통일성을 형성하게 된다.<sup>22)</sup> 손정수는 염상섭의 소설이 작가, 내포작가, 서술자, 인물 등이 명확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텍스트의 자율화’ 과정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염상섭의 초기 단편이 소설 전체의 구성을 의식하지 않는 고백체 소설에 머물렀다면, 『만세전』 개작을 통해 작가, 내포작가, 서술자, 등장인물 등의 층위가 텍스트 내에 구분되어 소설 자체의 구성이 확립된다는 것이다.<sup>23)</sup>

이 계열의 연구는 모더니즘 계열에 비해 특별한 기법이 없다고 오해되

---

21) 조남현, 「서술방법의 변모과정」, 김종균 편, 『염상섭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577-590면.

22) 최시한, 「염상섭 소설의 전개」, 김종균 편, 『염상섭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529-575면.

23) 손정수, 「『묘지』와 『만세전』의 거리」, 『텍스트의 경계』, 태학사, 2002, 86-121면.

는 리얼리즘의 선입견에 갇히지 않고 기법적 측면을 세세하게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당대의 맥락과 염상섭의 인간관 간의 관련성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여전히 식민지적 현실인식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염상섭의 지향을 설명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계열의 연구 성과를 포섭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염상섭에 관한 연구 성과를 세 계열로 정리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그 의의와 성과를 계승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염상섭의 문학에 나타난 개인을 보는 관점에 따라 기존의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지닌다.

첫째, 염상섭의 전반기 문학이 관념적인 현실인식에 머무른다는 기존의 평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주로 첫 번째 계열의 연구에서 제기되는 이같은 비판은 염상섭이 강조하는 ‘개인’이 민족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일본을 통해 배운 근대적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물이라는 견해에서 비롯된다.<sup>24)</sup> 그러나 염상섭의 개인이 단순히 근대적 담론을 이식한 것이 아니라 당면한 현실문제에 대한 대응책이었다고 본다면, 그의 담론은 도리어 당대의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염상섭이 파악한 현실은 ‘식민지의 억압’이라는 일제시기를 포괄하는 큰 범주로 환원되지 않는 특수한 맥락을 지닌다. 1920년대는 3.1운동 전후로 개인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주의 담론이 부상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식민자본이 침투되어 근대화가 진행된 시기였다. 3.1운동 이후 귀국하여 문필활동을 하였던 염상섭에게 국내의 현실은 문화주의의 이상이 급격히 부상한 물질주의와 충돌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같은 시대의 특수한 과제를 복원해야만 염상섭의 초기 문학은 현실과 유리된 것이 아닌, 적극적인 응답으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 염상섭의 ‘개인’을 ‘낭만적 자아의 특성으로 환원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자아, 개성, 생명 등의 용어로 염상섭의 전반기 문학을 조명하는 두 번째 계열의 연구들은 민족과 계급이라는 집단

---

24) 대표적으로 김윤식은 염상섭의 초기 문학이 방법론적 자각 없이 일본의 근대적 제도 장치를 수동적으로 들여온 결과라고 평가한다.

김윤식, 앞의 책, 192-193면.

이 아닌, 개인 담론을 전면적으로 다루었다는 의의가 있다. 이때 다이쇼 시기의 생명주의와 동인지 세대 일반의 자아관에 염상섭의 담론을 접속시키는 과정에서 개념에 내포된 낭만주의적 속성이 과대평가되었다. 이는 비단 염상섭의 한계만이 아니라 1920년대 문학 전반이 미성숙하고, 관념적인 현실 인식에 머무른다는 입장<sup>25)</sup>과 연결된다. 그러나 오상순 등의 여타 동인지 세대들이 자아와 자연의 무매개적 합일을 강조하며 낭만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는데 반해, 염상섭은 ‘환멸’, ‘비관’, ‘성찰’과 같은 이성적 인식의 매개를 강조한다. 이처럼 염상섭의 논의에서 반성적 인식작용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은 염상섭이 당대 부상한 낭만적 자아관과 거리를 두면서 고유한 논리를 발전시켜갔음을 입증한다. 염상섭의 자아 담론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층위를 간과함으로써 염상섭이 구상한 자아의 차별점을 부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염상섭이 견지한 인간관이 소설의 기법 및 구조와 어떻게 결부되는지 분석함으로써, 평론에서 드러난 염상섭의 주장을 작품에 그대로 대응시키는 반영론적 접근을 지양하고자 한다. 이같은 접근은 세 번째 계열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기법적 측면과 염상섭의 사상 간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도출된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염상섭의 초기 문학을 문화주의적 가치가 배반되고 물질주의가 심화되는 1920년대의 현실에서 ‘개인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세부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염상섭이 직면한 과제를 1920년대 담론장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둘째, 염상섭이 구상한 주체의 모습을 ‘개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논리적 체계를 밝혀줄 것이다. 셋째, 개인에 관한 문제의식이 서사 형식과 어떻게 결부되어 변모하는지, 초기 소설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

25) 조연현, 『한국 현대문학사 개론』, 정음사, 1964, 134면.

## 1.2. 연구의 시각

본 연구는 염상섭의 초기작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을 ‘개인’으로 파악한다. 1920년대 동인지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 염상섭의 출발점은 ‘개인’에 대한 일관된 관심이다. 이는 염상섭이 처음으로 발표한 논설에서부터 ‘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sup>26)</sup> 이들은 사회로 환원될 수 없는 개인이 지닌 내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개인’을 ‘자아’, ‘개성’ 등으로 변용하면서 ‘사회’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인의 독립된 영역을 주장하였다.

본격적으로 염상섭이 추구한 ‘개인’을 논의하기 전에, ‘개인’이 1920년대에 새롭게 부상한 개념이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은 현재에도 빈번히 사용되는 개념이므로, 현재와 구분되는 당대의 맥락을 살피기 위해서는 해당 용어의 변천을 추적하는 간략한 개념사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개인’은 19세기 말 일본을 거쳐 들어온 individual의 번역어로 출발하였다. 야나부 아키라(柳父章)에 따르면, 메이지 시기 individual은 ‘혼자’, ‘인민각개’, ‘사람’ 등으로 번역되다가 ‘일개인’에서 ‘일’이 떨어져 나가 사회에 대해 궁극적인 단위로서 혼자인 인간을 뜻하는 ‘개인’으로 정착된다.<sup>27)</sup> 이로써 동아시아에서 개인은 주자학의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정치적인 주권과 경제적인 소유권, 사회적인 활동의 자유권을 지닌 실질적인 단위로서 주목받게 된다.<sup>28)</sup>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이 은폐된 사회·역사적 변화를 드러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29)</sup> 근대 조선에서 번역어 ‘개인’도 ‘사회’<sup>30)</sup>와 더불어 시기에 따라 그 의미가

26) 제월, 「婦人の 覺醒이 男子보다 緊急한 所以」, 『여자계』 2호, 1918.3.

27) 柳父章, 『번역어의 성립』, 마음산책, 2011, 39-54면.

28) 박명규, 「근대 사회과학 개념구성의 역사성: 한말 국가-사회-개인의 상호연관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34, 2003.

29) Raymond Williams, 『키워드』, 민음사, 2010, 31면.

30) 야나부 아키라는 개인과 사회가 밀접하게 연관된 번역어임을 지적한 바 있다. Society는 개인(individual)을 단위로 하는 넓은 의미의 인간관계를 뜻하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개인 개념과 신분을 탈피하여 맺는 인간관계를 상상하기 어려웠으므로 두 번역어가 정착하는 데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변천하며 전근대의 위계질서에 종속되지 않은 새로운 주체를 상상하게 했다. 조선에서 ‘개인’에 대한 사유는 20세기 초 ‘사회’가 부상하면서부터 등장하였다. 대한제국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지식인들이 ‘사회’ 개념을 통해 국가를 매개하지 않는 자발적인 활동영역을 구상하면서, 사회의 구성 단위로서 개인에 대한 관심도 생겨났다.<sup>31)</sup> 그러나 19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회’의 독립성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개인’에 대한 개념도 희박하였다. 김현주에 따르면, 『매일신보』와 신소설에 나타나는 사회는 개인들이 이익을 교환하는 생업과 실무의 세계를 의미하는 데 그쳤다.<sup>32)</sup>

191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개인이 화두가 된다. 이들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지식을 수용하여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관계를 실험하였다. 김현주의 표현을 빌리면, 이 시기 유학생 담론은 “‘국가’를 괄호 안에 넣고 ‘개인’으로 ‘사회’를 구성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동시에 주체화”하였다.<sup>33)</sup> 즉, 1910년대 중반까지 ‘개인’은 국가와 구분되는 ‘사회’라는 독립된 영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부각된 개념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흐름은 3.1운동을 계기로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1920년대의 국내 담론장에도 유입된다. 이제 사회는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하는 현상으로 인식된다.<sup>34)</sup> 가령, 『동아일보』 4월 17일자 사설은 “專制壓迫과 因襲社會를 打破하고 自由創造함은 個人의 解放이오 自由個人의 合理連結은 社會의 解放이라”고 하며, 개인의 자유를 전제한 후 사회를 정의하고 있다.<sup>35)</sup> 이처럼 1920년대는 사회가 앞서고 개인이 구성요소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독립적 단위로 인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구상하게 되는 시기라 할 수

---

柳父章, 위의 책, 19-36면.

31) 박명규, 「한말 사회개념의 수용과 그 의미 체계」, 『사회와역사』 59집, 2001.

32) 김현주, 『사회의 발견』, 소명출판, 2013, 258면.

33) 위의 책, 271면.

34) 박명규, 「1920년대 ‘사회’ 인식과 개인주의」, 김경일·박명규 외 편, 『한국사회사상사연구』, 나남출판, 2003, 270면.

35) 「朝鮮勞動共濟會에 對하여」, 『동아일보』, 1920.4.17.

있다. 염상섭의 초기작에서 ‘개인’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른 것에는 바로 위와 같이 ‘개인’ 개념이 활발하게 논의된 배경이 자리하였다.

‘개인’을 둘러싼 복잡다단한 논의들 중 염상섭이 사유한 ‘개인’의 맥락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가 1911년에서 1919년까지 일본 유학을 통해 수용한 담론에 주목해야 한다. 염상섭이 수용한 담론의 성격은 일본 유학생들의 세대별 차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조선과 일본의 교육 격차가 컸던 근대 초기에 일본유학은 신지식을 받아들이는 필수적인 과정이었고, 그들이 수용한 지식은 세대별로 차이를 보인다. 1919년까지 유학생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3.1운동 다음 해인 1920년 이후부터 비약적인 상승세를 보인다.<sup>36)</sup> 유학생의 양적 증가와 함께, 시기별로 구성원의 성향도 달라진다. 김현경과 이태숙의 분류법에 따르면, 근대 초기의 유학생은 관비 유학생과 소수의 상류층 유학생에 국한되었던 1세대 유학생, 자비 유학이 시작되며 유학 목적이 다변화되는 2세대 유학생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 2세대 유학생은 1919년 3.1운동을 주도하고 1920년 이후 귀국하여 언론, 문화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게 되면서 새로운 세대로 부상한다.<sup>37)</sup>

염상섭은 2세대 유학생의 대표적 사례로서 1897년에 태어나 1907년 보성 중학 2학년을 마치고 1912년 9월 초 15세의 나이로 일본 유학을 가게 된다. 부유한 조선인 독지가와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형 염창섭의 도움으로 염상섭은 경도부립 제2 중학, 게이오 대학 문과로 이어지는 당시로서는 최상급의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sup>38)</sup> 염상섭의 1차 도일 시기(1912-1920), 일본은 정치면에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융성하였고 문화면에서도 문화주의와 교양주의가 유행하였다. 이같은 다이쇼의 분위기는 청년 염상섭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 듯하다.<sup>39)</sup> 비교적

36) 김현경, 「근대교육의 확산과 유학의 제도화」, 『사회와 역사』 70집, 2006, 6면.

37) 김현경, 위의 글 ; 이태숙, 「염상섭의 1920년대 연애소설과 2세대 유학생」, 『근대의 수정구슬』, 소명출판, 2016.

38) 염상섭의 유학 시절의 이력에 대해서는 김윤식과 이태숙의 정리를 참조하였다.

김윤식, 앞의 책 ; 이태숙, 위의 글.

39) 염상섭은 1919년 4월 『데모크라시』 지에 게재된 글에서 3.1운동이 “생존의 보장을 얻으려는 진지한 내면의 요구”라는 점에서 ‘일본의 쌀 폭동’과 같다고 주장한다. ‘쌀 폭동’이란 1918년 8월 쌀 가격이 폭등한 결과, 도시민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촉발된 대규모의 사회운동이다. 廉尙燮, 「朝野の諸公に訴ふ」(『デモクラシイ』, 1919.4.), 한 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진집 I』, 소명출판, 2013, 47-50면.



자유로운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다이쇼의 청년들은 부국강병과 출세를 강조하는 메이지 시기의 입신양명주의에서 탈피하여 개인성으로 눈을 돌린다. 이들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폭넓은 교양을 습득 하였으며, 개인의 인격 향상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sup>40)</sup>

염상섭이 유학한 시기 유행한 ‘문화주의(文化主義)’는 개인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조이다. ‘문화’는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으로 부각된 독일어 ‘쿠르투르(Kultur)’의 번역어로, 인간이 자연에 정신작용을 투여하여 새롭게 형성한 가치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문화’ 개념이 다이쇼 시기 일본에서 유행하면서, 이전의 물질 중심의 진보관에 제동을 걸고 정신문화의 향상을 강조하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문화주의’라는 용어는 소우다 기이치로(左右田喜一郎)와 쿠와키 겐요쿠(桑木嚴翼)가 처음으로 정식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아의 선형적 근원을 탐구하는 신칸트철학의 영향을 받아, 소우다는 문화를 “주어진 자연의 사실을 일정의 규범에 비추어서 순화하고 궁극적인 이상을 실현코자 하는 과정의 전체”로 규정하였다. ‘문화’의 철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소우다에 비해, 쿠와키는 ‘문화’와 ‘인격’의 연관을 강조한다. 쿠와키는 인간의 본성을 ‘인격’에서 찾으면서 “문화는 인격을 가진 사람의 전체 능력을 자유롭게 발달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up>41)</sup> 결국, 문화주의는 물질적 진보를 추구해온 일본의 근대화를 비판하면서, 인간 본연의 가치인 ‘인격’을 자유롭게 추구하려는 목표를 강조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일본의 문화주의는 개개인이 내면의 함양을 위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경향인 ‘교양주의’ 붐으로 수렴되었다.<sup>42)</sup>

---

쌀 폭동의 경과와 의의에 대해서는 成田龍一, 이규수 역, 『다이쇼 데모크라시』, 어문학사, 2011, 104-112면 참조.

염상섭은 1954년에 3.1운동을 회고하면서 다이쇼의 분위기를 “노동쟁의가 각처에 유행되고 노동조건을 구문에 올리며 경영주와 대립의 태세를 취하는 것이 진보적 경향이라고 인정받던 때”라고 묘사한 바 있다.

염상섭, 「3.1운동 당시의 회고」(『신태양』, 1954.3),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 III』, 소명출판, 2014, 260면.

40) 신인섭, 「교양개념의 변용을 통해 본 일본 근대문학의 전개 양상 연구」, 『일본어문학』 23집, 2004, 347면.

41) 吉田熊次, 「文化主義とは何ぞ」, 『國家學會雜誌』 34집 10호, 1920.

42) 흥선영, 「1920년대 일본 문화주의의 조선 수용과 그 파장」, 『일어일문학연구』 55

1920년대 조선에서 문화주의는 1차 세계대전 직후 개조론의 분위기 속에서 수용되었다. ‘개조론’은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세계질서를 정의·인도·평화와 같은 이상주의로 개편하려는 분위기에서 제출된 담론이다. 대표적으로 버트란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인간의 행위원리를 소유충동과 창조충동으로 나누고,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소유충동만을 부추기는 물질문명에 있다고 비판한다. 인간은 이러한 소유충동에서 벗어나 창조충동을 발휘하여 정신적, 창조적 활동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것이다.<sup>43)</sup> 당대 유행한 개조 사상가인 루돌프 오이켄(Rudolf Eucken) 또한 현상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육체의 차원보다 “생활의 내면적인 통일”에 이르게 하는 “정신활동의 우위”를 주장한다. 정신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인은 “생활의 내면적인 향상”을 이루어 하나의 “전체”로서 자기를 전개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sup>44)</sup>

이같은 세계개조론의 유행 속에서, 1920년대의 조선 지식인들은 ‘개인’의 개조를 경유하여 사회 전체의 개조를 실현하고자 한다. 문화주의에서 강조되었듯 ‘개인’은 강약과 우열을 논할 수 없는 인격이라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단위이다. 이같은 ‘개인’ 단위를 기반으로, 조선의 지식인들은 개인들이 개별성을 보존하고 상호협동할 수 있는 집단을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으로 간주한다. 가령, 개벽의 창간호에 실린 논설 「세계를 알라」는 사회의 개조가 ‘개인’ 간에 지켜져야할 도덕적 원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역설하는 글이다. 필자는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국가, 개인의 관계가 긴밀해졌음을 지적하며, 개인 간에 지켜지는 “도의체계(道義體系)”가 국가 및 세계라는 집단의 차원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개인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타인을 열등한 존재로 배척하지 않아야 하듯이, 자유 및 평등이라는 가치는 개인 간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의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의 공통한 원칙”으로 사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45)</sup>

---

집, 2005, 467면.

43) 허수, 앞의 글.

44) Rudolf Eucken, 사회과학연구회 역, 『인생의 의의와 가치』, 신조문화사, 1963.

45) 「세계를 알라」, 『개벽』 창간호, 1920.6.

이같은 사상적 배경을 참조하여, 본고의 2장 1절은 ‘문화주의’의 영향을 중심으로 염상섭이 지닌 사상 및 문학관을 살펴볼 것이다. 염상섭에게 1920년대의 조선은 잔존하는 구습과 집단주의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창조성이 억압되는 사회로 인식되었다. 이때 문화주의적 가치관은 염상섭의 현실인식과 문학관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물질과 정신을 대립시키는 이분법적 사유를 통해, 그는 외부 현실을 물질주의만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파악하는 한편, 정신적 가치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한편, 염상섭은 동인지 세대 일반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특이한 사상적 입각점을 가진다. 2장 2절에서는 3.1운동 직후의 국내 현실에서 염상섭이 부딪힌 고유한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염상섭이 귀국 이전의 입장을 변모시켜 나갔음을 조명할 것이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염상섭에게 조선 사회는 지식인들의 위선으로 문화주의적 가치가 끊임없이 배반되는 공간이었다. 이상과 현실의 격차 앞에서 염상섭은 인간을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 낙관하였던 자신의 입장을 수정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때 일본 자연주의의 자아인식은 염상섭이 여타 동인지 문인들과 구별되는 입장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그간의 연구에서 염상섭의 평론에서 언급된 “현실폭로의 비애”나 “환멸의 비애”는 그의 사상을 자연주의로 파악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어왔다. 이러한 자연주의적 접근은 이후 염상섭을 낭만주의로 정립하고자 하는 경향과 충돌하며, 염상섭의 사상이 “자연주의와 낭만주의의 습합”<sup>46)</sup>이라는 평가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추후의 분석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염상섭은 “현실폭로의 비애”를 다이쇼 시기에 형성된 맥락으로 전유하여, 개인의 부자유를 초래하는 내적 타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3장과 4장은 본격적으로 염상섭의 소설을 다룬다. 3장은 염상섭의 초기 단편을 주동인물의 성별에 따라 두 계열로 구분하여, 앞서 평론에서 문화주의적 가치관에 기반하였던 자유의 개념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서사화되는 것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계열은 남성 지식인을 주동인물

---

46) 서영채, 앞의 책, 149면.

로 하는 서사로서,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이라는 문화주의의 가치관이 개인의 자유를 서사화하는 기본 틀로 작용한다. 한편, 독립된 물질적 기반을 지니지 않은 신여성을 주동인물로 삼는 두 번째 계열의 서사에서는 자유와 물질적 조건의 관계가 재검토된다. 4장에서는 두 편의 장편소설 『만세전』과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에 나타난 ‘아이러니’에 주목함으로써, 염상섭이 자아의 실현이라는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욕망을 한 개인의 내면에 공존하는 모순된 측면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하였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염상섭의 평론에 나타난 ‘개인’의 의미

### 2.1. 문화주의 사상을 통한 ‘개인’의 발견

염상섭은 본격적으로 소설을 창작하기 이전부터 평론을 통해 자신의 사상적 입장을 정립하는 시기를 거친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목되지 않거나 소략해서 언급되었던 1918년부터 1922년까지 발표된 염상섭의 평론을 분석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설 분석에 앞서 ‘개인’에 대한 염상섭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본고는 염상섭의 입장이 귀국 전후에 변화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 귀국 이전과 이후의 평론을 각각 두 절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1절에서는 염상섭이 첫 평론을 발표한 1918년부터 귀국 이전까지의 평론을 통해, 그가 ‘개인’에 관한 기본적 입장을 문화주의 사상의 맥락에서 마련하고 있음을 분석할 것이다. 앞서 1장 2절에서 검토하였듯이, ‘문화주의’는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을 전제로 개개인이 물질적인 욕심을 배격하고 정신적 향상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는 사조로서, 여기서 개인은 내면의 인격을 실현하는 존재로 설정된다. 귀국 이전 염상섭의 평론은 이같은 문화주의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을 사유한 흔적을 보여준다.

염상섭은 그가 처음으로 발표한 평론에서 이미 ‘개인’이라는 단위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1918년 『여자계』에 발표한 글<sup>47)</sup>에서 염상섭은 “인류의 노력은 생물의 본능적 요구되는 자유의 획득”에 있다고 하며, 개인의 천부적 권리가 자유와 평등임을 전제하였다. 부인의 사례를 통해 염상섭이 강조하는 것은 동일한 가치와 권리를 가진 ‘보편적 인간’이라는 단위이다. 가장이든 부인이든 모두 같은 인간이므로 동일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감각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본성이 “개성과 자유의지”로 파악되면서 기존의 위계질서는 더 이상 가정 내에서 구성원의

---

47) 제월, 앞의 글, 『여자계』 2호, 1918.3.

위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이상을 저해하는 억압이 된다. 염상섭이 부인 문제에 주목한 것도 “자유와 평등을 몰각한 전제질서”를 가정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재사유하기 위함이다.<sup>48)</sup>

‘개인’이 천부적인 개성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므로, 당연히 ‘자유’와 ‘평등’이 중요한 권리로 부각된다. 염상섭에 따르면, 자유는 인간의 천성이므로, 당연히 전 인류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려는 노력을 보인다. 이는 인류 전체의 이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본능을 발휘해야만 결과적으로 문화가 발전할 것이며 인류는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인류의 간단(間斷)없는 노력은 필의 인생의 무한한 향상과 생명의 진전 우(又)는 행복의 증식을 도(圖)함에 불과하다 하나 나의 관찰하는 바로 논하면 우리-생물의 일부인 인류의 노력은 생물의 본능적 요구되는 자유의 획득, 즉 모든 것에 대한 해방을 수행·실현하려 함에 있고, 향상·발전은 그 결과라 하고자 하나이다.<sup>49)</sup>

염상섭에게 개인의 자유란 원하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라기보다, 진정한 자아를 추구할 능력 및 권리에 가까웠다. 개별 인간은 “전인적으로 생활”하려는 본능을 지닌 존재인 한편, 물질욕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이 본성이 현실적 조건으로 인해 억압되거나 기형으로 발달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와 같은 염상섭의 개인관은 인간을 가치 있는 목적에 따라 행동하는 인격체로 보는 문화주의적 가치관과 상응한다. 문화주의 철학에서 ‘문화’

---

48) 이 글이 실린 『여자계』가 가정에서 헌신하는 현모양처 담론을 내세운 『학지광』과 달리 여성의 자아 각성과 행복 추구를 강조한 매체였음을 고려한다면, 여성을 동일한 인간으로 간주했던 염상섭의 입장이 필진들의 입장과 친연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경수, 「1910~20년대 재일본 조선유학생 친목회지에 나타난 신여성 담론: 「학지광」과 「여자계」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1집, 2009.

49) 제월, 앞의 글.

는 타락한 물질의 대타향으로서 가치 있는 목적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이 생산한 것이고, ‘인격’이란 이같은 문화의 생산, 창조에 참여하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였다. 이같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격을 개인적으로 수양하는 동시에 타인을 인격을 대우하고 존경하는 의무를 실천하게 된다. ‘자유’ 개념 또한 무제한적으로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수립한 자율적인 도덕에 따라 행위할 때 비로소 성립되는 자질로 이해되었다.<sup>50)</sup>

자유에 내재한 이러한 정신적, 도덕적 성격으로 인해, 염상섭의 사상에서 ‘평등’은 자유와 긴밀하게 관련된 개념이 된다. 같은 글에서, 구성원간의 평등은 개개인이 자유를 추구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지목된다. 특히 민족, 계급 등으로 인한 사회의 위계질서는 개인의 내면을 종속하는 대표적인 요인이었다. 염상섭은 “전제에 대한 민주, 계급에 대한 평등, 구속과 압박에 대한 해방 등 자유를 강구하는 근본적 정신”을 역압하는 모든 종류의 권위를 비판하였다. 마치 문화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이돈화가 “인격이란 인(人)이면 누구나 문화에 대하여 참여할 만한 자격을 가르쳐 정한 것인고로 필연으로 그 자격 그 자체에는 누구든지 하등의 차별이 없다”<sup>51)</sup>고 했듯이, 염상섭 또한 평등한 개인들이 각자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회를 이상향으로 삼은 것이다.

위와 같은 문화주의적 입장에서 염상섭은 구질서를 개혁할 방안은 개개인의 “자아의 각성”<sup>52)</sup>이라고 역설한다. 이 각성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의 내면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목표이다. 개인이 각자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면 사회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이러한 낙관은 구한말부터 지배적 담론 중 하나였던 실력양성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었다. 실력양성론은 약자인 조선이 물질 기반을 갖추고 능동적인 경쟁을 통해 문명국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주장으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사회진화론에 기반을 둔다. 이로써 인간 사회의 원리는 적자생존이라는 생물의 원리와 같은 것으로 파악되며, 인간과 생

---

50) 손유경, 앞의 글, 91-92면.

51) 이돈화, 「時代精神에 合一된 人間性主義」, 『개벽』 17호, 1921.11.

52) 제월, 앞의 글.

물의 가치는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 질적으로 동질화된다.<sup>53)</sup> 이같은 입장은 인간이 지닌 정신적 가치에 기대를 걸었던 염상섭의 시각에서는 지나치게 환원론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sup>54)</sup> 이러한 두 입장의 단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1918년에 일어난 염상섭과 현상윤의 논쟁이다.

염상섭과 현상윤의 논쟁은 염상섭이 동경 유학생계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예각화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상윤과 염상섭의 주장은 개인 차원의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근본 가치를 설정하는 문제에서 차이를 보인다. 현상윤이 최종적인 목적을 사회 전체의 물질적 진보에 두었다면 염상섭은 개인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목적으로 삼는다. 본격적으로 입장의 차이를 논하기 전에 논쟁의 경과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쟁은 『기독청년』에 게재된 현상윤의 글에 대해 염상섭이 1918년 4월 동 지면에 반론을 제기하며 촉발되었으며,<sup>55)</sup> 현상윤이 염상섭의 논리상의 허점을 재반박하자 염상섭이 뚜렷한 반론대신 “나의 논박은 조금도 악의가 없었다”<sup>56)</sup>고 해명하며 종결된다. 당시 현상윤은 재동경유학생을 대표하는 잡지인 『학지광』의 필진으로서 유학생 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반면, 염상섭은 동경 주류 유학생 사회와 거리가 있었다.<sup>57)</sup> 두 논자의 핵심적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

53) 박명규, 앞의 글.

54) 자연법칙과 윤리법칙 간의 대립은 당시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이 대두하였을 당시 스펜서와 헉슬리의 논쟁에서도 드러난다. 스펜서가 자연법칙을 사회 현상에 확대 적용하고자 한데 반해, 헉슬리는 자연법칙과 윤리법칙은 별개라고 주장하며 과도한 단순화를 경계했다.

조경란, 「사회진화론 수용의 비교사적 검토: 중국에서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극복」, 『역사비평』 26집, 1994, 327-328면.

55) 제월, 「玄相允 氏의게 與하여 「現時 朝鮮靑年과 可人不可人의 標準」을 更論함」, 『기독청년』 6호, 1918.4, 11-14면.

56) 제월, 「비평, 애, 증오」(『기독청년』, 1918.9.16.),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전집 I』, 소명출판, 36-40면.

57) 염상섭이 1918년까지 『학지광』, 『기독청년』 등 당시 도쿄에서 발행된 한국어 매체에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여러 글에서 드러난다. 논쟁 당시 염상섭은 “『基督靑年』의 存在를 모르든 나는 오날 비로소 그 新年號를 엿어 보게 되었다”고 밝힌다. 여기서 ‘오늘’은 글이 집필된 1918년 2월 24일을 가리킨다. 1919년 12월 『삼광』에 게재한 글에서도 염상섭은 “작년 초춘에 동경에 올라가서 모 씨에게 어떠한 대가의 소식을 자세히 듣고”서야 이광수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며, “칠이 날 만한 때부터 근자까지 5, 6년간을 조선靑年과 절연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제월, 「玄相允 氏의게 與하여 「現時 朝鮮靑年과 可人不可人의 標準」을 更論함」,



선 앞선 세대인 현상윤의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논쟁이 일어난 당시, 현상윤은 실력양성론을 주창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sup>58)</sup> 1915년에 발표된 글에서 현상윤은 “반도청년”들에게 “힘이 약하다 사양마라”고 하며, 청년들이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헌신할 것을 촉구한다. 현상윤은 “세계대세”에서 조선이 아직 “넘어도 유치하고 넘어도 암약”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세계의 지배적인 원리를 사회진화론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諸君이여 諸君은일즉이夏日野邊에 多數한昆蟲이 저보다強한 제비나참새의게 잡혀죽고 또 그제비나참새가 저보다強한새매나독술이의게 맥혀죽는것을 구경한일이잇는가, 今日의人類社會도 또한이런 自然律알에 支配를받고 世界의存在도 또한이런法則우에 建設되야잇는 것이로다. 그럼으로 남의同情업을 것을 설어하지 안이하고 나의 힘업는것을 설어하는것이 現代生活의特徵이오, 남은엇지되얏던지 내배나잘채우는것이 現代人類의道德이라. 그런즉 이째를當하야 이째의 밥을먹는諸君은 果然엇더한자리에 섰는가.<sup>59)</sup>

위 인용문에서 현상윤은 사회를 약육강식의 자연율이 지배하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자와 약자간의 불평등은 자연이 정한 법칙이므로, 약자인 조선 민족은 타인의 동정을 구하기보다 스스로 역량을 길러 강자로 거듭나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현상윤은 진화론적 현실원리를 규범의 차원인 도덕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같은 해 발표된 「강력

---

『기독교청년』 6호, 1918.4 ; 제월, 「상아탑 형제 - 「정사(丁巳)의 작(作)」과 「이상적 결혼」을 보고」(『삼광』, 1919.12),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 I』, 소명출판, 54-60면.

58) 김복순은 현상윤의 사상이 크게 세 단계로 변모한다고 정리한다. 1910년대에는 우리 전통사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서양사상을 적극 받아들여 실력양성론을 주창하며, 1920년대에는 ‘교육구국운동’의 단계로, 1930년대 이후에는 유학사 연구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김복순, 『1910년대 한국문학과 근대성』, 소명출판, 1999, 71-81면.

59) 현상윤, 「말을 半島靑年의게 붓침」, 『학지광』 4호, 1915.2, 16-17면.

주의와 조선청년」에서, 현상윤은 힘의 유무야말로 “현대인류의 도덕”이라고 주장하며 “이 세상에는 으직 강력이 유(有)할뿐이니, 강력 이외에 다시 무엇이 유하리오”라는 극단적인 ‘강력주의’로 나아간다. 그는 1차 세계대전에서 벨기에가 패배한 사건을 언급하며 “국제공법”이 “무심한 독일의 대포”만 못하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세계정세를 강자만이 생존하는 “경쟁시대”로 파악하며, 현상윤은 “약자”인 조선민족이 생존할 길은 “하로밭비 약자의 탈을 벗고 광명잇고 영화잇는 강한 사람의 면류관을 구하여 쓰”는 것뿐이라고 강조한다.

당면 과제를 ‘생존’에 맞출 때, 지식인들이 힘써야 할 분야는 군사, 과학, 산업 등 물질문명의 차원에 집중된다. 현상윤은 “문명적 이기(利器)가 우리의 생활을 풍부케 하기 전에는 아마도 형이상적 토론이 별노 긴치 안이하”다고 하며, “무용적 정신”, “자연과학의 발달”, “산업혁명”을 강조한다. 한편, 예술, 철학은 생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부차적인 지위로 밀려난다. 그는 “예술이며 연애의 로맨스가 그러케 합리적이라고는 말할 수 업”다고 하며, 조선이 “세계의 예술중심이란 말을 듣는 것보다” 실용적 학문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요컨대, 물질적 진보를 강조하는 현상윤식의 ‘강력주의’에서 철학, 예술 등의 정신적 가치는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다.<sup>60)</sup>

염상섭은 현상윤의 논리를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 현상윤의 도덕은 개인의 가치를 민족의 생존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인정한다. 염상섭에 따르면, 현상윤은 개인의 개별적 가치를 무시하고 민족 전체의 부강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무생명·무권위한 소극적 도덕”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염상섭은 개인이 단순히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과 천품의 재질을 탐구, 자각하여 자기의 적합한 순로”를 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개인의 역할이 집단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해야 할 유동적인 것이 되면서, 개인은 일방적 영향이 아니라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독립적인 단위가 된다.

둘째, 현상윤은 개인의 사회 참여를 물질적 차원이나 정치적 차원의 입

60) 현상윤, 「強力主義와 朝鮮靑年」, 『학지광』 6호, 1915.7, 43-49면.

신양명 모델에 한정하고 있다. 이를 염상섭은 “민중을 도외시하고 평민을 노예시하던 봉건시대의 표준”이라 비판하며, “개인이 다 원대한 경륜을 가지고 직접으로 자기의 성의를 표현”하려면 개인이 스스로 각자의 소질을 계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새롭게 조명되는 것은 예술의 가치이다. 현상윤이 배제하였던 예술은 염상섭에게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이익에 합치하지 않지만 개인의 정신적 가치를 함양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이다.<sup>61)</sup>

개인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함에 따라, 사회의 이상적 모델 또한 생존경쟁의 장이 아니라 개인들이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호부조가 된다. 염상섭은 현상윤의 재반박에 응답하며, 조선인은 “사회생활의 단련이 없어서 상호부조의 정신이 부족”<sup>62)</sup>하다고 언급한다. 이는 조선인 전체를 향하고 있지만, 현상윤으로 대표되는 실력양성론의 사회관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상윤은 경쟁이 구성원의 상호 발전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하지만, 염상섭과의 차이는 우열의 위계질서를 전제한다는 점이다.<sup>63)</sup> 현상윤에게 경쟁의 지향점이 기존의 위계질서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라면, 염상섭의 개인은 타자로 환원될 수 없는 각자의 개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우열의 기준이 존재할 수 없다. 염상섭의 입장에서 실력양성론이야말로 전제주의를 승인한 논리였으며,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인격향상이라는 문화주의의 이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이에 염상섭은 인격향상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개인들이 서로 부조하는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현상윤과 염상섭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염상섭이 실력양성론을 주장한 앞선 세대에 비해 크게 두 가지 전환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61) 제월, 앞의 글, 『기독교청년』 6호, 1918.4.

62) 제월, 앞의 글, 『염상섭 문장 전집 I』, 소명출판, 36-40면.

63) 시기 상 앞서지만, 유길준도 경쟁을 문명으로 진입하고 국가의 부강을 증진시키는 조건으로 보았다. 여기서도 현상윤과 마찬가지로 강대국과 약소국의 위계를 설정하는 사유가 드러난다. 다만, 유길준은 도(道), 예(禮), 덕(德)과 같은 유교적 덕목으로 경쟁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현상윤식의 강력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였다.

장인성, 「유길준에 나타난 ‘도덕’과 ‘정치’-자기-타자인식의 정치적 사유」, 『국제문제연구』 23집,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1999 참조.

있다. 첫째, 염상섭은 문화주의의 가치관에 호응하여 도덕의 기준을 인격 향상과 자아실현으로 설정함으로써 개인의 가치를 부각한다. 이로써 개인은 집단의 일부가 아니라 고유한 행위주체성을 지닌 단위가 된다. 둘째, 개인의 가치가 조명됨과 동시에,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도 생존경쟁이 아니라 개인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호부조의 질서가 된다. 개인들이 각자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면 소수만이 살아남는 생존경쟁을 멈추고 타자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 시기 염상섭은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근거로 물질적 진보를 강조하는 실력양성론과 개개인 간의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위계질서를 비판하며, 개인이 상호부조하는 사회를 상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동등한 권리가 개별성보다 앞서기 때문에, 자연히 개인의 행복 추구가 사회 전체와 충돌하는 상황은 상정되지 않는다. 사회가 개인의 개성을 억압하지만 않는다면 사회와 개인은 유기체처럼 서로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낙관이 드러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sup>64)</sup>

개인에 관한 이러한 염상섭의 사유가 조선의 내부 상황과 연결되는 계기는 3.1운동이다. 염상섭은 도쿄에 있는 주류 유학생들과 단절되어 있었으나, 2.8독립선언이 열렸다는 사실을 교토에서 전해 듣고, 오사카로 가서 독립선언을 계획한다. 오사카 덴노지 공원에서 배포될 목적으로 쓰여진 「독립선언서」<sup>65)</sup>는 당시 염상섭이 조선 독립의 근거를 문화주의와 개조론에서 찾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염상섭은 선언서의 서두에서 당시 개조론의 유행을 이끌었던 에드워드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를 독립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일본은 “동족”이라는 명목 아래 조선 민족을 동화시키고자 하나, 조선의 구성원들은 “자유의 존엄을 지나치게 깨달”은 독립적인 인격체이므로 독립을 선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 『데모크라시(デモクラツイ)』지에 게재되었던

---

64) 염상섭은 개인과 사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와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계월, 앞의 글, 『기독청년』 6호, 1918.4.

65) 염상섭, 「독립선언서」(1919),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 I』, 소명출판, 43-44면.

「조야의 제공에게 호소함(朝野の諸公に訴ふ)」이라는 논설에서도 자세히 드러난다. 이 글은 대상 독자를 일본인으로 설정하여 일본어로 일본 매체에 발표된 글이다. 일본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글에서도, 염상섭은 각 민족이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여 전 인류의 평화를 수립해야한다는 문화주의적 신념을 근거로 삼아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들[조선 민족]도 역시 인간으로서 그와 같은 것으로써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4천년의 유구한 문화가 있다. 우리의 정신이 향상을 위해 타오르는 것은 일본의 청년과 어떤 차이도 없다. (중략) 만일 일본이 동양의 맹주(盟主)로서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의 그릇됨을 부르짖고, 그럼으로써 영원의 평화를 위해, 인류의 복지를 위해, 한 줌의 흙을 쌓아올리려 한다면 우선 우리 상호간의 뇌리에 교착된 계급적 편견, 민족적 차별, 남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감정을 깨끗하게 버린 뒤에, 함께 상호협력해서 그것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sup>66)</sup>

위 인용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인류’라는 단위이다. 염상섭은 개별 민족들이 “영원의 평화를 위해, 인류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조선 민족과 일본 민족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민족은 ‘개인-민족-인류’로 이어지는 연결망 속에서 한 단위로서 최종적으로는 인류를 향상시켜야하는 의무를 지니므로, 일본 민족은 타 민족을 배척하는 대신 “상호협력”의 태도를 취해야한다는 것이다. 1910년대 개조론을 받아들인 논자들이 ‘세계’ 및 ‘인류’라는 보편적 관념 속에서 민족의 위치를 가늠하고자 하였듯이,<sup>67)</sup> 마찬가지로 염상섭도 “정신이 향상을 위해 타오르는” 인류 보편의 이상을 이루어야함을 근거로 조선인의 독립을 주장한 것이다.

66) 廉尙燮, 「朝野の諸公に訴ふ」(『デモクラツイ』, 1919.4),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 I』, 소명출판, 47-50면.

67) 권보드래, 「진화론의 갱생, 인류의 탄생」, 『대동문화연구』 66집, 2009.

결론적으로, 일본 유학 시절 염상섭의 평론에서 관찰되는 것은 일본 문화주의 사상의 영향이다.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 하에 개인의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는 문화주의를 수용함으로써, 염상섭은 개인에 대한 사유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앞선 세대의 주도적 담론에 거리를 취할 수 있었다. 개화계몽기의 대표적인 담론은 민족의 물질적 발전을 추진하려는 실력양성론이었다. 현상윤과의 논쟁을 통해, 염상섭은 개개인이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단기적인 물질적 번영과 이어지는 않지만 최종적으로는 민족과 인류 전체에 기여할 것임을 역설한다. 이같은 염상섭의 ‘개인’에 대한 사유는 3.1운동을 계기로 민족의 독립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 2.2. ‘현실폭로의 비애’를 통한 비판적 자기인식

1절에서 유학시절 염상섭의 입장이 문화주의의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었음을 검토하였다면, 2절에서는 그가 가졌던 문화주의적 이상이 3.1운동 직후 조선의 현실과 충돌하며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귀국 이후에서 1922년까지의 기간은 염상섭이 「폐허」 동인의 일원이 되는 동시에, 여타 동인들과 차별화된 입장을 마련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본고는 염상섭이 단순히 지식의 내용이 아닌, ‘지식을 생산하는 방법 및 태도’에 대해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는 점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1920년은 문학사적으로도 염상섭 개인에게도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이다. 요코하마에서 인쇄공을 하던 염상섭은 이 해에 귀국하여 동아일보 정경부 기자로 활동하게 된다. 이같은 염상섭의 행적은 3.1운동 이후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하여 새로운 세대들이 국내의 문화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현상과도 맞물려 있었다. 한편, 문학사적으로는 염상섭을 위시한 유학생들이 1910년대의 대표적 문인 이광수·최남선의 자장에서 벗어나 소규모 동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3.1운동 직전에 이미 최초의 문학동인지 『창조』가 일본에서 발간되었으며, 1920년 7월 국내에서 또 다른

동인지 『폐허』가 뒤따라 창간되었다. 염상섭은 유학시절 『삼광』 동인끼리의 인맥을 바탕으로, 김억, 남궁벽, 황석우 등과 함께 『폐허』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조선의 현 상황이 과거의 것은 소멸하였으나 새로운 것은 도래하지 않은 ‘폐허같은 과도기’라고 보았다. 염상섭은 『폐허』 1호의 후기에서 조선 사회를 “땅이 말라서 짝짝 갈나지고, 풀 낚이란 풀낚은 색까마케 타며, 돈이 말라서 우후(雨後)의 죽순가튼 주식 회사의 간판이 날아가고, 호주머니속에서 회리바람이 부는”<sup>68)</sup> 폐허에 비유하였다.

염상섭이 지닌 고유한 문제의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폐허』 동인들과 염상섭이 공유하는 지점을 밝히고자 한다. 염상섭의 초기 사상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폐허』 동인들의 공통적인 특질을 공유하고 있다. 첫 번째, 『폐허』 동인들은 개인의 자유와 창조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개성’, ‘생명’, ‘참 자기’ 등의 키워드는 가치의 기준을 자아로 일원화하려는 그들의 기획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령, 『폐허』 동인인 오상순은 개인의 목적이 오직 “우리의 유일의 생명, 이상 자유의 요구 실현”에만 있으며 “다른 뜻은 아모것도 업다”고 천명하였다.<sup>69)</sup> 이처럼 집단에 앞서 개체를 중시하는 사유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것을 주장하였던 개화계몽기의 담론과 비교할 때 큰 전환이었다.

마찬가지로 염상섭은 집단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체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이 자유롭게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이철호가 지적하였듯이, 염상섭의 초기 평론에서는 문화주의 및 생명주의의 키워드가 강하게 드러난다.<sup>70)</sup> 1918년에 이미 “개성과 자유의지”가 인간의 본능으로 지적되고 있으며<sup>71)</sup>, 1922년에 발표된 대표적인 평론 「개성과 예술」에서 개성이란 “개 개인의 품부한 독이적 생명”<sup>72)</sup>이라고 보다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다. 개성은 인간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내포하는 개념인데, 이 개성의 표현이 ‘생명’이라는 것이다.

68) 제월, 「想餘」, 『폐허』 창간호, 1920.7.

69) 오상순, 「時代苦와 그 犠牲」, 『폐허』 창간호, 1920.7.

70) 이철호, 『영혼의 계보』, 창비, 2013, 344-349면.

71) 제월, 「婦人의 覺醒이 男子보다 緊急한 所以」, 『여자계』 2호, 1918.3.

72) 상섭, 「個性과 藝術」, 『개벽』 22호, 1922.4.

그러면 개성의 표현을 의미하는 바 생명이란 무엇을 의미함인가.

나는 이것을,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정신생활’이라 하려 한다. 물질 생명의 요구나, 또는 그 현현은, 생물에 공통한 현상이며, 갱히 일보를 진하여, 희로애락애오의 감정생활이며, 사업욕, 지식욕, 기타 자유를 요구하고, 인권을 주장하는 등으로 말할지라도, 역시 정신 생활의 일부의 표현이 아닌 것은 아니나, 이것도 일반적 인간성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요, 아직 숭고한 생명의 발로인 독이적 개성의 영역은 아니다. (중략) 이와 같이 그 천부한 개개의 천성을 자유로이 발휘하는 거기에, 그의 정신생활의 전국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정신생활이 곧 그 자신의 거룩하고 독이한 생명의 발로라 할 것이다.<sup>73)</sup>

(강조-인용자)

위 인용문에서 개성은 “일반적 인간성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개별성을 드러내는 특질로 파악되고 있다. 한 개인은 타인과 구별되는 “천부한 개개의 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표현할 때 “거룩하고 독이한 생명”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이 생명은 “물질 의의로부터 초월”한 정신적 가치를 지니고, 외부의 기준으로 환원될 수 없는 철저한 내재성을 보인다. 여기서 물질을 배격하고 정신성을 강조하는 문화주의와 생명주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타협하지 않는 반권위주의이다. 『폐허』 동인들은 외부의 환경을 생명을 억압하는 구속으로 여겼다. 사회는 물질적 이익만을 좇거나 기계적인 도덕만을 강요하는 세속적인 공간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세대의 청년들은 희생되고 있다는 것이다.<sup>74)</sup>

73) 상섭, 앞의 글.

74) “우리의 시대는 말할 수 없는 오너를 가지고 있다. 그는 결코 생활난의 고생이나, 허영심에 뜬 초조(焦燥)나, 속적 성공열에 달른 불만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엄숙한 오



이때 개인의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정과 사회가 강요하는 인습이 지목된다. 또다른 『폐허』 동인 김찬영은 양심을 “허위의 인습이 집합한 결정체”라고 비판하면서, “거기에 구속된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개성의 하고저하는 바를 차단치 안이하면 안이되는 운명을 가졌”다고 한탄한다.<sup>75)</sup> 물론 구습을 비판하는 것은 이전 세대인 이광수와 최남선의 논설에도 드러난 바였지만, 동인지 세대들은 예술가의 자기 표현을 통해 성립되는 창조적인 자아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보다 강한 낭만성을 보인다.<sup>76)</sup>

염상섭의 평론에서도 “형식적 구도덕”에 대한 비판이 빈번하게 언급된다. 그에 따르면, 기계화된 도덕이 천부된 개성을 마비시켜 결국 인간을 “허위의 만족과 가면의 행복”에 중독시킨다는 것이다.<sup>77)</sup> 이처럼 경직된 구세대의 인습에 약동하는 생명을 맞세우며, 동인지 세대들은 자신들의 문학 활동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세우고자 하였다.

세 번째 특징은 문학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진실’을 다루어야 한다는 예술관이다. 1920년대는 개인과 자아에 대한 관념이 뚜렷해지면서, 문학이 다루는 사실성 역시 객관세계의 단순한 반영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시기이다. 특히 『폐허』 동인들은 개별자의 인식을 중시하면서 주관에 의해 매개된 진실을 문학의 소재로 삼았다.<sup>78)</sup> 염상섭의 평론에서도 이 두 가지 사실성의 개념을 구분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우선, 백악 김환의 소설을 비판하며, 염상섭은 “역사나 상용일기”와 예술품을 구분한다. 전자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쓰는 것이라면, 후자는 “그 당 사고의 심리, 행동, 성격” 즉 개별자의 주관

---

뇌일다. 진자기도 희생함을 요구하여 가차(假借)치 안토록 잔인하고 필연적인 고민일다. 이 시대의 고민오뇌는, 가장 진실한 청년남녀에게만 이해되고 체험되며, 또 가장 처참하게 심각하게 오뇌된다. 이 종(種)의 청년은 실로 시대요구에 제일 충실하고 기구한 희생자일다. 더이들은 영원한 칩묵나에 파묻쳐가는 비애를 가지고 있는 희생자일다. 오늘날, 생각있고 진실한 우리 청년들은 모다 이러한 상태에 있다.”

오상순, 앞의 글, 『폐허』 창간호, 1920.7.

75) 김찬영, 「『K』兄의게」, 『폐허』 창간호, 1920.7.

76) 이철호, 앞의 책, 59면.

77) 제월, 앞의 글, 『여자계』 2호, 1918.3.

78) 유승환, 「1920년대 초반 비평에 나타나는 ‘사실성’ 개념의 전개 양상」, 『춘원연구학보』 7집, 2014.

을 매개로 한 “산 사실”을 알려주는 형식이라는 것이다.<sup>79)</sup>

이를 종합하면, 동인지 세대들과 더불어 염상섭은 외부의 권위에 맞서 자아를 해방시키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관을 표현하는 예술이 중요한 매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염상섭과 여타 『폐허』 동인들은 개인이 내적 각성에 이르는 방법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다수의 『폐허』 동인들에게서 강조되는 것은 ‘충동’이라는 키워드이다. 오상순, 김찬영 등 대부분의 동인들에게 자아의 각성은 직관을 통해 “우주적 대생명”<sup>80)</sup>과 합일하는 체험이므로, 각성을 매개하는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충동을 깨닫는 순간이다. 이는 『폐허』 동인들이 영향을 받은 일본의 생명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가령, 생명주의를 견인한 시라카바파(白樺派) 작가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는 생명의 발현인 욕구, 본능, 의지를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본능적 생활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감각 혹은 욕동의 측면을 강조하는 생명주의 사상에서 충동을 통어하는 인격이라는 상위 심급은 신뢰할 수 없는 요소에 불과하였다.<sup>81)</sup> 자연스럽게 이들 작품에서는 인식의 작용보다 신비주의적 체험이 부각된다. 자아와 자연이 무매개적으로 합일하는 순간이야말로 이들이 지향한 이상적인 경지였던 것이다.<sup>82)</sup>

한편, 염상섭은 자아가 각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성찰’이라는 이성적인 인식 작용을 부각한다. 물론, 염상섭 또한 ‘개성’, ‘생명’ 등의 키워드를 공유하지만, 그의 평론에서는 자아의 각성에 있어서 욕망, 허영과 같은 자아의 정념을 반성하고 통어하는 심급이 필수적으로 등장한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염상섭이 『폐허』 동인들과 시라카바와 교류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생명주의에 내포된 낭만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왔다. 그러나 염상섭의 평론 및 소설은 낭만성을 드러내는 신비주의적 체험보다 무비판적

---

79) 제월, 「白岳 氏의 自然의 自覺을 보고서」, 『현대』 2호, 1920.2, 42-44면.

80) 오상순, 앞의 글, 『폐허』 1호, 1920.7, 62면.

81) 倉數茂, 한태준 역, 『나 자신이고자 하는 충동』, 갈무리, 2015, 17면, 38면.

82) 『폐허』 동인들의 생명주의적 작품 경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서와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철호, 앞의 책 ; 최호영, 「야나기 무네키의 생명사상과 1920년대 초기 한국시의 공동체 문제」, 『일본비평』 11집, 2014 ; 이은지, 「1920년대 오상순의 예술론과 이상적 공동체상」, 『상허학보』 43집, 2015.

으로 승인한 외부 권위와 지식을 스스로 비판하는 인식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1920년에 발표된 글 「자기학대에서 자기해방에」에서 ‘생활의 성찰’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염상섭은 ‘성찰’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 염상섭은 자신의 생활에 모순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그가 표방한 신념은 외부의 권위를 비판하고 자신이 설정한 방침에 따라 생활을 자율하여 나가는 것이었지만, 내면에는 기존의 질서를 승인하고 타율적으로 살아가려는 또 다른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염상섭은 ‘자기해방의 길’과 ‘자기학대의 길’로 표현한다.

모든 사람은, 自己를 가장 사랑하는 者는, 自己 以外에 또다시 업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나 自己를 가장 虐待하는 者도 自己 以外에 또다시 업는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愚庸의 徒 일사록, 自己虐待와 淨化한 精神的 自愛를 混同합니다. 그 實例를, 그 第一者를, 諸君은 이 어리석은 者로 하여금 眼前에 보실 수가 잇습니다. 果然 나는 自己를 嘲弄하고 驅馳하고 虐待하는 暴君과, 또 이것을 받는 奴隸와의 二重生活의 遂行者올시다. 그뿐만 안이외다. 自己分裂, 意識分裂뿐만 안이외다. 自己分裂을 防禦하고 自己內訌을 解決하기 前에 나는 全我를 들어서 「境遇」의 陛下에 棄擲하였습니다. 함으로 나에게 對한 「境遇」는 絶對權威이엿습니다. 不可抗力이엿습니다. 나는 나의 生活에 對하여, 發言權이 업섯습니다. 업는 게 안이라 拋棄하였섯습니다. 우에 第二者의 意志의 活動을 懇望하였다는 것이, 곳 이 「境遇」라는 威力을 意味함이외다. 함으로 「自己를 사랑한다」는 것이, 「自己에게 忠實하라, 自己의 生活을 生活하라」는 意味일진대, 「境遇」의 權威를 全적으로 容認하는 生活, 卽 自己의 「월」을 沒却하고 第二者의 「월」을 豫想하는 生活과, 自己分裂에 依한 二重生活은 맞듯이 自己를 사랑치 안는 生活이요, 따라서 自己虐

待의 生活이라 하겠습니니다.

「自己를 사랑한다, 或은 自己의게 忠實하라」는 말이, 利己主義를 가라치는 淺薄한 意味가 안임은 斟酌하실 줄 밧습니다. 이것을 一言으로 蔽하면, 모든 權威와 偶像이 幻滅된 生活, 自己의 內面에 彌蔓播殖된 第二天性 或은 性癖의 牢殼을 脫却한 生活, 個性의 自由러운 發展을 妨害치 않는 生活..... 一切로부터 解放된 生活을 이룸이외다.<sup>83)</sup>

(강조-인용자)

귀국 이전, 葉상섭은 文化주의에 입각하여 외부의 권위를 배척하고 스스로 내적 가치를 발전시켜가는 개인 의 모습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葉상섭은 人間에게는 권리를 포기하고 “제2자의 의지”를 승인하는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葉상섭은 스스로 자유의 권리를 포기하고 타율적인 삶을 선택하는 이러한 人間의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 “제2의 천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제2의 천성”이란 본성은 아니지만, 잘못된 구습과 교육으로 인하여 마치 천성처럼 되어 버린 내면을 의미한다. 이 “제2의 천성”을 반성하지 않을 때, 개인은 타인의 의지에 자신 의 자율권을 포기하게 되며, 결국 스스로 종속의 길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사례로 葉상섭은 자신 의 체험을 든다. 그는 모든 권위를 부인하고 개성을 추구한다고 말해왔지만, 자신 의 생활은 권위를 승인하는 모순을 보여왔다고 반성한다. 즉, ‘자기학대’의 생활과 ‘자기해방’의 길을 혼동하였다는 것이다.

내면의 타율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수하에서」<sup>84)</sup>는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 의 태도와 연결된다. 「저수하에서」의 서두에서, 葉상섭은 외부에서 주어진 진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과 자신 의 사유를 토대로 진리를 정립하는 것의 차이를 논한다. 이는 ‘허언(虛言)이 곧 진리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명제로 표현된다.

83) 葉상섭, 「自己虐待에서 自己解放에-生活의 省察」, 『동아일보』, 1920.4.6.-4.9.

84) 상섭, 「樗樹下에서」, 『폐허』 2호, 1921.1.

「…虛言은 사람이 모든生物보다 超越할수잇는唯一의特權이다. 虛言속에서 眞이 나온다. 나도 거짓말을하기때문에 사람이 다. 처음에 四十番이나 或은 一百四十番이나 虛言을하지 안코는 單한아의眞理에도 得達할수업다. 萬一 그것이 自己의생각에서우러나오는虛言일지경이면 尊敬할만한것이다. ……自己의生覺으로서 虛言을하는것은 眞理를 다른샘(他泉)에서 기러오는것보다나혼일이다. 前者인境遇에는 너는 아즉 사람이다. 그러나 後者인境遇에는 너는 鸚鵡에不過하다……」<sup>85)</sup>

위 인용문에서 염상섭은 “진리를 다른 샘에서 길어오는 것”과 “자기의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허언”을 대비시키고 있다. 여기서 그가 주목하는 것은 진리의 ‘내용’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진리의 내용을 논한다면, 진리와 허언을 가르는 기준은 표면적인 사실의 영역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의 방법에 주목한다면, 개인이 지식의 원천을 어디서 찾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염상섭은 그 내용이 허언일지라도 “자기의 생각으로서 허언을 하는 것”은 외부에 주어진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앞선 글에서 ‘자기해방’의 길로 표현된 주체의 자율성을 진리 추구의 태도에도 적용한 사례이다.

염상섭이 내면에 자리한 타율성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게 된 계기는 귀국 직후 그가 관찰한 국내 사정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귀국 이후 염상섭은 3.1운동 이후의 경과들에서 자신이 수용한 문화주의의 이상이 현실에서는 배반된다는 사실을 목격한다. 염상섭을 비롯한 3.1운동 당시, 지식인들은 파리강화회의가 내건 세계개조의 구호를 받아들여 독립운동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귀국 이후 염상섭의 입장은 강대국이 주도하는 개조론의 의도를 비판하는 것으로 변모한다. 1920년 『삼광』에 발표된 글 「이중해방」에서 염상섭은 파리강화회의가 내건 세계개조의 구호가 “위선의 감언”에 불과하였다고 비판한다. 즉, 파리강화회의는 세계개조와 민족자결주의를 이상으로 내세웠으나, 결과적으로 승전국만 이익을

85) 상섭, 앞의 글, 『폐허』 2호, 1921.1, 54면.

취했을 뿐 식민지의 해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염상섭은 “해방을 의미치 않는 개조, 부분적, 비세계적 개조는 쓸데없다”고 하며, “권위의 교대”가 아닌 전 인류가 해방되는 것만이 “진정한 개조”라고 역설한다. 승전국 중심의 개조 담론에 대한 환멸을 통해, 염상섭은 담론을 생산한 배후의 의도를 비판하고 개조론의 무조건적 수용을 경계하게 된 것이다.<sup>86)</sup>

다음으로, 염상섭이 비판한 것은 자신이 내세우는 가치를 성찰하지 않는 지식인들의 태도이다. 3.1운동 직후, 염상섭은 외부에서 주어진 진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진리를 물질적 수단으로 삼는 지식인들의 행태를 비판한다. 이는 염상섭이 창작한 소설의 인물에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22년에 발표된 단편 「E선생」에서 염상섭은 등장인물 E선생의 입을 빌려 3.1운동 직후의 국내 분위기를 “오백 원이라는 잔돈 몇 푼을 갈가먹고 심허서 문화운동이니 주의 선전이니 하는 이 사회가 가엾다는 것이야!”<sup>87)</sup>라고 비판한다. 이처럼 염상섭의 시각에서 국내의 상황은 ‘문화운동’이라는 대의를 내걸지만 실상은 이익을 추구하는 “저주받은 사회”으로 인식되었다. 개조론에 밀려났던 실력양성론이 1921년 즈음 부활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sup>88)</sup>, “조선 사회에 발을 드리노코보니 모든 것이 썩이엇든 것을 깨달았다”<sup>89)</sup>는 E선생의 비판은 당대의 문화운동이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는 ‘문화주의’의 이상을 내걸었지만 그 내용은 물질적 부강을 강조하는 실력양성론과 다르 없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염상섭은 위와 같은 환멸의 체험을 자아 각성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1922년까지의 평론에서 염상섭은 『폐허』 동인들이 강조하는 ‘충동’ 대신, “현실폭로의 비애”라는 자연주의의 용어를 여러 평론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글 「자기학대에서 자기해방에-생활의 성찰」에서 염상섭은 처음으로 “현실폭로의 비애”를 다음

86) 염상섭, 「二重解放」, 『삼광』 2권 1호, 1920.4.

87) 염상섭, 「E선생」, 『동명』, 1922.9.4.

88) 박찬승, 앞의 책, 183-185면.

89) 염상섭, 앞의 글, 『동명』, 1922.9.4.

과 같이 언급한다.

善美하리라고 夢想하고, 善美케 되지 안으면 안되리라고 바라든 人性의 모든 醜態, 모든 奸惡, 모든 弱點을 볼 때, 가장 痛切한 現實暴露의 悲哀에 울 際, 社會現象의 根底的 不合理와 權威의 壓倒, 個性의 無視를 憤慨할 際, 나는 아아, 棺木에 대패질하는 소리를 드렸습니다.<sup>90)</sup>

“현실폭로의 비애”는 자아가 “선미(善美)”하다고 인식하였던 주변 환경에 환멸을 갖게 되는 계기를 의미한다. 주체는 자신이 승인해온 세계가 개성을 무시한다는 점을 깨닫고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을 회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의 전환을 염상섭은 각성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 기성의 제도와 도덕을 비판하기 이전에, 자기 내면에 그 권위를 승인해온 타율성이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라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의 노예인 동안은 대외적인 해방을 요구할 자각도 없고 권리도 없”다는 언급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주체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인 “현실폭로의 비애”는 이후 염상섭이 자아 각성의 과정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본래 이 키워드는 하세가와 덴케이(長谷川天鷄)와 시마무라 호게츠(島村抱月) 등 일본 자연주의 평론가들이 정식화한 개념으로, 염상섭의 평론에서 드러난 자연주의의 영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염상섭은 동시에 ‘생명’, ‘개성’ 등 자연주의 이후에 등장한 낭만주의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이질적 요소의 공존이 염상섭의 사상을 평가하는데 난점이 되어왔다. 이 이질성을 염상섭 사상 내의 일관된 맥락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용어의 어떤 맥락을 염상섭이 전유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현실폭로의 비애”를 처음으로 정식화한 자연주의 평론가 하세가와 덴케이는 당대를 환상이 소멸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이 드러난 “환멸시

---

90) 염상섭, 앞의 글, 『동아일보』, 1920.4.7.

대”라고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종교개혁과 과학의 발달으로 인해, 인간은 기존의 신분 및 계급의 권위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역사는 한층 진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하세가와는 환멸 자체에 의의를 부여하기보다 그 폐해를 지적한다. 이 환멸로 인해 진정한 환상까지 파괴되어서, 인간은 새로운 환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91)</sup>

오히려 “현실폭로의 비애”가 자아인식의 계기로서 의의를 부여받은 것은 다이쇼 사상의 색채가 덧씌워진 이후부터이다. 다이쇼 시기의 평론가인 다나카 준(田中純)은 자연주의의 캐치프레이즈인 “환영파괴”를 재해석함으로써 “자기 혁명”이라는 새로운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자연주의 운동이 ‘무이상, 무해결’로 평가받았지만, 오히려 거기에는 생명에 내재한 새로운 환영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었다는 새로운 해석을 가한다.

우리들이 이같이 제2의적인 환영, 오히려 우리들의 생활의 껍질을 아쉬울 바 없이 파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환영하면, 우리 자신이 세운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받은 것 같은 타인으로부터 강제된 환영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소극적인 환영파괴를 긍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우리에게 그것보다도 다시 필요한 일은 우리 자신이 만든 환영도 현재 우리가 중심요구에 의한 비판 하에 파괴한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환영이 진실로 우리가 중심요구의 상징 또는 힘으로서 발생한 것인 한, 그 환영으로 단순히 일개 환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생활 상에 일개의 실재, 일개의 사실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진정한 환영파괴의 본의(本義)가 있다. 진정한 파괴는 생명의 신장의 필연적 결과로서 올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환영의 실현에 의해서 그것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영파괴의 제1의는 거기에 있다.<sup>92)</sup>

91) 長谷川天鷄, 「幻滅時代の芸術」, 『太陽』, 1906.10.

92) 田中純, 「幻影破壞の眞意義」, 『早稻田文學』, 1915.5.



위 인용문에서, “환영과괴”는 외부에서 강제된 환영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든 환영” 즉 생명의 신장을 저해하는 자아 내부의 구속까지 깨뜨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개념은 비단 외부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이같은 용례는 다나카의 평론뿐만 아니라, 동 시기의 다른 글에서도 관찰된다. 다이쇼 시기 유행한 철학자 오이켄의 사상을 설명하는 책에서 “현실폭로의 비애”는 “자기 자신의 생활”이라는 이상으로 나아가기 이전 단계로 언급되고 있으며,<sup>93)</sup> 생철학자 가네코 우마지(金子馬治)도 같은 키워드를 생명주의의 맥락에서 전유하고 있다.<sup>94)</sup> 이같은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폭로의 비애”는 다이쇼 시기의 사상에 의해 외부현실과 자아 내부에 대해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재해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염상섭의 대표적 평론인 「개성과 예술」과 「지상선을 위하여」는 단순히 ‘개성’이라는 개인의 이상을 정식화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아각성의 과정에서 “현실폭로의 비애”가 필수적 단계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우선, 「개성과 예술」은 ‘자아의 각성’과 ‘개성의 발견’이라는 근대인의 두 과제에 대한 의의를 서술하고, 자아가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전자가 2, 3장에 걸쳐 제시된다면, 후자는 1장에서 상술된다. 이때 “현실폭로의 비애”는 자아가 각성에 이르는 계기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함으로 이와가티 敎權의 威壓으로부터 解放되고, 夢幻에  
甘醉한 浪漫的 思想의 베일로부터 버서 나와 自己의 正體를

93) 稻毛詛風 著, 『オイケンの哲學』, 大同館, 1914 ; 이범일 역술, 『어이켄 哲學』, 조선도서, 1921, 1면.

이범일이 역술한 『어이켄 哲學』은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필자가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이 1914년에 동경에서 발간된 『オイケンの哲學』과 일치한다. 따라서 원작자는 稻毛詛風이라 할 수 있다.

94) 권철호, 「『만세전』과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적 정치미학」, 『민족문학사연구』 52집, 2013.

明瞭히 凝視할만치, 깊고 오랜 꿈에서 깨여 나온 近代人은, 爲先 모든 것을 疑心하기 始作하였다. 이 疑心이야말로 어떠한 時代에던지 모든 文化의 酵母다. 一生을 醉生夢死로 지내는 사람에게는 百般의 事物에 대한 疑問이나, 批評의 精神이 잇슬 理가 업지마는, 一旦 覺醒한 以上, 自己의 周圍를 疑心하고, 批評的 態度로 一切을 探究評價하라할뿐 아니라, 自己自身에까지 疑惑의 眼光을 向하게 되는 것은 當然한 事라 하겠다. 그리하여 自覺한 彼等은, 第一에 爲先 모든 權威를 否定하고, 偶像을 打破하며, 超自然的 一切를 물리치고 나서, 現實世界를 現實 그대로 보라고 努力하였다. (중략)

이러한 心理狀態를, 普通 이름하여, 現實暴露의 悲哀, 또는 幻滅의 悲哀라고 부르거니와, 이와가티 信仰을 일허버리고, 美醜의 價値가 顛倒하여 現實暴露의 悲哀를 感하며, 理想은 幻滅하여, 人心은 歸趨를 일허버리고, 思想은 中軸이 부러져서, 彷徨混沌하며, 暗澹孤獨에 울면서도, 自我覺醒의 눈만은 더욱 더욱 크게 뜨게 되었다. 或은 이러한 現象이, 돌이어 自我覺醒을 促進하는 그 直接原因이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何如間 이러한 現象이 思想方面으로는 理想主義, 浪漫主義 時代를 經過하여, 自然科學의 發達과 共히, 自然主義 乃至 個人主義思想의 傾向을 誘致한 것은 事實이다.<sup>95)</sup>

위 인용문에서 “현실폭로의 비애”는 자아가 외부 현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의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으로 설명된다. 물론 염상섭은 이 키워드를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역사의 한 국면으로 보는 하세가와 덴케이의 기본 입장을 언급하지만, 이를 ‘자아각성’이라는 인식론의 측면에서 조명한다는 점에서 자연주의 평론이 아닌 앞서 언급한 다이쇼의 맥락을 전유하였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인식에서 탈피하는 환멸의 경험을 계기로, 자아는 외부의 우상과 권위를 무비판적으로 승인하였

---

95) 상섭, 「個性과 藝術」, 『개벽』 22호, 1922.4, 2-3면.

던 내면의 타율성을 자성(自省)하게 된다.

염상섭의 특징은 이러한 환멸의 체험을 진정한 “개인주의사상”과 연결 짓는다는 것이다. 『폐허』에 실린 다른 동인들의 글에서도 조선 사회에 대한 ‘비에’ 및 ‘환멸’이 토로되고 있지만, 염상섭은 이를 각성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염상섭은 개인주의가 “권위 부인, 우상 타파의 자기각성에 출발점이 있”다고 하며, 개인이 자신의 존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기준을 외부에 두는 타율성에서 벗어나야함을 역설한다. 1장에서 “현실폭로의 비에”로 대표되는 자아의 각성 과정을 설명한 이후, 2장부터 본격적으로 자아각성의 의의를 설명하는 글의 구성 또한 환멸을 통한 인식의 전환을 중요시하는 염상섭의 의도를 드러낸다.

위 논의를 종합하면, 1920년대 문화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염상섭의 ‘개인’은 ‘현실폭로의 비에’ 키워드와 만나면서 새로운 맥락을 부여받게 된다. 염상섭의 평론에서 드러나는 ‘현실폭로의 비에’의 맥락은 자기반성의 계기이자, 타율적으로 승인한 외부 권위를 비판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로써, 염상섭의 ‘개인’은 내면성의 표출을 중시하는 낭만주의와도 다른, 환멸의 체험과 자기반성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요청하는 자율적 주체라는 함의를 지니게 된다.

### 3. 개인의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욕망의 성찰

#### 3.1.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과 배타적인 공동체

앞서 평론에서 염상섭은 ‘개인’은 자기반성이 가능한 자율적 주체라는 규범적 의미를 제시하였다면, 소설 창작을 통해 등장인물들이 개인의 이상에 도달하려는 과정을 서사화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염상섭의 초기 단편을 주동인물의 성격에 따라 두 계열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지식인 인물을 다루는 염상섭의 초기작은 등장인물을 남성 지식인과 신여성 인물로 한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염상섭은 주동인물의 성차(性差)에 따라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이라는 동일한 주제에 대한 상반된 접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작가 염상섭과 동일시된 남성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가 하나의 계열을 이룬다면, 두 번째 계열은 그의 입장에서 타자인 신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이다.

우선, 1절에서는 첫 번째 계열인 남성인물 한 사람의 내면에 초점을 맞춘 세 단편 「표본실의 청개고리」, 「암야」, 「E선생」을 다룬다. 주동인물을 남성 지식인으로 설정한 서사의 경우, 염상섭은 앞서 평론에서 부각되었던 문화주의의 이분법을 서사에도 적용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개인이 지키고자 하는 내면의 가치는 물질로 환원될 수 없는 정신적 자유로 표상되는 반면, 외부 사회는 물질주의가 만연한 공간으로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이러한 대립구도 속에서, 남성 지식인 인물은 외부로부터 단절된 개인 간의 배타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지향을 보인다.

1921년 『개벽』지에 첫 소설 「표본실의 청개고리」(이하 「표본실」)<sup>96)</sup>를 발표한 이래, 염상섭은 지식인 남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일련의 단편들을 창작한다. 이 서사들의 공통점은 서술의 초점이 주동인물 한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영문 알파벳으로 처리되어 개별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그 특징은 오직 주인공의 관

96) 염상섭, 「標本室의 靑개고리」, 『개벽』 14-16호, 1921.8-10.

찰을 통해서만 전달된다. 서술의 주된 목적은 한 인물의 내면을 충실히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다. 「표본실」은 1인칭 서술자인 ‘내’가 광인 김창억을 만난 후 겪게 되는 심경의 변화를 핵심 플롯으로 삼고 있으며, 뒤이어 발표된 「암야」는 초점화자 ‘그’의 심리를 묘사하는 동시에 철저히 ‘그’의 시각을 통해 관찰된 외부 현실을 전달한다. 「E선생」 역시 주인공 E선생이 서사 내에서 심리적 깊이를 보이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같은 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작품이다.

세 작품에서 반복되는 모티프는 ‘물질주의가 만연한 외부 현실’과 ‘정신적 자유를 희구하는 개인’ 간의 대립구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염상섭이 소설을 발표하였을 때, 당대의 문인들이 포착한 ‘고뇌’에 주목해야 한다. 지식인의 내면을 다루는 염상섭 초기의 작품에 대해서, 김동인과 박종화는 고뇌와 비애의 묘사에서 새로움을 발견한다. 김동인은 특유의 과장된 어조로 염상섭의 작품은 조선사람이 일찍이 느끼지 못한 “침울과 번민”을 묘사했다고 하면서 이를 “햄릿식 다민다한”<sup>97)</sup>이라고 명명한다. 박종화 또한 염상섭의 초기작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분위기가 “북구의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한다”<sup>98)</sup>고 평가한다. 카프 문인의 입장에서 염상섭 문학의 “불철저한 철학적 결함”을 지적하는 김기진조차 이같은 지식인의 내면이 “당시의 청년의 사상 경향과 사회적 분위기”를 대표한다고 회고한 바 있다.<sup>99)</sup> 그렇다면 염상섭 특유의 번민하는 지식인의 내면이 하나의 새로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진 원인은 무엇일까?

염상섭의 초기 단편에서 두드러지는 고뇌의 내면묘사를 최초로 ‘고백체’라고 명명한 연구자는 김윤식이다. 여기서 고백체는 내면이 있기 이전에 내면을 재현할 필요성을 만들어낸 제도적 장치로 설명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는 염상섭이 일본 유학을 통해 근대성을 “내적 동기나 필연성” 없이 받아들였다는 비판이 깔려 있다.<sup>100)</sup> 그러나 개인의 내면은 이미 1910년대에 고백체 서사라는 한 장르를 형성할 정도로 꾸준히 서사화되었다

97) 김동인, 「朝鮮近代小説考 7」(『조선일보』, 1929.8.6.), 『김동인전집16』, 조선일보사, 1988, 25면.

98) 월탄, 「大戦以後の 朝鮮文藝運動 四」, 『동아일보』, 1929.1.4.

99) 팔봉학인, 「十年間文藝變遷過程」, 『조선일보』, 1929.1.9.

100) 김윤식, 앞의 책, 74-77면.

는 점을 고려한다면,<sup>101)</sup> 이 시기의 소설을 모두 일본의 ‘고백체’의 모방으로 환원하는 것은 세대와 작가 간의 차이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 염상섭이 보여준 새로움 또한 단순히 개인의 내면을 서술하였거나 일본의 형식을 그대로 적용하였다는 사실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염상섭이 보여주는 새로움은 고뇌를 통해 지식인이 외부 사회와 과감히 단절하여 개인의 독립된 영역을 상상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 차이는 1910년대식의 고뇌와 비교할 때 뚜렷해질 수 있다.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지식인 청년의 고뇌는 1910년대부터 소설의 주된 소재가 되어 왔다. 최초의 1인칭 소설인 현상윤의 「뽕박」에서 이광수의 「어린 벗에게」에 이르기까지 이들 서사의 핵심은 억압받는 개인의 내면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1910년대적 답변은 고립된 개인을 민족과 인류의 일원으로 파악함으로써 사적인 감정인 고뇌를 해소하는 것이었다.<sup>102)</sup> 대표적인 사례로 1910년대에 창작된 현상윤과 양건식의 단편을 들 수 있다. 방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던 주인공은 거리로 나가 사회의 모순을 목격하면서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자각한다.<sup>103)</sup> 이처럼 1910년대적 주체는 사적인 고뇌를 공적 차원으로 승화시킴으로써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1910년대의 소설에서 개인의 고뇌가 언제든 집단의 대의와 합일될 수 있었다면, 염상섭 소설에서 고뇌는 개인의 신념과 외부 사회의 가치가 불일치하는 것에서 발생한다. ‘내’가 “해부된 개고리가 사지에 핀을 박고 칠성관 우에 잣바진 형상”을 떠올리는 첫 장면에서 이 서사가 내면의 부자유의 문제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치 표본실의 청개고리처럼 방에 갇혀 “한업시 늘어진 생의 권태”와 자살 충동을 느끼던 ‘나’는 이와 대비되는 자유의 이미지인 “긋센 숨을 헐떡헐떡 쉬이는 「푸

101) 우정권, 『한국 근대 고백소설의 형성과 서사양식』, 소명출판, 2004.

102) 권보드래, 「진화론의 갱생, 인류의 탄생-1910년대의 인식론적 전환과 3.1운동」, 『대동문화연구』 66집, 2009. ; 손유경, 「1910년대 이광수 소설의 개인과 인류」, 『프로문학의 감성 구조』, 소명출판, 2012, 323-349면.

103) 임병권, 「고백을 통해 본 내면성의 정착과 주체의 형성-현상윤과 양건식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137-154면.

-르, 스피드」의 기차”를 떠올리며 영원히 달리고 싶다는 욕망을 표출한다. 결국 원인을 알 수 없는 번민을 해소하기 위해 ‘나’는 친구 H의 권유에 따라 평양과 남포로 여행을 떠난다.

외부의 억압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나’의 욕망은 ‘광인’과의 동일시로 표출된다. 평양에 내려 대동강을 찾은 ‘나’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장발객이다. ‘나’는 장발객으로부터 “너이들의 존재는 나의 의식에 오르지도 안는다는 교만심”을 읽고, “저런 생활에 진정한 행복이 잇서”라고 생각한다. 사회와 절연한 광인과 같이 ‘나’ 또한 자신을 종속하는 사회에 적극적인 단절로 대응하고자 한다. ‘나’는 “사람이 보기 실향서” 대동강으로 도망치며, 여자의 흰 손에 목이 졸리는 꿈을 꾸면서 죽음을 상상한다. 이처럼 ‘광인’의 이미지는 사회와 단절됨으로써 성립하는 개인의 자유를 은유하고 있다.

광인이 상징하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가 대립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남포에서 광인 김창역을 만나면서 더욱 뚜렷해진다. 평양의 장발객을 부러워한 ‘나’와 마찬가지로 친구들 역시 남포의 광인 김창역을 언급하며 “인생의 최고 행복을 독점하였다”고 평가한다. 이들이 광인에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것은 현 사회에서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은 광인이나 다른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나’는 “광(狂)이냐? 신념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신념을 지키는 인간은 “피로, 권태, 실망”에 지쳐 “광인으로 일생을 마칠 숙명”에 처하게 된다고 자조한다. 이러한 신념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절망이 3.1운동 직후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김창역의 설교에서 드러난다.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되었듯이, 김창역의 이상은 “세계평화론이나, 인류애”로 대표되는 3.1운동 직후의 문화주의를 닮아 있다.<sup>104)</sup>

「아싸 말스한 것 가티, 聖經에 가르치신 바, 불의 審判이 곳

104) 권보드래는 김창역과 3.1운동의 관련을 밝힌 기존 연구의 성과에서 더 나아가, 김창역의 모델이 되었음직한 3.1운동 참가자의 이력을 추적하고, 김창역의 객설에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코스모폴리타니즘적 사상과 민간 설화 등 이질적인 사상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권보드래, 「3.1운동과 개조의 후예들」, 『민족문학사연구』 58집, 2015, 241-246면.

나지 안합니까. 歐洲大戰의 그 慘酷한 砲煙彈雨가 卽 불의 審判이외다 그러. 그러나 이번 戰爭이 왜 일어났나요... 이 世上은 物質萬能, 金錢萬能의 時代라, 仁義禮智도 업고 五倫도 업고, 愛도 업는 것은, 이 物質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慾에 더럽혀진 까닭이 아닙니까...(중략) 父子兄弟가 서로 反目嫉視하고, 夫婦가 不和하며, 이웃과 이웃이, 한 마을과 마을이,... 그리하여 한나라와 나라가, 서로 다투는 것은, 結局 物慾에 사람의 마음이 가리웠기 때문이 아니오니까. 그리하여, 弱肉強食의 大原則에 딸아, 世界萬國이, 干戈로서 서로 對하게 된 것이 卽 歐洲大戰亂이외다 그러. 그러나 인제는 불의 審判도 다-끝났다. 東西가 親睦할 時代가 돌아왔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信從합니다.»<sup>105)</sup>

“약육강식의 대원칙”에 따른 물질주의를 거부하고 동서 친목의 이상을 주장하는 김창익의 설교는 앞서 평론을 통해 살펴봤듯이 현상윤의 실력 양성론을 비판하며 문화주의의 가치를 주장하였던 염상섭의 신념과 일치한다. 그러나 그 이상은 사회로부터 “홍소, 횡담, 조롱”을 받는 광인의 설교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비애감을 느낀다. 만일 주어진 가치를 거부하고 신념을 고수하려면 ‘나’ 역시 사회적 고립과 죽음을 각오해야하는 것이다. ‘내’가 김창익을 “자유의 민(民)”, “우리의 욕구를 홀로 구현한 승리자” 같다고 하며, “나는 암만하야도 남의 일가티 생각할 수 업습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6~8장에 걸쳐 삽입된 김창익의 서사도 내면의 신념을 지킬 자유는 사회와의 단절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다. 전지적 서술자는 평범한 교사였던 김창익이 3.1운동으로 암시되는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아내마저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과정을 서술한다. 김창익이 “인간계와 모든 연락을 끈코” “신비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서술에서, 그가 이상을 지키기 위해 사회와의 단절을 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5) 염상섭, 「標本室의 靑개고리」, 『개벽』 15호, 1921.9, 145-146면.



김창억을 만난 후 ‘나’와 친구들의 대응 또한 김창억의 것과 상응한다. 이들은 현실에는 없는 “영원”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진다. 친구 A는 가정을 떠나 “오늘 부친께 선언을 하고, 영원히 나섰다”고 암시되며, ‘나’는 속세와 단절된 “백설이 애애한 북국 어떠한 한촌”으로 떠난다. 3.1운동의 좌절을 겪은 젊은 세대가 신념을 지킬 방안은 세속적 세계로부터 단절되는 길 뿐이었던 것이다.

물질과 정신의 대립은 두 번째로 발표된 「암야」<sup>106)</sup>에서는 ‘생활’과 ‘예술’의 대립으로 구체화된다. 「표본실」의 서두에서 방에 갇혀 번민하는 ‘나’의 모습이 제시되었듯이, 「암야」는 작가인 ‘그’가 방안에서 쓰여지지 않는 원고에 번민하며 예술과 연애의 가치를 질문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철창안의 검은 곰(黑熊)”처럼 부자유한 그의 내면은 “욕구 조차 업는 자, 충동의 효모가 고사된 자— 애(愛)의 존영을 소실한 자”로 묘사된다. ‘고사’, ‘소실’과 같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문제는 내면의 열정이 억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욕구 자체의 방향성과 의미를 잃은 결핍상태에 있다. 이는 연애 상대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열렬한 애정을 토로하는 이광수 소설의 인물과 대조적이다. 이같은 차이를 김기진은 염상섭의 소설에는 이광수식의 “공상적 정열이 업서지고 쌀쌀하고 날카로운 응시의 눈이 잇섯다”<sup>107)</sup>고 지적한 바 있다.

주인공의 욕구가 결핍된 원인은 ‘그’가 관습적으로 추구하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연애와 예술로 대표되는 가치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방안에서 이어가는 그의 내적 독백에서 나타난다. ‘그’는 “무엇을 위한 탐구인가? 탐구함이 유의의(有意義)하다 함과 가티, 탐구치 안음도 역시 유의의하다고는 못할가. 또 탐구치 안음이 무의의함과 가티 탐구함이 또한 무의의하다고는 못할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가 검토하는 첫 번째 대상은 글쓰기로 대표되는 예술이다. 그가 예술가의 본령을 “진리의 탐구자”로 상정하는 순간, 현실에서 그가 쓰는 문장은 “넘우 천박하고도 과장한 구조”로 인식된다. 이처럼 예술의 기준을 ‘진리’와 ‘생명’과도 같은 초월적인 가치로 설정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106) 염상섭, 「闇夜」, 『개벽』 19호, 1922.1.

107) 팔봉학인, 앞의 글.

‘그’는 끊임없이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는 두 번째 탐구 대상인 연애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이유 엮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나, 자연스러운 열정이 아닌 약혼이라는 사회적 규범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에게 번민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약혼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정신적 매춘부와 가튼 정열의 방사”에 불과함을 고백한다. 즉, 연애가 “의식적”이 되는 순간, 그 사랑은 “최고 도덕의 죄악”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예술과 연애의 이상이 ‘그’가 지향하는 자유의 모습이라면, 서사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것은 즉물적인 욕망만이 자리하는 ‘생활’의 영역이다. 이 같은 대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사의 구조가 내부와 외부의 대립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진정한 가치의 탐색이 내부의 공간인 방에서 이루어졌다면, 외부의 공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방안에 한정되었던 인물의 시선이 창밖을 향하면서부터이다. 쓰여지지 않는 원고를 두고 창밖을 보는 ‘그’의 시야에 ‘연날리는 절뚝발이 아이’가 들어온다. 서사 전체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절뚝발이 아이’의 이미지는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즉물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들을 상징하는 은유이다. ‘그’는 정신적 사랑이 아니라 오직 욕구의 표출에 불과한 연애를 절뚝발이 아이의 연애 자신과 약혼자의 관계를 연날리기에 각각 비유한다. 그들은 사회가 강요한 약혼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서로를 목적으로 삼는 진정한 연애 대신 “정신적 매춘부와 가튼 정열의 방사”를 반복할 뿐이다. 이같은 상황을 ‘그’는 자신에게 “절뚝바리 소년의 연 이외에는 아모 것도 업다”고 표현하며, 세속적인 기반에서 왜곡된 가치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은유한다.

절뚝발이 아이의 비유는 또 다른 외부의 공간인 거리로 이어진다. 거리의 풍경은 오직 초점화자 ‘그’의 시선으로만 전달되면서,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생활의 영역을 형상화한다. 군중들은 내면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생활이란 낙인이, 교활과 탐람이라는 이름으로, 찍힌 얼굴들”로 동질화되며, 거리는 “무덤”과도 같은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후의 서사는 ‘그’가 이같은 외부 현실을 관찰하면서 내면의 가치와 사회의 주류적 가

치가 불일치한다는 점을 깨닫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때 ‘연날리는 절뚝발이 아이’의 비유는 인물이 관찰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비유를 통해, 거리의 사람들은 물질만을 탐하는 하나의 계열체로 묶이게 된다.

「秋色이 方闌이라, 마음이 싱숭생숭 하는데 그런 滋味라도 잊어야지....結局 사람은 自己가 自身을 속여야만 살 수 있는 동물이야!」 彼は 절뚝발이 兒孩를 생각하고, 「D君의 연은 妓生弟子로군」 하며, 속으로 憫笑하였다.<sup>108)</sup>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에 대한 ‘그’의 대응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서 적극적으로 단절되려는 노력이다. 「표본실」의 ‘내’가 구성원 간의 배타적인 소통으로 사회와 단절되고자 하였듯이, 「암야」의 ‘그’ 역시 “속중과는 동화치 안는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

두 단편의 주동인물이 형성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습도 사회와 단절을 통해 자유를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결합된 배타적인 집단이다. 우선, 「표본실」은 그 대안이 사회로부터 비애를 자각하는 이들 간의 배타적인 소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뿐이라는 점을 환기한다. 외부와 단절되고자 하는 ‘나’의 내면이 유일하게 타인과 소통하는 매체는 친구들 간에 주고받는 편지이다. 편지는 주어진 사회의 소통 형식을 이용하지 않고, 동질적인 내면을 가진 이에게만 전달되는 배타성을 지닌 소통매체이다. 「표본실」에서 편지는 외부 사회에 환멸을 느끼는 ‘나’와 다른 인물들의 심리를 연결하는 매개로 기능하고 있다. 남포에서 광인 김창역을 만난 후, 평양행 기차를 탄 ‘나’는 서울의 친구 P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직접인용으로 제시된다.

「무엇이라고 썼스면, 只今 나의 이 心情을, 가장 闡明히, 兄에게 傳할 수 잇슬가! 큰 驚異가 잇슨 뒤에는, 큰 恐怖와 큰

108) 염상섭, 「闇夜」, 『개벽』 19호, 1922.1, 61면.

沈痛과 큰 哀愁가 잇다할 地境이면, 只今 나의 調子を 일흔 心臟의 間歇的 鼓動은, 반듯이 그것이 아니면 아닐 것이요.- 人生의 眞實된 一面을 추켜들고, 거침업시 肉迫하야울 때, 全靈을 위여싸는 것은, 驚愕의 戰慄이요. 그리고 限업는 苦悶이요. 샘솟는 憐悶의 눈물이요. 가슴이 저린 哀愁요....그 다음에 남는 것은 미치게 깃븐 痛快요....」 109)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나’의 편지는 김창역을 만난 후의 심경을 편지의 수신자인 P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쓰여졌다. 그런데 전체 서사는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므로 ‘나’의 심리는 편지의 형식을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렇다면, 편지는 ‘나’의 내면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와 다른 등장인물의 심리 간 접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용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듯, 편지의 내용이 제시된 후 ‘나’는 편지의 수신인이 아닌 친구 Y에게 편지를 읽게 한다. 이 행위를 통해, 수신인이 한 사람이었던 편지는 여러 수신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가 된다.

편지는 서사의 후반부에도 다시 등장한다. 6~8장에 걸쳐 전지적 시점으로 김창역의 내력이 제시된 후, 다시 1인칭 시점의 서술로 돌아와 ‘나’와 친구들의 심리가 제시된다. 여기서 ‘나’ 이외의 인물들의 심리를 전달하는 것은 편지이다. 김창역을 만난 지 2개월 후, ‘나’는 “백설이 애애한 북국 어떠한 한촌 진흙방 속에서” 속에서 Y의 편지를 받는다. Y는 편지를 통해 김창역이 스스로 궁전이라 지칭한 오두막집을 불태우고 사라졌다는 사실과 이를 통해 “반숙반온(半熟半溫)의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자신의 심리를 전한다. Y의 반응은 편지를 읽는 ‘나’의 내면으로 전이된다. ‘나’는 Y의 편지가 “재빛의 납덩어리를 내 가슴에, 던져 주었슬 다름이었다”이라고 하며, Y가 느낀 비애에 동화된다. 이처럼 편지를 통해 서두에서 1인칭으로 제시된 ‘나’의 심리는 친구 P, Y 등 “우리”로 지칭되는 이들의 동질적인 심리로 확장된다. 이처럼 「표본실」은 김창역에 대한 공

109) 염상섭, 「標本室의 靑개고리」, 『개벽』 16호, 1921, 10, 108면.

통된 반응을 매개로 신념을 지키려는 이들 간의 소공동체를 이루려는 지향을 보인다.

염상섭은 위와 같은 소공동체의 이념을 현실에서 『폐허』 동인 활동으로 추구하고 있었다. 1921년 『폐허』가 와해될 무렵, 염상섭은 『폐허』의 이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元來同人組織은그大體의思想傾向이 類似한者가 一種의 文藝運動을이르킴으로써 出現의理由가잇고, 氣分の統一 意氣의 渾融投合으로써 存續의可能性을 覓出하는 바이다. 하고보면 或時에 離合散衆가잇슴은 彼此의個性을尊重하고 共同目的을爲함에 不得已한바이안인가. 萬一 우리가 利害와 義理友情으로써結束된 世俗的, 商業的, 實務的 或은俠客輩間에通用되는 一種의 道德的意味로團結됨이얏더면 寒心타해도 容或無怪로되 우리는 우리의 事業의性質上 精神的共鳴과 氣分の默合을 가장 重要視안을수업다.<sup>110)</sup>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폐허』의 이념은 두 가지이다. 첫째, 물질보다 정신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문화주의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세속적, 상업적, 실무적”인 것을 배격하고 “정신적공명”이라는 이념적 가치를 우선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유사한 사상과 공동 목적을 지녔더라도 개별 동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동인 조직 자체가 “피차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폐허』가 와해되었을 때조차 염상섭은 이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폐허』의 운영이 주간, 주필과 같은 위계조직 없이 순전히 자율적인 동인들의 활동으로 존속된 것도 이같은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표본실」은 외부 사회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동시에 그 자유를 보존할 수 있는 배타적인 소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즉, 「표본실」의 초점은 오직 자유를 추구할 능력을 갖춘 지식

110) 상섭, 「樗樹下에서」, 『폐허』 2호, 1921.1.

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같은 방식은 자신과 동질적인 집단 안에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수의 선각자가 미숙한 타자를 이끄는 1910년대식 계몽 지식인의 모습과 구분된다. 오히려, 이 시기 염상섭의 단편에서 형상화되는 공동체의 형태는 염상섭이 유학 시절 독서 체험을 통해 수용하였던 일본 시라카바 파의 그것에 가깝다.<sup>111)</sup>

「암야」에서는 독서 행위와 연애가 개인 간의 배타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설정된다. 소설의 결말에서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리시마 다케오의 『출생의 고뇌(生れ出づる惱み)』<sup>112)</sup>를 읽고 “까닭 없는 눈물”을 흘린다. 이 장면에서 소설의 어떤 대목에서 ‘그’가 눈물을 흘렸는지 어떤 내적 전환을 이루었는지는 제시되지 않으며, 다만 ‘그’가 독서를 통해 순간적인 내면의 각성을 이룬 것으로 묘사될 뿐이다. 따라서 ‘그’의 독서 행위가 지닌 의미는 상호텍스트인 『출생의 고뇌』를 통해 추측할 수밖에 없다. 『출생의 고뇌』는 소설가인 ‘내’가 예술가를 꿈꾸는 2인칭 ‘자네’에게 말을 거는 서간체 형식이다. ‘나’와 ‘자네’의 공통점은 인간의 물질적 측면인 ‘생활’의 관성을 이겨내고 ‘예술’을 추구하려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물론 ‘자네’는 ‘나’와 달리 노동계급으로 살아가지만 두 인물은 예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세속적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들과 구분된다. 이같은 소설의 주제는 「암야」에서 독서를 하기 전 ‘그’의 내적 독백에서 드러나는 ‘물질생활’과 ‘예술’의 대립과 일치한다.

「...藝術이니 무엇이니 하여도, 結局은 物質生活의 奴隸뵈게 되고만다. 所謂 「苦惱」 라는 것도 結局 관이 不足하여서 나오는 것이 안인가. 깊은데 根底를 둔 内部에서 타는 人間苦라

111) 이같은 염상섭의 초기 입장은 일본의 관념론을 대표하는 시라카바 파의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쓰루미 슌스케는 “[시라카바 파의] 관념론의 강점은 결국 자기 자신(혹은 자기와 동질적인 집단)에 대한 설득 면에서 발휘되는 것이어서, 자기와 다른 계급적 이해 관계를 가진 이들을 설득하는 국면에서는 강한 힘이 될 수 없다”고 분석한다. 이와 유사하게 염상섭의 초기 사상도 자아실현의 목표를 가진 지식인 구성원들에 국한되어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다.

九野收·鶴見俊輔, 심원섭 역, 『일본 근대 사상사』, 문학과지성사, 1994, 21면.

112) 有島武郎, 「다시 태어나는 고통」, 유은경 역, 『돌에 짓눌린 잡초』, 소화, 2006.

는 것은 藥에 쓰라도 업다...彼等이 괴로워 괴로워하며, 個性의 自由롭은 發顯이 無理하게 抑壓되는 것을 恨歎하며, 人生問題니, 厭世主義니 떠드는 것은, 판이 不足하다는 哀訴에 美裝한 粧具에 不過한 것이다. 주면이가 묵직하면, 書齋에서 뛰여 나오는 似而非의 藝術家가 안인가. ..D君의 그 沈鬱한 悲痛한 陰影도 株券만 暴騰하면 夏日의 朝露다...홍 生死의 問題다! 뒤주 밧이 클키니까, 生死의 問題가 안인 것은 안이지만, 우리가 한번이라도 一生涯의 事業을 爲하여, 自己의 藝術의 宮殿을 爲하여, 人生의 아름답고 純潔한 情緒를 發露하는 戀愛를 爲하여, 悶悶한 心靈의 深刻하고 永遠한 苦惱를 爲하여, 生死의 問題다! 라고 부르즈즌 일이 잇섯나?...모든 것이 연이다. 질뚝 밧이 兒孩의 연에서 넘치지 안는다...自己 欺瞞, 自己 愚弄... 以外에 무엇이 잇섯는가?!

「그러나 取할 點은 한아 있다. 속되지 안타는 것! 俗衆과는 同化치 안는다는 것! 이것 뿐이다...」 113)

위 인용문에서 ‘예술’과 ‘물질생활’은 대립항을 이루고 있다. 『출생의 고뇌』에서 결국 ‘생활’과 ‘예술’의 세계를 분리하고 예술을 추구하는 인물 간의 소통이 형상화되었듯이, 「암야」의 ‘그’ 역시 “속중과는 동화치 않”고 “예술의 궁전”을 지키고자 한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어지는 독서행위 또한 『출생의 고뇌』에서 뚜렷하게 제시된 예술의 세계에 자신도 편입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을 보여준다.

다만, 『출생의 고뇌』에서는 제시되지 않으나 「암야」에서 등장하는 주제는 “인생의 아름답고 순결한 정서를 발로하는 연애”이다. 『출생의 고뇌』에서 ‘나’와 ‘자네’ 간의 편지가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배타적인 소통의 매개였다면, ‘그’는 개인과 개인 간의 배타적인 결합인 연애를 통해 ‘생활’로 환원되지 않는 정신적 가치를 찾으려 한다. 실제로 독서를 마친 후 ‘그’는 자신을 보는 사진 속 약혼자 N의 일방향적 시선에서 “전 생애

113) 염상섭, 「闇夜」, 『개벽』 19호, 1922.1, 62면.

를, 전 운명을 ‘나’에게 걸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처럼 염상섭은 「표본실」과 「암야」의 결말을 통해, 사회의 세속적인 가치를 거부하는 개인 간의 결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한편, 염상섭의 오산학교 시절 교원 체험이 반영된 단편소설 「E선생」<sup>114)</sup>은 ‘개인 간의 배타적인 소통’이라는 염상섭의 이상이 식민지의 현실과 충돌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앞서 「표본실」과 「암야」에서 소통이 가능한 등장인물의 특징은 예술가를 지향하는 지식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E선생」이 묘사하는 현실은 대다수의 구성원이 정신적 가치를 저버리고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이 단편은 염상섭 스스로가 추구한 해결책인 배타적인 지식인 공동체가 식민지 사회 대다수의 구성원들에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노출한다.

우선, 앞선 두 단편과 마찬가지로, 「E선생」에서도 물질과 정신의 대립구도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지식인이자 교원인 E선생은 일본 유학 시절 키웠던 이상을 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하였지만 좌절을 겪었다는 점에서 「표본실」, 「암야」의 주인공과 공통점을 보인다. X학교에 부임하기 전, E선생은 일본에서 사학과 사회학을 배운 후 자신의 이상을 사회에서 실현하고자 귀국한다. 그러나 3.1운동 직후의 조선 사회는 E선생에게 좌절만을 안겨줄 뿐이다. E선생은 “동경에서 졸업한 후에 급기야 조선 사회에 발을 들여놓고 보니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이상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은 E선생과 달리, 사회는 세속적인 욕망만이 추구되는 공간인 것이다. 이처럼 「표본실」과 「암야」에서 드러났던 개인과 사회의 대립구도는 「E선생」의 세계에서도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E선생」에서 주된 서사의 초점은 외부 사회에 맞서 이상을 지키려는 지식인의 내면 풍경이 아니라, 배타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시도가 거듭해서 좌절하는 상황에 있다. 이는 서술 방식의 변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표본실」과 「암야」는 서술의 시점을

---

114) 상섭, 「E선생」, 『동명』, 1922.9.17.-12.10. 이하 작품의 인용은 해당 본문 뒤에 연재 횟수만 표기한다.



한 개인에 한정하여 개인의 내면과 그의 눈에 비친 사회의 모습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E선생」은 E선생을 주동인물로 삼고 있음에도, 전지적 서술자는 E선생 개인의 내면을 묘사하는 것보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E선생과 교사 및 학생들의 갈등 상황을 주로 서술한다. 즉, 서사의 목적은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관념을 가진 개인들이 충돌하는 양상을 제시함에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서사를 “작가의 내면풍경을 알아보는 자료”로 간주하고 E선생을 통해 작가 염상섭의 사상을 복원하려는 시도<sup>115)</sup>는 각축하는 입장 간의 갈등을 부각하려는 서사의 의도를 한 인물의 내면묘사로만 축소시키는 일면적인 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E선생과 교사 및 학생들의 갈등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E선생」은 정신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주동인물 E선생과 가치의 기준을 물질적 이익에만 두는 다른 교원 및 학생들의 대조를 보여준다. 염상섭이 잠시 부임한 오산학교를 모델로 한<sup>116)</sup> X학교는 당시 조선의 지식 체계가 지닌 복잡성과 혼종성을 대표하는 공간이다. 미국 출신 교인인 교감에서 동경 고등사범을 나온 지리선생, 무관학교 퇴물이자 미국인 교장의 서기였던 체조 교사, 과거 문인의 풍모가 남은 박물선생, 한문선생 등 교원들은 미국, 일본, 조선 전통의 세 계열의 지식이 복잡하게 공존하는 당대의 지식장을 대변한다.<sup>117)</sup> 그러나 지적 배경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E선생을 학교에서 축출하려는 교원들이 취하는 행동은 지극히 동질적이다. 이들은 물질적 이익과 학교 내의 지위를 얻으려는 욕망만을 보이는 인물들이다. 외양이 “대모테 안경의 주인인 최신식 신사”일지라도 이들이 지닌 관념과 욕망은 E선생에 비해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이다.

반면, E선생은 수수한 차림새와 ‘고슴도치’를 닮은 외양에서 알 수 있듯이, 즉물적인 욕망에는 관심이 없는 인물이다. 정신적 이상을 추구하려는 E선생에게 사회는 “5백 원이라는 잔단 돈 몇 푼을 갈가먹고 십허서 문

---

115) 김윤식, 앞의 책, 163면.

116) 위의 책.

117) 장문석, 「전통 지식과 사회주의의 접변」, 한기형·이혜령 편저, 『저수하의 시간, 염상섭을 읽다』, 소명출판, 2014, 328면.

화운동이니 주의 선전이니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결국 E선생은 “저주 받은 사회! 거세된 영혼! 이런 사회에는 참 살고 십지 안타!”고 외치며, “순실한, 사람답은 사람이 모인 단체, 책상머리에 잇슬 때의 양심이 흐려 지지 안흔 청년의 쓰름”을 찾아 학교로 온다. 그러나 학교 또한 사회와 다름없이 교사들과 학생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이라는 아이러니는 당대 사회에서 느낀 염상섭의 절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관념의 차이로 이어진다. 즉물적인 욕망을 따르는 교사들과 학생들은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자유로 여긴다. 이들의 목적은 학교 내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여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욕망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이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제도뿐만 아니라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는 1910년대 이광수의 단편소설에서 이상적인 사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로 묘사되던 것과 대조적이다.<sup>118)</sup> 「E선생」의 세계에서 사제 관계는 이익을 위해 서로를 수단화하는 교환 관계로 변질되어 있다.

體操先生이 이學校에서하는일은, 學生의秘密을 事務室에報하는것보다, 事務室秘密을生徒에게綻露시키는것이였다. 그것은 입이갑여워서 그러한것마는아니였다. 生徒들의歡心を 사라면, 그 以上의手段이 업기때문이었다. 그중에도 全校內에 第一말성구력이요, 勢力의 中心인 各팀의 運動選手들과 結託한다는것은, 自己의地盤을 鞏固히하고 勢力範圍를 擴張함에 唯一한手段인것을, 그는 充分히 打算할만치 伶俐하였다. (중략) 그러나 生徒들도 아모報酬업시 無條件으로 이 體操先生을 供饋하는것은 勿論아니다. 第一에는 事務室의 秘密을아는것, 成績의保障을얻는것이요. 第二에는 吸煙을하든지 其他秘密한行動에對하여 寬大한特典을얻겠다는것이다. (1의 3회)

118) 이광수, 「金鏡」, 『청춘』 6호, 1915.3.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체조 선생과 학생들은 서로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고 있다. 체조 선생은 “自己의地盤을 鞏固히하고 勢力範圍를 擴張”하기 위해 교사들의 비밀을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이는 서사 전체에서 학생들을 선동하여 E선생을 내쫓기 위한 교사들의 주된 수단이 된다. 한편, 학생들 또한 “成績의保障”이나 “寬大한特典”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체조 선생을 이용한다. 이처럼 교사와 학생들은 자신의 이익 이외의 것을 수단화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자유의 범위를 넓혀간다.

이들에게 E선생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간섭”으로 간주된다. 이는 E선생에 대한 모함이 절정에 다다른 장면에서 체조선생이 E선생을 “간섭을 하거나, 장애할 사람”으로 지칭한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자유를 간섭의 부재로만 파악한다면, E선생의 가치 추구하고 교사들의 이익 추구는 구분되지 않는다. 자유를 양적인 기회의 확대로 파악하면서, 질적인 차이는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원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가 즉물적인 욕망과 결합할 때, 자유의 질적 구분은 무화된다.

이와 반대로, E선생은 자유의 개념을 교사들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아무런 간섭없이 원하는 바를 추구할 자유를 추구하는 교사들과 달리, E선생의 자유는 욕망을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성찰하는 반성 작용을 전제로 한다. 이는 자유로운 감정에 대한 E선생의 사유에서 드러난다. E선생은 학생들로부터 ‘고슴도치’라는 놀림을 받은 후, 학생들을 꾸짖는 대신 웃음을 터뜨리며 어린아이와 같은 꾸밈없는 반응을 보인다. E선생은 “격하기 쉬운 성질”이지만 “사실 노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학생들을 꾸짖을 때조차 “진심으로 노하여서 그러거나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E선생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이익이 침해되면 악의를 그대로 표출하는 교사들과 달리, ‘진심’이라는 일관된 감정의 층위를 두고 있다. 이 점은 뒤이어 제시되는 E선생의 감정론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그러나 아모 恩怨이 업는 사람에게는 아모리 심사 틀리는 일이 잇  
셔도 마음으로라도 決코미워 하거나 꾸짖는 일은 업섯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感情처럼卑劣한것은없다. 더구나 怒한다는것은 一生에 그리 만흔한일은아니다. 丈夫의 一嘔一笑가 그러케 歇한것이아니다. 될수잇스면 一生에怒하야보지 안코 죽는것에 더조흔일은업지만 怒한다면 한번 禍한번맞게 업는것이다.」

-이것이, 「喜怒哀樂을 不形於色」이라는것은 사람에게 산 屍體가되라는것이다. 우리는 爲先 感情을解放하야야 한다」는 E先生의主張의結論이었다. 何如間이와가티 E先生은 體操 教師나 生徒監의 玳瑁테를 못맛당하게는생각하야도 이제것 그들에게 怒음을품거나 미워하야본일은업섯다. (1의 3회)

위 인용문에서 “感情을解放하야야 한다”는 E선생의 명령은 내면에서 촉발된 모든 감정을 가감없이 표출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해방’에 E선생은 엄격한 가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가령, E선생은 타인에 대한 미움을 “卑劣한” 감정이라고 규정하며, 자신을 음해하는 교사들을 “마음으로라도 決코미워하거나 꾸짖”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 판단하여 노할 만한 일에는 “꼭한번” 노하여도 좋다고 허용한다. 일견 감정의 해방보다 절제에 가까워 보이는 이같은 준칙은 E선생이 주장하는 자유와 해방의 의미가 내부에서 촉발된 모든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세운 목적에 따라 감정의 경중을 판단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이해관계에 따라 타인을 미워하는 교사와 학생들과 반대로, E선생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관계에 종속시키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것이다.

물질적 이해관계에 종속된 교원 및 학생들과 정신적 가치를 목적으로 삼는 E선생의 대립은 결국 E선생의 패배로 끝난다. 그 원인을 E선생은 개인이 자율성을 함양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대신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조선의 잘못된 교육에서 찾는다.

오늘날의教育은 「사람」을맨드는게아니라, 機械나, 그러치안

흐면 機械에 게使役할奴隸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學問이라는 것은 一種의懲役가 되었다. 自律自發이라는精神은 完全히 無視되었을뿐 아니라 다만어떠한 目的을爲하여 利用할器具를 만들라고 一定한規範으로써 短促한時間에 過量의注射을 急激히 注入하기때문에 學問의尊貴와 權威도엎서지고 人間性은甚한 虐待에 畸形으로發達되었다. 오늘날의教育은 試驗을爲하여 存在하였다고 하드라도過言이아니다. (5의 3회)

문화주의에 의거하면, 모든 개인은 그 자체로 목적인 인격을 지니므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선의 교육은 인간성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目的을爲하여 利用할器具”로 취급할 뿐이다. 이같은 교육을 받은 조선의 구성원들은 결국 정신적 가치를 망각하고 물질적 욕망만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 E선생이 X학교를 통해 관찰한 현실이다.

궁극적으로 E선생이 X학교에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실패하는 결말은 지식인이 외부 사회로부터 단절하여 “예술의 궁전”을 지키려는 해결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는 「E선생」의 결말은 「표본실」과 「암야」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앞서 「표본실」과 「암야」에서 주동인물은 외부 사회의 “속중”과 동화되지 않고 지식인들의 배타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E선생」에 이르러 주동인물인 E선생은 “昌熙의일이라든지, 學校의 이 紛擾라든지結局 그罪가 누구에게 잇슬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결국 「E선생」을 통해, 염상섭은 배타적인 집단인 지식인의 내적 자유를 지키는 것에서, 개인의 정신적 가치 대신 물질적 욕망의 무제한적 추구로 나아가는 대다수 구성원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 3.2. 신여성의 실패를 통한 물질적 욕망의 비판

2절에서는 염상섭이 신여성의 서사를 통해, 정신적 가치를 물질적 교환 관계로 환원하는 구성원들을 비판하고자 했음을 밝힐 것이다. 앞서 염상섭이 남성 지식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첫 번째 계열의 서사를 통해 물질로 환원할 수 없는 정신적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였다면, 신여성을 주동인물로 하는 두 번째 계열의 서사는 정신적 가치의 추구가 물질적 교환 관계로 변질될 때 개인의 자율성은 존립할 수 없다는 점을 폭로한다. 신여성을 각각 서술자 혹은 주동인물로 설정한 「제야」와 「해바라기」는 신여성이 개인이 지닌 권리를 물질과 교환하는 상황을 다룬다. 「제야」의 주인공 최정인과 「해바라기」의 주인공 영희의 공통점은 ‘개성’이라는 이상을 언표하지만, 결국 자아실현을 향한 그들의 기획은 물질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염상섭은 두 여성인물의 기획이 실패하는 과정을 서사화하며, 개인이 지닌 가치가 물질적 수단일 때, 그들이 추구하는 개인의 고유한 가치는 성립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신여성의 서사를 분석하기에 앞서, 염상섭이 1920년대 초반의 조선에서 발견한 문제의식을 밝히고자 한다. 일본을 통해 근대 문물이 유입되면서, 1920년대의 경성은 소비문화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처럼 바뀐 세태를 염상섭은 “길거리에 나가면 새 옷 입은 남녀가 현저히 느렸고, 전차는 만원이요, 육조대로는 몰려드는 사람, 쏘다져나오는 사람으로”<sup>119)</sup> 가득하다고 묘사한다.

그중 염상섭이 주목한 것이 공진회(共進會)이다.<sup>120)</sup> 1923년 조선부업품 공진회에 참관한 후 발표한 글에서, 염상섭은 공진회가 “오락기관이라든

119) 상섭, 「세 번이나 본 副業共進會」, 『개벽』 41호, 1923.11, 61-66면.

120) 공진회는 특수 또는 작은 규모의 박람회나 물산회를 이르는 명칭이다. 공진회의 공식적인 목적은 각 분야 전반에 관한 ‘시정의 통계를 망라하고 산업 기타 문물의 실현과 그 개선 진보의 생활을 전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중을 시각적 화려함으로 압도함으로써 식민통치와 근대문명의 발전을 미화하는 정치적 선전의 의도가 짙었다.

강민기, 「조선물산공진회와 일본화의 공적(公的) 전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6집, 2006, 47-48면.

지, 유흥물을 가지지 못한 우리 조선사람의 생활의 흐름”에 활력을 주는 순기능을 인정하지만, 결국 조선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경성전기회사의 배를 불러”줄 뿐임을 간과한다. 그러나 염상섭에 따르면, 조선의 구성원들은 외형적인 풍요에만 관심이 있을 뿐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정신은 결핍되어 있다. 그는 “부업공진회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공진회를 참관할 만한 두뇌부터 만드려주는 것이 더 급하고 더 큰 효과가 있거나 안이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결국, 염상섭은 공진회를 통해, 외형적인 풍요에 매혹될 뿐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조선 사회의 폐해를 비판한 것이다.<sup>121)</sup>

이같은 문제의식은 신여성을 비판하는 논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염상섭은 신여성이 개인이 지향해야할 정신적 가치를 자각하지 않은 채, 외양의 화려함만을 추구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특히 염상섭은 당시 논쟁거리가 된 ‘여성의 단발 문제’에 주목한다. 『신생활』에 발표한 평론 「여자단발문제와 그에 관련하여」에서, 염상섭은 외형의 변화를 곧 여성의 해방으로 사유하는 신여성들을 비판한다.

이와가티 女子의斷髮과 被服의如何로 女子解放의運動이 實現되지안음은 明々白々하려니와, 女子解放思想의 本尊인 노라도 眞實이는 머리도 안이짜기고 男裝도식히지안었다. 그러면 只今 「理想的生活」을하겟든는自覺?을가지고 斷髮한女子의 心理와動機가 어데잇다하여야 可할가. 失戀에잇느냐? 生活難에잇느냐? 特히 엇더한境遇에, 自己를 辨明할必要로 말미암음이냐? 또는 女態로서는, 外來의 誘惑을 抵抗키어렵어 그리함 이냐? (중략) …問題는 些細한듯하지만, 思想上으로나 實生活上으로나, 넘어도 歸趨할바를모르고 彷徨하는 現在의우리로서는 充分히 討究하여야할것이요, 또한 將來할바 一般社會의風潮의그릇될바를, 未然에 防禦키爲하여서라도 必要한바이다.<sup>122)</sup>

121) 상섭, 앞의 글, 『개벽』 41호, 1923.11, 61-66면.

122) 想涉, 「女子斷髮問題와 그에 關聯하여 (女子界에 與함)」, 『신생활』 8호, 1922.8, 49면.

이 글에 앞서 염상섭은 가부장적인 위계질서에서 여성이 해방되어야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인용문에서 염상섭은 만일 여성해방 운동에 여성 스스로의 자각이 결여되어 있다면 오히려 그 운동은 “이상적 생활”을 가능케할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욕망을 부추기는 “외래의 유혹”과 그릇된 “일반사회의 풍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염상섭이 신여성의 사례에서 주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해방 운동이 결국 물질적 욕망의 추구로 변질될 위험성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염상섭이 조선의 신여성과 대조되는 이상적인 모델로 설정한 헨릭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의 주인공 노라의 표상에 주목해야 한다. 염상섭은 평론 「지상선을 위하여」에서 노라를 “자기혁명의 대사업을 완성”한 반역자로 고평하며 신여성의 전범(典範)으로 간주한다.<sup>123)</sup> 기존의 연구는 염상섭이 노라를 자아의 각성을 이룬 인물로 파악한다는 결과적 측면을 부각하였지만,<sup>124)</sup> 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평론에서 염상섭은 노라가 각성을 위해 거친 환멸의 ‘과정’을 상술하는 대목이다. 염상섭은 우선 각성 이전에 노라가 처하였던 부자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노라는, 賢母라고는 못할지모르나, 在來의規矩로는 確實히 良妻의典型이었다 男便의享樂을爲하여는, 玩弄物의人形에 滿足하였고, 男便의生命과 出世를 爲하여는, 高利, 貸金業者의 強迫과威脅을 헤아리지안으면서 오즉 順從과 犧牲으로써 始終한이만치 彼女は 良妻이었다. 그러면 그男便되는 헬머-의 態度는 엇더하였는가.

「우리집 參새를 기르기에는 如干돈이 드지안는다.」라는 헬머-自身の말과가티 헬머-에게 對한 노라는, 鳥籠속에 罝여 노은 雲雀에 지나지안었다. 노라도 勿論 이에不平은업섯다. 그

123) 염상섭, 「至上善을 爲하여」, 『신생활』 7호, 1922.7.

124) 최인숙, 「염상섭 문학에 나타난 ‘노라’와 그 의미」, 『한국학연구』 25집, 2011.



리고 두靈魂은 끈임없는愛로써, 連結되었다고 彼此에 미뒀다. 그러나 그愛는 사람과 사람사이의愛가안이라 黃金을 噬食하는雲雀에對한 所有主의愛요, 主人이 色容잇는 奴婢에對한 愛이었던것을 깨닫지못하였었다. 엇더한境遇에든지, 强者가 弱者에對한愛라는것은 一方의人格을 無視한 憐憫, 庇護, 惠澤, 慈善의變體인줄을 엇지 彼等이 自覺하였스리요.<sup>125)</sup>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노라는 남편 헬머의 재산을 물질적 수단으로 삼아 가정 내에서 제한된 범위의 자유를 영위한다. 이같은 생활이 노라에게 구속으로 인식되지 않은 이유는 남편의 권력이 노라에게 특정한 자유를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집 참새를 기르기에는 여간 돈이 드지 않는다”는 말에서 드러나듯 남편 헬머의 재산은 곧 노라에게 있어 안전 및 향락의 자유를 보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염상섭은 노라에게 베푸는 남편의 “연민, 비호, 혜택, 자선”이 “강자가 약자에게 대한 애”라는 권력의 위계 구도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읽어낸다. 자유의 지배권이 가부장에 있는 이상, 남편의 호의는 상대의 인격을 무시한 채 행해지는 “운작에 대한 소유주의 애”, “주인이 색용잇는 노비에 대한 애”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노라의 자유가 가부장의 지배 하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노라가 남편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때 남편의 태도가 위압적으로 변모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결국 노라의 자유는 남편의 “이기욕의 충족”에 복무할 때만 허용되었으며,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언제든지 박탈될 수 있는 것이다. 염상섭이 노라를 고평하는 근거는 노라가 단순히 가시적인 간섭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신체 상의 자유를 보장받은 순간조차 그 자유를 가능케 하는 권한은 가부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였기 때문이다. 자유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문제삼으면서 노라는 비로소 “「당신이 사람인것과가티 나도 사람이라」고 굳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노라와 대조적으로, 염상섭의 소설에서 신여성 주인공은 물질적 욕망의

125) 염상섭, 앞의 글, 『신생활』 7호, 1922.7, 70면.

자유로운 추구를 개인의 해방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에 ‘자기혁명’에 실패한다. 앞서 남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서사와 마찬가지로 신여성 인물들도 정신적 자유를 희구하지만, 타인의 재산으로 충족한 욕망을 자유의 실현으로 간주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같은 맥락에서 염상섭이 신여성에게 강조하는 것은 물질적, 정신적인 ‘자립, 자율력’이라는 서영채의 지적은 타당하다.<sup>126)</sup> 다만, 염상섭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 자체라기보다, 자유를 물질적 욕망의 충족으로 설정하였을 때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의 지배를 허용하게 되는 상황에 있다. 물질적 조건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한 신여성 인물들은 결국 자율권을 잃고 정신적 자유를 실현하려는 기획에서 실패하게 된다.

신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일련의 단편에서 반복되는 모티프는 신여성이 정신적 가치를 통한 자아실현을 표방하지만 결국 그 배후에는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심리가 있음이 폭로되는 사건이다. 우선, 1922년 『개벽』에 발표된 「제야」<sup>127)</sup>는 신여성 최정인이 남성들의 재산을 수단으로 정신적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과정을 서사화한다. 서사의 형식은 신여성 최정인이 남편에게 보내는 서간체이지만, 인물에 독자의 동일시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서간체 소설의 효과를 전복하는 텍스트이다.

서간 소설은 18세기의 서구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동일시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끈 형식이다. 이 형식에는 편지를 쓰는 서술자가 곧 주인공이므로 외부에서 인물을 관찰하는 권위적 관점이 없다. 이를 통해, 독자는 작가를 의식하지 않고 등장인물이 허구가 아니라 실재하는 듯한 동일시 감각을 느끼게 된다.<sup>128)</sup> 1910년대 조선의 문인들이 서간체 소설을 다수 발표한 것도 인물의 내면을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

126) 서영채는 경제적 자립 능력을 중시하는 염상섭의 논리에서 염상섭이 “사랑이건 결혼이건 문제는 경제력이며 그것이 현실”이라 생각하였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그럼에도 염상섭은 사랑과 결혼이 금전으로 매수되어서는 안되는 정신적 가치를 지닌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서영채, 앞의 책, 134면.

127) 염상섭, 「除夜」, 『개벽』 20-24호, 1922.2.-6.

128) Lynn Hunt, 앞의 책, 50면.

듯한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반면, 「제야」의 편지는 최정인의 내면을 매개 없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 최정인이 과거의 자신이 저지른 방종을 회고하고 참회하는 내용이다. 이때 서술자 최정인의 시점이 과거 최정인의 내면과 행동을 관찰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므로, 전형적인 서간 소설이 유도하는 동일시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독자는 한 인물에 이입하는 대신 서술자 최정인의 목소리를 통해 과거 최정인의 행동과 감정을 비판적 거리를 두고 관찰하게 된다.<sup>129)</sup> 이 과정에서 과거 최정인의 내적 독백과 서술자 최정인의 목소리가 공존하게 되므로, 이같은 서술의 이중 상황으로 인해 최정인의 성격에 대한 해석은 극명하게 갈렸다. 일부 연구들은 과거 최정인의 독백을 근거로 최정인의 말과 행동을 여성해방으로 평가한다.<sup>130)</sup> 이와 대조적으로, 서술자 최정인의 목소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은 그녀를 육욕의 화신으로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갈래의 해석은 최정인의 성격을 하나로 규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일면적이다. 오히려 서사 전체의 의도는 과거의 최정인(이하 경험자아)과 서술자 최정인(이하 서술자아)이 보이는 인식의 간극을 관찰할 때 효과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인물에 대한 독자의 비판적 거리를 유도하는 서술기법은 서사 전체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는 서간문 형식을 통해, 「제야」의 서사는 신여성 최정인이 절대적 자유를 회구하였던 자신의 기획이 왜 타락의 결말을 맞이하였는지에 대한 반성 과정을 보여준다. 서술자아가 지적하는 타락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험자아가 추구한 자유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험자아의 내적 독백을 인용한 다음 대목에서 최정인이 사유하는 자유의 관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모든 것이 어린 兒孩가, 만들어 노흔 玩具에 不過하다. 거기

---

129) 이같은 서술의 이중 상황을 조남현은 작가의 사상과 인식세계를 직접적으로 털어놓는데 적합한 양식인 “해부”와 작가나 작중인물의 심정세계를 드러내는 “고백”의 형태가 상보관계를 이루는 드문 경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남현, 앞의 글, 580-518면.

130) 이보영, 앞의 책.

에 무슨 權威가 있고, 意味가 잇느냐. 主觀은 絶對다. 自己의 主觀만이, 唯一의 標準이 아니냐. 自己의 主觀이 容許하면 고만이다. 社會가 무엇이랴 하던지 道德이 무엇이랴고 抗議를 提出하던지, 神이, 滅亡하리랴고 警告를 하던지 귀를 기울일 必要가 어대 잇느냐. 世間의 俗衆 雜輩가 일의 大小를 莫論하고, 正義니 무엇이니 하며, 혼자 잘난체 하는 것은, 結局 自己의 罪科를 隱蔽하기 爲하여 所謂 神이니 共同 目的이니 社會니 國家니 하는 等 避難處에 숨어서, 기다란 대스개피에 매어 달은 旗발을, 墻 外에 내여 밀고 휘두르는 것 가튼 것이다. 이러한 意味로, 彼等은 누구보다도 먼저 僞善者이다」<sup>131)</sup>

최정인은 종교, 사회, 국가로 대표되는 공적 가치를 배제하고, “주관은 절대”라는 원칙 아래 “자기의 주관은 용허”하는 것만을 추구하고자 한다. 자유의 기준을 주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최정인은 공공에 헌신한다고 말하는 지식인들이 실제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위선자”라고 비판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기본적인 욕구에서 자아실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향성을 보이는데 반해, 최정인은 이 자유관을 자신의 즉물적인 욕망을 합리화하는 데 활용한다. 서사 전체에서 서술자아는 경험자아가 언급하는 “주관”의 구체적 내용이 성욕과 물질욕의 추구라는 것을 폭로한다. 이로써 최정인의 서사는 개인의 자유가 즉물적인 욕망과 결합하였을 때 발생하는 폐해를 보여주게 된다.

그렇다면, 최정인이 자유를 욕망의 무제한적인 추구로 파악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제야」가 이 시기 유행한 신여성의 타락 서사와 구별되는 지점은 신여성의 내적 결함을 지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근본 원인을 탐색한다는 데 있다. 서술자아는 그 1차적 원인으로 당대 과학적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던 유전과 환경의 요인을 든다. 최정인은 육체적 쾌락을 향락해온 부친과 불륜을 저지른 모친의 결합으로 탄생한 자식이며, 어린시절부터 “병적 환락을 무조건으로 보장”하는 “완전한 자유

131) 염상섭, 「除夜」, 『개벽』 21호, 1922.2, 37면.

(?)”를 누렸기 때문에 “자기를 통어할 만한 능력 이상의 자유”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된다. 그럼에도 최정인의 타락을 생물학적 요인에 환원하는 자연주의적 해석<sup>132)</sup>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서사 전체에서 이는 주체를 제약하는 조건 중 한 요소로만 서술될 뿐이기 때문이다.

최정인의 자유를 결정짓는 또 다른 조건은 구습과 가부장제라는 제도적 측면이다. 서술자아는 “노예 도덕에 대하여 아무 반성이 없”었던 남편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결혼이 남편과 부친으로 대표되는 남성들의 결탁으로 이루어졌음을 폭로한다. 즉, 남성들이 “인습적 결혼 제도와, 부친의 소위 가장권의 남용과, 폭군적 위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최정인은 종속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서술자아는 최정인을 제도의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간주하기보다 이같은 조건에서 주체가 취해야할 태도를 질문한다. 서술자아가 남성들을 비판하면서도 끝까지 최정인 자신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서술자아가 최정인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로 여기고 있음을 암시한다. 최정인을 “가부장제의 희생자”로 보는 해석<sup>133)</sup>이 일면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서술의 초점은 유전적 조건과 제도적 제약 속에서 경험자아가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에 있다. 경험자아는 구습 가정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성욕의 충동”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는 자유연애를 택한다. 동경 유학 시절 최정인은 여러 연애 상대를 만나며 성적 자유를 누린다. “그들에게 대한 나는 절대였습니다. 나의 의사는 최고 권위였습니다”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이같은 자유연애야말로 최정인의 ‘절대주관’인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욕망의 추구가 최정인의 자유를 가능케 하는 물질적 조건을 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서술자아는 거듭해서 경험자아가 자신의

---

132) 최정인이 타락한 원인을 자연주의의 환경결정론에서 찾는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명환, 「염상섭과 졸라」, 권영민 편, 앞의 책, 324-327면 ; 김윤식, 앞의 책 ; 강인숙, 『불일한 3국의 자연주의 비교연구Ⅱ』, 솔과학, 2015.

133) 김경수, 「염상섭의 초기 소설과 개성론과 연애론-암야와 제야를 중심으로」, 『어문학』 77호, 2002.

행동에 대한 “반성” 능력이 없음을 비판한다. 경험자아는 반성조차 욕망 추구의 장애물이 된다고 하며, 모든 것을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惡魔라 하는가? 그러니 어찌란 말이나? 自己가 惡魔라는 意識이야말로, 自己가 強하다는 意識이 아닌가. 勝利의 歡喜처럼 生活內容을 豊富케 하는 것은 업다.」-이것이, 道德的 自己省察에 對한 反駁文이었나이다. 實로 나에게 對하여 道德이란 아모 權威도 업섯습니다. 自己의 生을, 絶對로 充足시키라는 끝는 慾求압해는, 모든 것을 蹂躪하고 犧牲하여도, 아깁지 안타는 것이, 나의 生活을 自律하여 가는 데에 最高信念이었나이다.

「우리는 生活한다. 함으로 生活을 熱愛하다. 熱愛할 義務가 있다. 함으로 生活의 愛를 滿足시키기 爲하여 取하는 바 一切의 手段은 可치 안흔 것이 업다...」<sup>134)</sup>

가치의 기준이 쾌락의 유무가 되면서, 도덕은 쾌락 추구를 간섭하는 외부의 억압으로만 간주된다. “자기의 생을, 절대로 충족시키려는 끊임 욕구”와 “도덕적 자기 성찰”은 대립구도를 이루는 것이다. 도덕에 대항하여, 경험자아는 쾌락을 제공하는 “일체의 수단”을 허용하게 된다. 이를 최정인은 “생활을 자율”하고 “열애한다”고 믿는다.

이같은 가치관은 최정인이 자신의 쾌락을 교환가능한 물질로 상상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경험자아는 “남자는 물질로 여자의 정조를 요구하니, 나는 정조를 유동 자본으로 삼아 쾌락을 무역하겠다”고 하며, “물질과 정조의 교환 가치”로 쾌락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쾌락이 교환 가치를 부여받는 순간, 최정인의 자유는 마치 자본주의의 소비자가 누리는 자유와 흡사해진다. 최정인은 자유연애를 통해 정조를 물질과 교환하며, 남성의 재산으로 또다른 물질적 쾌락을 충족한다. 이러한 교환질서 속에서 소비

---

134) 염상섭, 「除夜」, 『개벽』 21호, 1922.3, 49면.

자로 존재하는 한, 최정인의 쾌락은 지속될 수 있다. 이를 서술자아는 경험자아가 정조를 “훌륭한 상품”으로 팔고 “생활의 수단은 고사하고 학자금까지를 이 수단으로 얻으려 하였”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최정인의 자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최정인 자신이 아니라 재산과 권력을 지닌 남성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최정인의 자유는 종속의 위기를 맞는다.

전반부의 서사가 최정인의 자유를 설명하는 데 치중했다면, 중반부 이후 최정인의 자유가 결국 종속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이 폭로된다. 그 계기는 최정인이 누린 자유가 남성들에 의해 회수되는 사건이다. 실상 처음부터 최정인의 자유를 가능케 하는 힘은 부친의 재산에서부터 유래한다. 최정인의 동경유학은 “부친이 아직껏 우리 모녀들의 뒤를 보아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암시된다. 부친이 자유의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통제권 역시 부친에게 있다. 부친은 언제든지 “극단의 간섭과 감독과 지도와 노예적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개인으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최정인은 다른 지식인 남성의 재산을 수단으로 삼지만 그 자유 역시 남성의 배신으로 인해 언제든지 박탈당할 수 있다. 최정인은 강연회에서 만난 기혼자 E씨와 연애를 한다. 이들이 사랑에 빠지는 과정은 통속 연애소설의 문법을 따르고 있다. 최정인은 「과우스트」의 한 구절을 통해 E씨를 향한 감정을 전달하고, 두 손의 “따뜻한 살과 살이, 마주”칠 때,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최정인의 사랑이 E씨의 재산, 명예, 독일 유학의 계획을 통해 욕망을 충족하는 데 있다는 것은 그의 내적 독백에서 드러난다.

...생각하면 그러케 쉽사리 降伏할 줄은, 實上 意外이었습니  
다. 그러나 나는, 單純히 相對者를 降伏시키기에만 滿足할 수  
는 업섯습니다. 이 機會를 노쳐서는 아니 되겠다고, 단단히  
決心하였습습니다. 그것은 몸을 許諾하였다 하여, 그런 것은 아  
닙니다. 그러면 E氏의 財産? 貪나지 안는 것도 아니지만, 그  
것도 아니었습니다. E氏의 學識, 名聲, 風采가, 마음에 드지

안는 것도 아닙니다. 離婚이 成功되기를 祝數하지 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치면 안 될 것은 獨逸留學의  
計劃이었습니니다. 設使 獨逸은 못되드래도 何如間 洋行만 하  
얏스면, 고만이엇습니니다. 學問도 學問이려니와, 日本만 갔다  
가 와서는, 到底히 나의 虛榮心이 滿足할 수가 업섯습니  
다.<sup>135)</sup>

이처럼 최정인이 누린 자유는 부친의 재산과 연애 상대의 능력을 수단  
으로 성립된 것이었다. 그러나 결혼 문제가 논의되면서, 역설적이게도 최  
정인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힘이 오히려 최정인의 종속을 가져온다. 부친  
은 구습 결혼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최정인의 의사를 “폭위로 강압”하며,  
구습결혼을 피할 대안이었던 E씨 역시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최  
정인을 배신한다. 최정인이 부친을 피해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과정은 자유의 지배권이 최정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  
터 남성들에게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아버지의 강압을 피해 최정  
인은 부산으로 가출을 시도한다. 최정인의 전보로 E씨는 부산에 나타나  
지만 최정인을 책임질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 이로써 최정인은 자유결혼  
과 유학계획 어느 쪽도 선택지가 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최정인이 이동  
권을 제약당한 채 서울로 돌아와 용산 경찰서에서 부친에게 넘겨지는 대  
목은 그의 자유가 다시 지배자에게 회수되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다.

자유를 박탈당한 후에도, 최정인은 자유의 조건을 성찰하는 대신 타인  
의 지배권을 통해 자유를 얻으려 한다. 구습 가정에 돌아와 최정인은 자  
신이 E씨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한다. 신체에까지 닥친 종속을 해결  
하기 위해, 최정인은 “유일의 구주(救主)로 생각하던” E씨를 만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E씨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심지어 최정인은 스스로  
“인격을 무시하는 극단의 강압 수단”이라고 비판한 구습 결혼을 해결책  
으로 승인한다. 최정인은 결혼 상대의 사진을 보며 “이 사람은 나를 구  
하여줄까. 용서하겠지. 안 하여주면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해보이지”라며

135) 염상섭, 「除夜」, 『개벽』 21호, 1922.3, 58면.



구원을 바란다. 결국 최정인은 구원자를 부친에서 E씨를 거쳐 결혼 상대에게로 옮길 뿐, 자유의 지배권이 타인에게 있다는 점은 반성하지 못한 것이다.

최정인이 임신 사실을 들켜 구습 가정으로 쫓겨온 뒤 자살을 택하는 결말은 자유의 조건을 성찰하지 못한 자의 최후를 보여준다. 최정인의 종속은 한순간의 우연적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배권을 남성에게 넘겨준 순간부터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자유의 조건이 남성들의 손에 의해 회수될 때, 결국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한 최정인의 자유는 결국 가부장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된다. 요컨대 최정인의 타락은 자유가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그 조건을 성찰하지 않을 때 자유는 언제든 부자유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말에 이르러 최정인은 자유를 박탈당한 수동적인 주체로만 남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염상섭이 서사를 외부 서술자의 시점이 아닌 최정인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정인이 자살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결국 전체 서사는 최정인이 자신이 누렸던 자유의 조건을 처음부터 복기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폴 리코르는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행위 자체가 성찰 행위임을 지적한 바 있다.<sup>136)</sup> 서술자아는 과거 자신의 삶이 “공상”과 “연극”에 불과하였다고 비판하며 과거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최정인의 신체적 죽음이 이루어지는 순간, 최정인의 정신은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염상섭은 ‘간섭없는 지배’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자유의 조건을 스스로 성찰하고 책임을 다하는 주체가 되는 것뿐이라는 점을 한 신여성의 편지를 통해 역설한다.

자유를 부여하는 물질적 조건을 성찰하지 못하는 신여성은 『해바라기』에도 등장한다. 1923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해바라기』는 초기 단편에서 장편소설의 형식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놓인 소설이다. 그간의 연구에서 『해바라기』는 당대의 신여성 나혜석을 모델로 했다는 점을

---

136) Paul Ricoeur, 「서술적 정체성」, 주네트 외, 석경정 외 역, 『현대 서술 이론의 흐름』, 숲, 1997.

근거로, 실존 인물과의 유사성이 자주 언급되었다.<sup>137)</sup> 그러나 『해바라기』의 영희는 나혜석의 실제 삶보다 「제야」의 최정인과 많은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텍스트 외부의 인물과 사건을 모델로 하더라도, 작가는 신여성에 대한 자신의 일관된 관점으로 인물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바라기』와 「제야」의 간극을 좁혀 그 연속성과 차별성에 주목할 때, 신여성 인물을 통해 드러난 문제의식이 더욱 뚜렷하게 파악될 수 있다.

「제야」의 최정인이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절대적 자유를 희구했듯이, 『해바라기』의 영희 또한 구습과 제도에서 벗어나 예술에서 자신만의 자유를 누리하고자 한다. 영희는 “리지덕 자기 비판력과 명민한 자기 반성력”을 가지고 불합리한 구습과 제도를 거부하는 신여성으로, 기존의 권위에 맞서는 그녀의 성격은 “침착하고 냉정한 리지와 구든 심지가 있어서 보”이는 외양에서부터 드러난다. 최정인의 자유연애가 절대 주관을 확인하는 행위였다면, 영희에게 예술은 “아모도 침범할수없는 자기만 혼자 락을 누릴 세계”이다. 예술을 통해, 영희는 외부의 간섭없이 자유가 실현된 내면의 공간을 상상하는 것이다.

최정인이 자유를 얻는 수단으로 타인의 지배권을 허용한 것처럼, 영희는 부유한 남성 순택과의 결혼을 통해 자유를 지속하고자 한다. 다만, 최정인의 자유가 자유연애에서 시작되어 결혼에서 종결된다면, 과거의 연애로부터 한번 좌절을 경험한 영희의 자유는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갖춘 남편 순택과의 결혼을 통해 재기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최정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남성의 재산을 이용한 것처럼, 영희 또한 예술을 지속하기 위해 순택의 재산과 명예를 필요로 한다. 말하자면, 영희의 삶

137) 『해바라기』를 모델소설로 읽는 독법은 김윤식에 의해 시작되었다. 김윤식은 염상섭의 「제야」와 『해바라기』가 그와 교류가 있던 나혜석을 모델로 한 소설임을 밝혔다. 최혜실 또한 염상섭이 나혜석을 모델로 삼은 의도를 사실을 소설에 그대로 옮기고자 한 일본의 사소설적 경향에서 찾고 있다. 한편, 장두영은 『해바라기』와 이후 발표된 장편소설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를 묶어서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모델소설로 정식화하고 있다.

김윤식, 앞의 책 ;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나무, 2000, 274-276면 ; 장두영, 「염상섭의 모델소설 창작 방법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4집, 2011.

은 최정인이 자살을 택하지 않고 현실에서 타협점을 찾았을 때 가능했을 미래의 서사처럼 보이기도 한다.

「제야」가 서술자아와 경험자아의 목소리를 분리함으로써 최정인이 간과한 자유의 조건을 성찰하였다면, 『해바라기』<sup>138)</sup>는 ‘초점화(focalizer)’를 활용하여 영희가 구상한 자유의 한계를 드러낸다. 초점화는 서술자가 서사 속의 인물과 사건을 누구의 눈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보는가를 문체삼는 개념이다. 서술자는 인물 중 하나를 카메라의 렌즈로 채택하여 그의 시선과 그의 내면을 따라 서술할 수 있는 것이다.<sup>139)</sup> 가령, 『해바라기』의 경우, 서술자는 3인칭 전지적 작가로 변함이 없지만, 전반부와 후반부의 초점은 영희에 한정되다가 중반부부터 남편 순택으로 확장된다.

이같은 『해바라기』의 서술 양상을 처음으로 포착한 것은 등단작부터 염상섭을 주목해온 작가 김동인이다. 소설의 창작방법을 논하는 글에서 김동인은 염상섭의 첫 신문연재소설인 『해바라기』의 서술방식을 문제삼고 있다. 김동인은 소설의 문체를 묘사대상의 범위에 따라 일원묘사, 다원묘사, 순객관적 묘사 세 가지로 나눈다. 일원묘사의 서술자가 작중 주요 인물의 눈에 비친 것에 한하여 대상을 묘사한다면, 다원묘사는 상황의 제약을 받지 않고 거의 모든 등장인물의 심리를 묘사한다. 순객관적 묘사는 작중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지 않고 행동만을 서술하는 방식이다. 이중 『해바라기』는 ‘다원묘사’의 예로 언급되며, 김동인에 의해 다음과 같이 비판된다.

例-

영희가 사끼짱이라는가 하는 계집애의 일을 이처럼 열심으로 묻는 것이 순택의 눈에뿐 아니라 하녀가 보기에다 매우 이상하였다. 그러나 이 능구렁이 같은 주인마누라만은 짐작할

---

138) 염상섭, 「해바라기」, 『동아일보』, 1923.7.18.-8.26. 이하 작품의 인용은 각주를 생략하고 연재 횟수만 본문에 표기한다.

139) H. Potter Abbott, 우찬제·이소연·박상익·공성수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146-147면.

수 있고 또 영희 앞에서는 아무쪼록 사끼를 가엾게 생각하도록 말하는 것이 필경에 이익될 것은 없다 하더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순택이는 도무지 어떻게 된 까닭인지 몰라서 귀만 기울이고 (상섭 「해바라기」에서) (중략)

다원묘사는 작중의 주요 인물이고 아니고를 불관하고, 아무의 심리든 작자가 자유로 쓸 수 있으므로 독자로서 번잡한 감을 일으키게 하며, 나아가서는 그 소설의 역점이 어디 있는지까지 모르게 하는 일이 생기니, 상섭이 「해바라기」를 일원묘사의 방식으로 쓰기만 하였으면 좀더 명료한 작품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탈선, 주지의 몽롱, 성격의 불명료, 이것들은 다원묘사의 작품에서 많이 볼 것이다.<sup>140)</sup>

김동인은 다원묘사의 예로 『해바라기』에서 주요 인물이 아님에도 여관 주인과 하녀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장면을 든다. “하녀가 보기에 매우 이상하였다”거나 “주인마누라만은…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는 대목에서 서술자가 묘사의 대상을 하나의 인물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인물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해바라기』에서부터 서술자는 어느 한 인물의 시점에 일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심리를 병치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같은 묘사법이 “일원묘사”를 주로 채택하는 김동인에게서 결점으로 보였던 듯하다. 그는 『해바라기』의 다원묘사가 서사의 진행에 필연적이지 않은 심리까지를 묘사하므로 “탈선, 주지의 몽롱, 성격의 불명료”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이 평가의 배후에는 소설을 불필요한 것이 순화된 인생의 회화이기 때문에 플롯과 성격의 단순화를 통하여 통일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김동인의 소설관이 자리한다.<sup>141)</sup>

플롯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김동인의 입장에서 염상섭의 묘사방식은 지나치게 산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sup>142)</sup> 그러나 『해바라기』에서 드러

140) 김동인, 「소설작법」(『조선문단』 7-10호, 1925.4-7.), 『김동인전집 16』, 조선일보사, 1988, 169-170면.

141) 유승환, 「김동인 문학의 리얼리티 재고」, 『한국현대문학연구』 22집, 2007, 112면.

나는 염상섭의 의도는 통일된 플롯을 희생해서라도 인물들의 다양한 심리를 드러내는 데 있다. 이같은 특징에 주목할 때, 『해바라기』의 구조는 주동인물 영희의 자기서사가 서사 중반부터 제시되는 다른 인물들의 심리로 인해 단일한 중심을 잃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전반부에서 주동인물 영희의 내면을 전달하는 데 집중되었던 서술은 중반부터 남편 순택의 심리묘사가 병치되면서 영희가 파악할 수 없는 인식 외부의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인물의 심리가 충돌하는 것을 보여준다. 순택 뿐만 아니라 여관 주인이나 하녀와 같은 주변 인물들의 심리까지 끼어들면서, 서사는 주동 인물 중심의 플롯으로부터 이탈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플롯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해소될 수 없는 인물 간의 차이야말로 『해바라기』를 해석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해바라기』는 기본적으로 신여성 영화와 사회적으로 출세한 남편 순택의 결혼식과 신혼여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다. 전지적 서술자가 전체 서사를 이끌어가지만, 전반부에서 주로 초점화되는 것은 신여성 영화이다. 영희는 “리지덕 자기 비판력과 명민한 자기 반성력”을 가지고 불합리한 구습과 제도를 거부하는 신여성으로, 기존의 권위에 맞서는 그녀의 성격은 “침착하고 냉정한 리지와 구든 심지가 잇서 보”이는 외양에서부터 드러난다. 그러나 인물의 성격과 대조적으로 영희가 직면한 현실은 구습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다. 가령, 서사의 중심 사건인 결혼식은 신세대인 영희와 구세대인 부모의 의사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장이다.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는 첫 장면에서 영희는 시아버지의 의사로 예정에 없던 폐백을 드리라는 전언을 듣는다. 영희에게 폐백은 “레식이니 무어니하는 구살머리적은 그까진 작난”이지만, 구습 가정에서는 가부장적 질서에 새 구성원을 편입시키는 의례인 것이다. 이처럼 가문의 질서 유지를 우선시하는 구세대와 개인의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신

---

142) 이같은 서술 상의 특징이 작가의 미숙함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은 최근의 연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시환은 「해바라기」에 나타난 초점의 이동이 박진감 있는 여러 장면을 낳기는 하지만, 결국 전체 서사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본고는 「해바라기」의 이같은 특징이 영희 중심의 서사에 균열을 내어 이를 상대화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본다.

최시환, 앞의 글, 548-551면.

세대는 결혼식을 중심으로 선명한 대립구도를 이룬다.

개인의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전반부 서사의 초점은 신여성 영희의 내적 갈등과 대응방식에 맞추어진다. 서술자는 영희를 초점화자로 삼아 내면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는 고통을 전달하는데, 여기서 부각되는 것은 영희의 내면과 행동의 불일치이다. 영희는 결혼식장의 청중들에게 “자각있는 사람은 모든 의식이나 관습에서 버셔나야한다”고 연설하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길 용기는 없어 “사상과 실행 사이에 틈이 번다는 것”을 내면에서 괴로워할 뿐이다. 이같은 심리를 서술자는 영희의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소위 결혼식이라는 것을 당초부터 무시하던 영희로서는, 사회와 싸우면서라도 구습과 제도에 반항하여 어디까지 자기의 주장을 세울만한 용기가 업서서 그리하얏든지, 여러사람의 눈에 쬐이는 변화한 레식을 거행해야보라는 일종의 허영심을 억이지못하여 그리하얏든지, 어찌튼 신식으로 레식은하얏다 하드라도, 쏘다시 구식으로 폐백을 드리느니 다례를 지내느니 하는 것은, 의식(儀式)을 허례라고 배척하야오드니만치,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살피고 비평하는눈이 밝고 날카롭을스록 영희에게 고통이 아니될수업섯다. 그러나 이러한 영희의 생각은 이방에 안젓는 아모도 알아줄 사람이 업섯다. (4회)

염상섭 특유의 긴 문장으로 서술자는 구습과 제도에 따르면서도 내면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영희의 심리를 묘사한다. 전지적 서술자는 변함이 없지만, 이 대목은 영희의 시각에서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영희의 심리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낸다. 서술자는 영희가 “결혼식이라는 것을 당초부터 무시”하였다고 하며 영희의 이상을 설명하는 동시에, 현재 영희가 고통받는 원인이 이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데 있음을 지적한다. 영희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살피고 비평하는 눈이 밝고 날카”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이 불일치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

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이러한 영희의 생각은 이방에 안겼는 아모도 알아줄 사람이 업섯다”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인물들이 알 수 없는 온전히 영희만의 것이다.

영희의 대응방식 또한 사랑과 예술을 통해 외부에서 침해받지 않을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영희는 “자기밭게는 아모도침범할 수업는 자기만 혼자 락을 누릴 세계”를 예술에서 찾고 있다. 이 세계는 남편 순택조차 “한발자곡도 드러노을수가업”는 것으로, 오직 영희 자신만을 위한 자아실현의 공간이다. 영희에게 예술이 삶의 목적이라면, 남편 순택과의 결혼은 예술을 위한 자금을 얻는 수단이 된다. 이를 영희는 “물질의 보수가 잇는 사랑을 밧고서, 명신덕 보수가 잇는 예술을 이편에서 사랑하는 것은 …아모 모순도 업”다고 합리화한다. 즉, 영희는 사랑을 물질과 교환가능한 가치로 표상함으로써 오직 예술만을 정신적 가치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이 완전한 합리화에 이르지 못하고 균열을 보인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영희의 모순된 태도에서 드러난다.

영희는 의식적으로 사랑의 문제를 배제하고자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사랑은 예술만큼 강력한 가치로 작용하고 있다. 영희가 사랑의 실현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과거의 연애를 진정한 사랑으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영희는 병으로 죽은 옛 연인 홍수삼과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다. 홍수삼에 대한 영희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동생 홍수철의 말에서 암시된다. 영희가 앞으로 사랑을 포기하고 예술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보이자 홍수철은 영희에게 “자기를 밧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업겠지요”라고 답한다. 이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영희는 예술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순택에게 알리지 않고 홍수삼의 묘를 신혼여행의 목적지로 택하게 된다. 서술자는 사랑과 예술 중 “어떠한 것이 영희의 길이 되고 아니될까는 영희의 피가 얼마나 깨겟느냐는 문제로 결정될 것이다”라며, 영희의 선택에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여기까지의 서사가 영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영희에 비

해 남편 순택의 내면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영희의 내면이 한 장에 걸쳐 장황하게 묘사되는 것과 반대로, 순택의 심리묘사는 신혼여행의 목적지가 폭로되는 7장에 이르기까지 제한된다. 순택의 성격은 오직 서술자의 관찰이나 영희와의 대비를 통해서만 제시된다. 가령, 순택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장면에서 서술자는 순택에 대한 정보를 외적으로 드러나는 차원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사람은 올봄에 일본에서 공과대학을 졸업한뒤에 나오는길로, 옛던 일본사람이 경영하는 만선건물주식회사(滿鮮建物株式會社)의 전속한 기사(技師)가 되는 동시에, 총독부 토목과(土木課)의 촉탁을 어더하였다. 그럼으로 지금 전무취체역이니 과당이니하는 것은 자기가 근무하는데의 상전네들이 왔드란 말이다. (중략)

「……참 던보가 한 백여장왔두군요」 하며 입을 답쳤다.

이때의영희압해 선 신랑의 태도는, 마치 전무취체역이나 지배인압해서, 보고를하는 비서역가타왔다. 좀더 속된 비유를 허락한다면, 녀왕압해 궁궁하고섯는 궁내대신이라는 것이 그두편의복색으로 보아서 가장 덕절할것가타왔다. (8회)

서술자는 “만선건물주식회사의 전속한 기사”라는 직업과 “녀왕압해 궁궁하고섯는 궁내대신”과 같은 외부에서 관찰가능한 외양과 행동을 통해 순택의 성격을 암시한다. 순택의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는 제한적 서술은 앞서 영희의 특징이 내부로부터 제시된 것과 대조적이다. 오히려 영희에게 자신들의 상관이 왔다고 우회적으로 자랑하는 행동과 영희에게 복종하는 태도는 자의식 강한 영희와 달리 순택이 수동적인 인물임을 드러낸다.

서술 상으로 드러난 두 인물의 상반된 성격은 서사의 진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구습 가정에서 벗어나 둘만의 신혼여행을 떠나자마자, 여행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영희이다. 가정 안에서 구성원들에게 일일이



절을 올리며 구속되었던 영희의 신체는 경성역에서부터 자유를 되찾는다. 영희는 신혼여행의 목적지를 알리지 않고 순택을 홍수삼의 고향으로 이끌며, 순택은 의심을 품지만 이에 저항하지 않는다. 두 인물의 대화에서도 영희는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에 자각적인 반면, 순택은 수세적인 입장에 머무른다. 기차의 식당칸에서 영희와 순택은 일본의 신여성 그룹 ‘청도파’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인다. 신여성에 선입견을 보이는 순택에게 영희는 “웨 미치긴요.....선생보담 정신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며 “일본녀자로는 자유사상계의 선구자들”이라고 옹호한다. 이처럼 새로운 담론을 받아들여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영희와 달리, 상대적으로 순택은 자각없이 기성의 질서를 승인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영희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서사는 두 인물이 목포에 도착하는 6장에서부터 다른 서술 양상을 보여준다. 영희가 과거 홍수삼과 목은 적었던 목포의 한 여관에 도착하면서, 영희에 대한 순택의 의심은 표면화된다. 여관주인과 영희의 대화를 통해 영희와 홍수삼의 관계를 짐작하게 된 순택은 다음날 아침 영희에게 홍수삼의 일과 신혼여행의 목적을 추궁한다. “그래 정말 아무거든지 해주실테어요?”라는 영희의 반문에 처음으로 순택의 내면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이때에 순택의 목소리는 자식사랑에 눈이 어두운 절친부모가 자식의 모든 잘못을 쓸걱참고 보체는대로 무슨칭이라도 드러주마는듯한 유순하고 온정어가득한 소리이었다 사실말이지 지금 영희가 「당신의 목숨을 잠깐만 빌려주슈」 하드라도 순택이는 결코 앓갑다고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자기의목숨이 앓가운줄을몰나서 그런것도아니요 영희의 청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것도 아니다. 영희의원을 푸러주는 그일이 자기가 살아잇는 첫재조건이기 때문이다. 사라잇는 보람이여기에 잇기 때문이다. 이경우에 리순택이라는 사람이 이세상에 잇는 것은 리순택이를 위하야잇는것도 아니요 사회를 위하야잇는것도 아니다. 그러하면 영희를 위하야 잇는것이냐하

면 그것도 아니다. 다만 영희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중략)련애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하기를 겁버하며 또 그리함으로 만족하다. 그러하지만은 그 희생은 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써 감혀지기를 미리 짐작하고 바치는 희생이다-필경은 엇더한 의미로 자기를 위하는 것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하는 것이다. (28회)

(강조-인용자)

앞서 영희의 내적 갈등을 묘사할 때처럼, 서술자는 순택을 초점화자로 설정하여 영희에 대한 사랑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의 내면을 전달한다. 이 대목은 영희가 알 수 없는 순택의 고유한 심리로, 서술자가 영희뿐만 아니라 순택의 내면을 묘사하기 시작했음을 입증한다. 그런데 서술자는 순택의 내면을 단순히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사랑에 대한 일반론으로 확장하고 있다. “련애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하기를 겁버하며 또 그리함으로 만족하다”는 진술은 영희에 대한 순택의 사랑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희생이란 영희가 옛 애인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희의 소원이므로 같은 목적지에 동행하겠다는 순택의 결단을 뜻한다. 이 결단에 대해 서술자는 “익이는 사람은 구하는자가 아니라 주는자”라고 하며, “순택이는 벌써 목불의 승리를 어땀다”고 단언한다. 서술자의 판단을 뒷받침하듯이, 앞서 의견대립을 보였던 두 사람의 대화는 홍수삼의 일을 의논하며 “정답게 의론성스럽게 되”며, 긴장이 사라진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갈등은 해소되는 듯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서사는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필경은 엇더한 의미로 자기를 위하는 것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하는 것”이라는 위 인용문에서 언급된 사랑의 한계를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가령,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위 장면의 마지막 대목에서 영희는 “안심한 듯이 썩은 썩은하며 평화로운 숨결이 놓혔다 나졌다”하며 이내 잠든 반면, 순택은 “역시 복잡한 생각이 뒤를 다어 머리를 어지럽게 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엽치락뒤치락하는 모양”으로 대조된다. 여기서 암시되는 것은 순택의

희생으로 일시적이거나 합치점을 찾은 두 사람의 사랑이 결국 각자의 목적으로 갈라설 것이라는 사실이다. 두 사람은 비록 홍수삼의 고향이라는 공통의 목적지를 향하지만, 영희는 홍수삼을, 순택은 영희를 사랑한다는 점에서 점점없는 평행선을 그리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전체 서사는 갈등을 봉합하고 전반부에서 제시된 영희의 서사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영희는 홍수삼의 사랑을 애도함으로써 예술뿐만 아니라 사랑에서도 자신의 세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기획을 실행으로 옮긴다. 이는 영희와 순택이 함께 목적지에 도착하였지만, 홍수삼을 추억하고 애도하는 일은 전적으로 영희만의 몫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영희는 과거의 기억에 도취되는 방식으로 자기 서사를 만들고자 한다. 영희는 홍수삼의 “이 얼굴을 쏘듯이 들여다보고 웃든 그눈, 이입에 불가튼 키스를 퍼붓든 그 입, 이 가슴이 부서지라고 끼어안든 그 팔”을 떠올리는데, 이 신체적 감각은 순택이 알 수 없는 그녀만의 것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완성하는 자원이 된다. 또한 영희가 가져온 보자기에는 홍수삼의 물건이 아니라, 홍수삼에게 보냈던 자신의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영희의 관심은 홍수삼이 아닌, 홍수삼을 사랑하던 자신을 기억하는 데 있다. 결국 영희의 사랑은 앞서 제시되었던 “자기를 위하는 것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하는 것”이라는 일반화된 진술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에 동일시된 영희의 서사를 끊임없이 상대화하는 것은 순택의 존재이다.

영희의 서사에 초점을 맞추어 독자의 동일시를 유도하던 전반부와 달리, 후반부의 서술은 영희의 서사에서 배제된 순택의 내면을 병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반된 지향을 보여준다. 홍수삼의 고향에서 목적을 완수하는 영희와 달리, 순택은 “자기의 처디”를 다시금 떠올려보며 회의를 느낀다. 그는 홍수삼의 고향을 찾은 것이 “사랑하는 영희의 원을 푸러준다는 뜻”이었다고 스스로 변명하지만, “이러케 쪼쳐다닌다는 것이 올흔 일이라할지 혹은 험개빠진짓이라할지 자기의 일이것마는 분명히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홍수삼의 묘 앞에서 영희가 그와의 기억을 떠올리는 반면, 순택은 “별안간 질투심이 생기”고 “공연히 심사가

나”서 급격히 피로를 느낀다. 이처럼 서술자는 영희와 대조적인 순택의 심경을 그대로 노출한다. 즉, 두 인물의 상반된 내면을 병치함으로써, 서술자는 영희가 자신의 기억에 도취되어 알아채지 못한 순택의 심경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자의 의도는 두 부부의 심리가 동시에 묘사되는 장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함께 홍수삼의 묘비를 세운 후, 두 부부가 같은 밥상을 받았을 때 서술자는 두 부부의 심리를 다음과 같이 대비시키고 있다.

서기가 간 뒤에 순택의 부부는 밥상을 밧엇스나, 별로 이악 이도업시 잠잠고 먹었다. 목포에서 떠난뒤로는 신희려행가튼 생각이 피차에 업서지고, 무슨 불일이나 보랴가는 사람처럼, 려행이나 내외의 자미라는것보다는 **의무덕관림**이 압장을섯다. 하기 때문에 대개는 서로 텡텡히 안젧슬때가 만타. 순택 이에게는 영희가하는일이 그대지 불유쾌할 것도 업지만 그러 타고 쯤텡대이며 흥에겨워할 형편도 못된다. 또 영희로 말할 지라도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될수잇는대로는 온화한 낫빋츠로 일부러 이악이도 쓰러내지만 역시 제각기 자괴혼자대로의 괴분속에서 노는수밧게 업다. (37회)

(강조-인용자)

공동목표를 완수하였지만 두 부부의 심리는 성취감과 환희 대신 이질성이 부각된다. 목포에서의 다정한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두 부부의 내면에는 “려행이나 내외의 자미라는것보다는 의무덕관림”이 앞서고 있다. 여기서 서술자는 순택과 영희의 심리를 각자의 입장에서 서술한다. 순택의 입장에서는 홍수삼의 묘비를 세워주는 일이 “겉겉대이며 흥에겨워할 형편도 못”되는 한편, 영희도 오로지 자신을 위한 일에 남편 순택을 끌어 들였다는 점 때문에 미안함을 느낀다. 이처럼 영희가 홍수삼을 애도하는 플롯 상의 핵심 사건이 완수되었음에도 인물들의 내적 갈등은 손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서술자는 순택의 사랑에 영희가 감화되어 내면의

일치를 이루는 손쉬운 해결을 거부한다. 두 인물의 차이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는 소설의 결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해바라기」의 결말은 갈등의 봉합과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내적 차이를 부각할 뿐이다. 홍수삼의 묘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영희는 홍수삼의 이름이 아닌 “「최영희」라고 선명히색인 자기의 일흔”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홍수삼의 묘를 방문한 영희의 의도가 옛 사랑을 통해 “아모도침범할수업는 자기만 혼자 락을 누릴 세계”를 완성하는 데 있었음이 드러난다. 그런데 여기서 서술자는 영희조차 스스로 알아채지 못한 심리를 분석하고 있다. 영희가 홍수삼을 위해 향을 피울 때 눈물을 흘리자 서술자는 “그 눈물은 수삼이에게 대한 애도의 정에서 나온 것이라 하는 것보다는, 긴장한 기분에 끌리어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한다. 즉, 서술자는 홍수삼을 위한 “애도의 정”에 도취된 영희의 자기 의식 바깥에서 일어난 행동을 설명함으로써 영희의 자기 서사를 외부의 시선으로 상대화하는 것이다.

한편, 이 결말에서도 순택의 심리는 영희와 대조를 이룬다. 순택의 심리는 영희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안도감에 한숨이 나오며 “한번 꺾꺾웃고 십흔생각이 낫”다고 묘사된다. 홍수삼에 대한 애도에 집중하는 영희와 달리, 순택은 문득 “자기 부친이…화를 내이고 떠나든 혼인날 밤의 광경”을 떠올린다. 순택이 영희의 심리를 알 수 없었듯이, 순택의 이같은 심리 또한 영희가 간파할 수 없는 오로지 순택에 귀속된 것이다. 이처럼 영희와 대비를 이루는 순택의 유쾌한 심리가 삽입됨으로써 영희에 초점화되었던 서사는 통일성을 잃고 결국 영희와 순택의 해소될 수 없는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난다.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 결말을 통해, 염상섭은 영희가 추구하는 사랑의 한계를 드러낸다. 서술자는 영희 중심의 서사에서 배제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서사의 진행에 필연적인 부분이 아님에도 서술자는 순택의 소외된 심리를 적극적으로 묘사하며, 충돌하는 두 인물의 심리는 결말에 이르러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같은 서사의 결말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였던 영희의 사랑이 결국 순택을 물질적 수단으로 택함으

로써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신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는 개성의 실현을 향한 신여성의 기획이 실패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 원인은 신여성이 물질적 욕망을 허용한다는 것에 있다. 「제야」의 최정인이 물질적 욕망의 추구를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과 혼동하였다면, 「해바라기」의 영희는 개성을 실현하는 목적 하에 타인을 물질적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해소될 수 없는 갈등을 남긴다. 이같은 신여성의 실패를 통해, 염상섭은 개인의 이상을 추구한다는 미명 하에 물질적 욕망을 합리화하는 지식인의 행태를 경계하고 있다.

## 4. 내면의 모순과 아이러니의 기법

### 4.1. 균열된 자기 서사와 새로운 자아 인식

3장에서 살펴본 것은 염상섭이 남성 지식인의 서사에서는 정신과 물질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정신적 자유를 보존하려는 시도를 보인 반면, 신여성의 서사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물질적 욕망의 문제를 성찰하는 양상이었다. 이어서 4장에서는 염상섭이 장편소설을 창작하면서 신여성을 통해 드러난 물질적 욕망을 지식인 전체의 문제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편소설의 지식인 인물들은 개성을 실현하려는 본성과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반된 두 본성이 공존하는 내면을 지닌 존재로 형상화된다.

이같은 인물의 내적 모순을 서사화하기 위하여, 장면 간의 부조화와 모순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서사 기법인 ‘아이러니’가 채택된다. 우선 1절에서는 『만세전』에 ‘아이러니’적 상황이 설정되어 있음을 분석함으로써, 이 서사를 서술자 이인화가 과거의 자신이 보인 모순된 심리와 행동을 자성(自省)하는 과정으로 재독하고자 한다. 1인칭 시점을 택한 『만세전』에서 아이러니는 서술자가 과거의 자신에게 비판적 거리를 취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초기 3부작을 단편집으로 묶으면서 염상섭은 소설의 주제가 인간의 내적 모순에 있음을 밝힌다. 단편집의 표제 ‘견우화’가 “야차의 마음을 가진 보살” 즉 모순된 존재를 뜻한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염상섭은 인간을 내면에 이질적 요소를 동시에 지닌 존재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야차의 마음을 가진 보살이나, 보살의 마음을 가진 야차나 그 모순에 고뇌·번민하는 것은 같을 것이다. 야차에게 야차의 마음이 있고, 보살에게 보살의 마음이 있을진대, 자기의 개성 그대로가 정당히 완성되고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진대, 자기를 자기대로 온전히 살릴 수가 있을진대 아무 모순도 없

고, 따라서 아무 고통과 오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야차의 마음을 가진 보살 같고, 보살의 마음을 가진 야차같이 자기모순과 자기분열에 번뇌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다.<sup>143)</sup>

위 인용문에서도 염상섭은 개성을 그대로 실현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롭다는 문화주의적 이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이상이 성취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자기모순과 자기분열에 번뇌”하기 때문이다. 염상섭은 인간이 이러한 모순을 치열하게 번민해야만 “전아적(全我的) 중심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며, 자신의 소설이 “이 모순과 분열에 고민하는 양을 그대로 묘사”하여 “인격과 사상의 통일과 완성을 기획”하는 의도로 씌어졌다고 밝힌다.

이같은 인물의 내적 모순을 염상섭은 초기에 창작된 세 단편에서 서사화하고자 하였지만, 이것이 서사 양식으로 구현된 것은 ‘아이러니’가 사용되면서부터이다. 아이러니는 외관과 실제의 대조를 통해, 표면적인 현상 이면에 모순과 부조화가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기법이다.<sup>144)</sup> 염상섭은 이러한 아이러니의 특성을 활용하여, 외양에 가려진 인물 내면의 모순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특히 유학을 통해 개성 본위의 사상을 받아들였음에도 이를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부르주아 지식인의 위선이 아이러니컬하게 폭로된다. 이로써 지식인들의 내면은 전적인 선이나 악도 아닌, 개성을 추구하려는 본성을 지니면서도 관습에 순응하여 물질적 이익을 채우려는 모순된 두 측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4절에서는 『만세전』, 『너희들은 무엇을 어뎅느냐』를 통해, 아이러니의 기법이 드러나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만세전』<sup>145)</sup>은 염상섭의 전반기 소설 중 가장 뛰어난 현실감각을 보

143) 염상섭, 「자서」, 『견우화』, 박문서관, 1924.

144) D.C. Muecke, 문상득 역, 『아이러니』,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55-56면.

프랑스의 비평가 조르주 팔랑뜨는 아이러니를 “우리 본성 내부의 모순”을 드러내는 형이상학적 원리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같은 책, 107면.

145) 『만세전』의 판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만세전』은 처음에 잡지 『신생활』에 「묘지」(1922.7-9.)라는 제목으로 연재되다가 검열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시대일



여주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염상섭의 초기작들이 관념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파악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만세전』을 기점으로 그가 식민지의 현실에 주목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이재선은 『만세전』이 “3.1 운동 직전의 식민지적 사회현실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김종균은 『만세전』을 3.1운동의 실패에 대한 “한 청년 학생의 사회관찰기록”으로 보면서 식민지에 대한 비판 의식이 『만세전』 이후의 장편에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보영 또한 주인공 이인화의 여로를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자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sup>146)</sup> 한편, 김윤식은 “일본 근대 소설의 체계에서 벗어나 자기의 세계를 발견하는 중간단계에 『만세전』이 놓여 있는 것”<sup>147)</sup>이라고 평가한다. 『만세전』을 전환점으로 보는 이와 같은 평가는 문학사 서술으로 확장되어, 『만세전』을 통해 염상섭이 “삶의 전체성에 대한 인식에 접근”<sup>148)</sup>하면서 염상섭의 작품세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리얼리즘이 확립되었다는 표준적인 해석이 성립되기에 이른다.

『만세전』에 대한 기존의 리얼리즘적 독법은 구체적인 해석은 다를지언정, 이인화의 인식이 곧 작가 염상섭의 입장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즉, 서술 대상을 작가와 동일시함으로써 『만세전』을 자전적 서사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그간의 해석들은 『만세전』에서 이인화의 일관된 입장을 추출해내고자 하였다. 이는 상반된 두 가지 해석으로 갈라진다. 그 한 가지는, 이인화가 식민지 현실을 비판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민족적 주체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이다.

---

보』(1924.4.6.-.6.7)에 연재가 재개되고, 1924년 8월에는 고려공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만세전』의 판본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재선, 「일제의 검열과 「만세전」의 개작」, 『문학사상』 84집, 1979.11 ; 박현수, 「「묘지」에서 「만세전」으로의 개작과 그 의미」, 『상허학보』 19집, 2007 ; 박정희, 「「만세전」 개작의 의미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31집, 2010 ; 최태원, 「<묘지>와 <만세전>의 거리-“묘지”와 “신석현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27집, 2001.

본고에서는 염상섭, 『만세전』, 고려공사, 1924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해당 판본을 저본으로 삼은 『염상섭전집1』(민음사, 1987)을 참조하였다. 이하 작품 인용은 해당 본문 뒤에 면수만 표기한다.

146) 이보영, 앞의 책, 124면.

147) 김윤식, 앞의 책, 239면.

148)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 민음사, 2002, 226면.

이때 이인화의 성장은 곧 작가의식의 성숙과 동일시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인화가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였다는 정반대의 해석이 있다. 이 계열의 해석은 『만세전』이 이인화의 성장서사라는 견해를 반박하며, 그가 보인 동족에 대한 열등감이나 혐오로부터 제국에 동일시하는 피식민자의 무의식을 읽어낸다. 이같은 해석은 그 내용은 상반되지만 이인화를 통해 염상섭의 입장을 재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태도를 보인다.<sup>149)</sup>

본고는 『만세전』을 일종의 자전적 서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해석들에 근접한다. 그러나 『만세전』이 전형적인 자기서사의 문법과 차별화되는 균열의 지점을 보인다는데 주목하고자 한다. 폴 리콥르에 따르면, 이야기는 인간에게 일종의 균열로 경험되는 시간을 하나의 통일되고 완전한 스토리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체험되는 시간은 이질적이고 균열된 사건들의 ‘불협화음’에 불과하지만, 인간은 무질서하게 널려있는 사건들을 인과관계로 엮으면서 일관된 ‘화음’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의 능력이란 곧 ‘기억’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기억은 과거에 대한 해석으로서, 이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맞물리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관계를 설정한다.<sup>150)</sup>

그러나 이같은 이야기의 본질에서 『만세전』은 이탈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만세전』은 과거의 자신을 서사화하면서도 이를 일관된 정체성으로 구축하기보다 그 균열을 드러내는 방식을 택한다. “조선에 만세가 일어나던 전해의 겨울이었다”는 서사의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만세전』은 서술자 이인화가 3.1운동이 끝난 시점에 3.1운동 이전의 자신을 회상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자신을 서사화하려는 지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서술자는 과거 자신의 서사를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조직하는 대신, 이질적이고 비일관적인 것의 총체임을 드러낼 뿐이다. 이인화의 내면은 모든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마음과 사회의 규범을 용인하려는

---

149) 나병철, 『근대서사와 탈식민주의』, 문예출판사, 2001 ; 서재길, 「『만세전』의 탈식민주의적 읽기를 위한 시론」, 『한국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등.

150) 김한식, 「이야기의 논리와 재현의 패러다임」, 『프랑스어문교육』 34집, 2010, 338-340면.

두 가지 이질적인 마음이 싸우는 모순적인 장으로 묘사되며, 조선 사회에 대해서도 동정과 혐오를 오가며 일관된 입장을 정립하지 못한다. 이처럼 『만세전』은 기억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성공하는 서사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균열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는 독특한 자기서사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만세전』의 서사는 인물의 일관성을 포기하고 내적 모순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구성된 것일까. 이인화가 드러내는 내면의 모순은 앞선 작품들에서 제기되었던 자유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지식인 이인화를 구속하는 것은 외부의 물리적 억압보다 관습에 스스로 순응하는 내면의 타율성이다. 이는 자유를 추구하는 본성과 충돌하며 인물의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만세전』이 포착한 식민지의 심각성은 단순히 외부에서 파악가능한 물질적 수탈의 층위에 그치지 않고, 주체의 내면에서 고착화된 부자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 절에서는 개인의 내적 자유의 측면에서 『만세전』의 전반부와 중, 후반부를 재독하고, 이 서사를 ‘균열된 자기서사’로 정립하고자 한다.

『만세전』의 전반부와 중, 후반부의 이질성은 해석의 난제가 되어 왔다. 전반부가 일본을 배경으로 이인화의 유학 생활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면, 이인화가 귀국하는 중·후반부에서부터 이인화가 관찰하는 조선의 현실이 본격적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차이는 배경에 그치지 않고 서술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전반부가 이인화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면, 중·후반부에서는 외부 현실에 대한 이인화의 반응이 두드러진다. 이 점으로 인해, 『만세전』을 민족의 서사로 보는 기존의 연구들은 중·후반부의 서사에 집중하면서, 전반부의 서사를 단지 이인화가 민족의식을 자각하지 못한 미성숙한 단계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전반부의 서사는 단지 이후의 서사를 뒷받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인화의 내적 갈등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해석의 실마리가 된다.

『만세전』은 서술자와 서술 대상이 이인화로 일치하는 1인칭의 서사이지만, 서술자는 과거의 시점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인물의 내면까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내면묘사의 방식에서 드러난다. 다음 인용문에서 이 인화가 과거에 떠올린 생각은 직접인용 부호를 통해 그의 목소리 그대로 전달된다. 그러나 뒤이어 제시되는 것은 과거의 이인화에 귀속시킬 수 없는 모호한 시점의 서술이다.<sup>151)</sup>

(A) 「실튼조튼 何如間, 近 六七年間이나, 所謂夫婦란 일흠을 썬우고 지내왔는데……, 當場 숨을 몬다는 急電을받고나서도, 아모생각도 머리에 돌지안는것은, 마음이 惡毒해 그러하단말인가. 俗談의 常말로, 기가넘우맥혀서 맥힌동 만동해서 그런가?……아니, 그러면 누구에게 반해서나 그런다할가? 그럼 누구에게?……」 (중략)

**實相말하면 靜子が 안이라는 것도, 靜子라고 對答하니만치 本心에서나온 對答이였다, 그러면서도 自己가 只今 머리를 짝그라고드러온 動機가 最初에 어데있섯든야는것은, 明瞭히 意識도 하고 부인치도 안었다.**」 (14-15면)

(B) 「그러나저러나 只今 이다지 時急히 썬나라는것은 무슨理由인가. 내가 가기로, 죽을사람이 사라날理도 업고, 己爲 죽엇다할 地境이면, 내가 안이간다고 감장할사람이야업슬가. 六七年이나 갖치사라온情으로? 참 正말 情이 드럿다할가? 입에 부튼말이다. 그러면 義理로나 人事治禮로? 그러치안으면 一家들에게 對한 體面에 그럴수가업다거나, 男便된 責任上, 避할 수업서々 나간다는 말인가. 흥! 그런 생각은 애當初에 念頭에도 없거니와 그런 虛僞의짓을 하지안으면 안될理由는 어데잇는가. 그럼 웨 가라나?」

151) 작중인물 이인화에 귀속시킬 수 없는 전지적 시점의 서술은 『만세전』 전반에서 나타난다. 이 부분들을 최시한은 염상섭이 작가 자신과 작중의 서술자를 충분히 분리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출되는 한계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이를 단지 미숙함으로 비판하는 대신, 과거 이인화의 내면과 행동을 메타적으로 비평하려는 서술자의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최시한, 앞의 글, 544면.

여기까지와서는 더생각을 니여갈勇氣가업섯다. 萬一에 옛  
에까지든지 캐어무를것가트면 自己自身の 明答을 어덧슬  
지라도모르나, 그것은 니스몸이 근질~하는것가타야서, 다  
시 건디리지도안코 自己마음을 살씩덥허두엇다. (15면)

(강조-인용자)

(A)의 첫 단락은 과거 이인화의 심경을 직접인용으로 전달하는 대목이다. 그는 조흔한 아내가 앓는다는 전보를 받고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자문한다. 그 원인으로 이인화는 친밀하게 지내는 카페 여급 시즈코를 떠올린다. 그러나 이인화가 시즈코에 대해서도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다음 단락에서 폭로된다. 한편, 직접인용이 끝난 후, 두 번째 단락에서 서술자는 과거 자신의 심경을 메타적으로 재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인화가 귀국을 지연하는 “동기”는 시즈코가 아니지만, 그는 시즈코라 대답함으로써 진정한 원인과 대면하기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이 과거 이인화의 인식이 지닌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은 이어지는 단락 (B)에서 더욱 명료히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첫 단락의 직접인용은 이인화의 모순된 내면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그는 한편으로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귀국을 서두르는 것을 “허위의 짓”이라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귀국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모순을 이인화가 덮으려 한다는 것은 다음 단락의 서술을 통해 드러난다. 서술자는 과거의 이인화가 “생각을 이어갈 용기가 없”으며, 모순을 회피한 채 “자기 마음을 살씩 덮어두”려는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당시 이인화의 생각이라기보다 과거의 자신을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서술자의 판단에 가깝다. 이처럼 전반부의 서술은 과거 이인화의 내면을 직접인용을 통해 전달하는 한편, 거기에 드러난 모순과 회피적인 심리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서술자의 재진술이 병치되어 있다.

이같은 내면 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만세전』에는 이인화의 모순된 마음을 드러내는 다양한 장치가 존재한다. 이인화의 분열을 드러내는 또

다른 장치는 여성인물들과의 관계이다. 앞서 염상섭의 단편에서 여성인물들은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각성의 가능성을 지녔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체성을 포기하고 자유의 권한을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만세전』에 이르러, 여성인물들은 이인화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상이 된다. 이들은 이인화의 내적 특질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인화는 그들을 비판할 때조차 자기 자신의 약점에 직면하게 된다. 이로써 이인화는 더 이상 비판자의 위치가 아니라 비판받는 입장에 서게 되는 전도가 일어난다.

『만세전』의 전반부에는 세 명의 여성인물들이 등장한다. 우선, 서사의 표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인화의 내면에 “때치지 못할 그림자”로 자리한 구여성인 아내가 있다. 서사는 이인화가 구습 가정으로부터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으면서 시작된다. 이 전보는 이인화가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로 그를 이끄는 장력으로 작용한다. 그에게 조혼한 아내는 동정이나 사랑과 같은 인간다운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대상일 뿐이므로, 내면을 따른다면 이인화는 귀국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이인화는 신속하게 귀향하라는 가정의 명령을 거절하지 못하고 귀국을 준비하게 된다. 결국 동경에서 구습 가정으로 귀환하는 여로형 서사는 망각하였던 아내의 존재에게로 돌아가 그의 죽음을 대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아내의 존재는 이인화에게 내적 번민을 촉발하게 된다. 이인화는 귀국을 원치 않으면서도 귀국을 서두르는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모순을 자각하게 된다. 그 모순이란 다이쇼 지식인들의 소설에서 토로되고는 하였던 ‘사회적 관습’ 대 ‘내적 충동’을 전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대의 일본 작가들이 가정의 구속에 대항하여 연애의 열정을 맞세웠듯이<sup>152)</sup>, 이인화 또한 아내로 대표되는 구습 가정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연애를 통해 개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구습은 이인화의 내면에 더욱 강한 힘으로 작용한다. 연애 상대에 대한 강한 열정으로 외부의 구속을 가

152) 다이쇼 시기의 사소설에서 다루어지는 주된 테마는 사랑이나 자연이라는 순정한 충동과 사회나 가정의 구속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스즈키 토미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소설 작가 시가 나오야의 작품에서 주인공은 낭만적인 사랑을 통해 가정과 사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鈴木登美, 한일문학연구회 역, 『이야기된 자기』, 생각의 나무, 2004, 179-180면.

시화하였던 일본의 사소설과 달리, 이인화의 문제는 열정 자체가 고갈해 버렸다는 데 있다. 구습은 이인화의 내면을 변형시키고 모순된 장으로 만들어 연애가 불가능한 “정신적 타락”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귀국을 거부하지 못하고 지연하는 이인화의 태도는 관습을 용인하는 마음과 개성을 추구하는 마음 간의 내적 갈등을 대변한다. 이인화는 치르던 시험을 중단하기 위해 대학 교수를 찾아간다. 이때 귀국의 동기를 아내가 아닌 어머니의 병환이라고 거짓말하는 이인화의 행동은 그가 회피하고 싶은 내면을 드러낸다. 그는 내적 충동을 따르지 않는 것이 “허위의 짓”임을 알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이 “도덕적 관념”이므로 따르는 자신의 행동에 수치를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모순에 대면하기를 거부하고, 깎지 않아도 될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에 가고 카페에 들르는 등 도피적 태도를 보인다.

아내가 관습에 따르는 내면을 상징한다면, 두 번째 여성인물인 카페 여급 시즈코는 이인화의 현재 심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시즈코가 이인화의 분신과 같은 존재라는 점은 시즈코에게서 자신과 동질적인 면을 발견하는 이인화의 시선에서 드러난다. 두 인물의 공통점은 절연하고 싶은 과거에 얽매어 있다는 것이다. 이인화가 구습 가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듯이, 시즈코는 과거의 실연(失戀)으로 인해 원치 않는 카페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같은 억압된 내면을 이인화는 시즈코의 외양에서 발견한다.

媛爐압혜 자리를만드러 나를안처노코, 靜子は 저便에가서서, 映彩가 도는 똥그란눈으로, 무엇을 探索하는것가터 내 얼굴을 쪽바로치어다보다가 생긱웃섯다. 이계집의精氣가 모다 그 눈에 모히엇다고도할만하지만 恒常모든것을 警戒하는 눈치가 歷歷하다. 或間은 無心쿠 고개를 돌릴만치 차디차고 매情스럽을때도있다. 그러나 어느때든지 생긱웃는 그 입술에는, 젊은生命이慾求하는 모든것을 아모리하야도 감출수가업섯다. 하면서도 決코 소리를내지 안코웃는 호젓한 微笑에는, 沈靜

과 哀愁의 그림자를 어느때든지 볼수잇섯다. 男性이란 男性을 咀呪하면서도, 그래도, 내버리고 斷念할 수 없는 人間답은 愛着이며 性的要求에서 내려나는 鬱陶한內的苦鬪를, 그대로 象徴한 것이 이계집애의視線과 微笑이엇다. (16-17면)

이인화는 시즈코의 내면에도 모순으로 인한 “울도한 내적 고투”가 자리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지점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시즈코의 내적 모순을 대하는 이인화의 태도이다. 이인화는 시즈코의 약점을 지적하는 비판자의 위치에 선다. 비판 행위가 비판 대상에 대한 우월한 위치를 전제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비판자의 위치에 설 때만큼은 이인화는 시즈코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로 자신을 상상한다고 할 수 있다.<sup>153)</sup> 카페에서 이인화는 시즈코에게 “그릇된 도덕적 관념으로부터 해방되는 거기에 진정한 생활이 있는 것”이라는 이상을 역설한다.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라도 하듯이, 이인화의 어조는 확신에 찬 연설조와도 같다.

그러나 이인화의 자신감은 카페에서 나온 뒤 이어지는 그의 불안한 내적 독백과 대비를 이룬다. 이인화의 내면은 “결박된 자기’를 해방하려는 욕구”와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자기의 약점에 대한 분만(憤懣)과 연민과 변명” 간의 충돌로 점철된다. 자신을 해방하는 진정한 자유의 길은 “세속적으로는 낙오자”가 되는 것이므로 이인화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인화가 자신의 약점을 감춘 후 뒤이어 시즈코를 떠올린다는 점이다. 그가 지적하는 시즈코의 약점은 곧 자신의 것이기도 하다. 그는 시즈코에게서 기존의 도덕을 깨뜨릴 “반역자”의 면모를 보는 동시에, 세속적 욕망에 타협하는 “허영심”을 발견한다. 이는 “진정한 생활”에 뛰어 들 용기가 없는 이인화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같은 유사

---

153) 손정수는 ‘내’가 시즈코(개작 전 N子)를 대하는 태도를 타자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외부의 대상에 대해 절대적인 위치를 점유한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 관념적인 지위로 말미암아 ‘나’는 시즈코를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조롱하는 듯한 태도로 그녀의 의식과 행위를 ‘나’의 시선으로 재단한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같은 이인화의 일방적인 시선이 비판하는 자의 우월한 지위와 맞닿아 있다고 해석한다.  
손정수, 앞의 책, 100면.



성을 고려할 때, 이인화의 비판은 실상 자신에게 가하는 비판이라 볼 수 있다.

비판자로서의 이인화의 입지는 시즈코의 예기치 않는 등장으로 인해 전복된다. 시즈코는 동경역에 나타나 이인화에게 편지와 음식이 든 보자기를 건넨다. 앞서 이인화가 시즈코에게 술을 선물하며 시혜자가 되었다면, 시즈코는 이를 되돌려줌으로써 일방적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 또한 시즈코의 편지는 이인화의 위선을 비판하며, 비판자였던 이인화를 비판받는 자로 위치시킨다. 편지를 읽기 앞서 이인화는 시즈코에 대한 이기심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일시 손을 댔다가, 움칠 수도 없고 내칠 수도 없게 되는 때에는, 그 머릿살 아픈 것을 어떻게 조처를 하나”라고 생각하며, 시즈코를 그저 물질로 환심을 살 수 있는 “외국 계집애”로 간주한다. 이같은 이인화의 심리는 뒤이어 제시되는 시즈코의 편지에 의해 정확히 비판된다.

「只수는 이片紙를 올릴機會가 안인지도모릅니다. 웨그런야 하면, 나는 物質로서 左右되는 賤劣한계집이라고 생각하실 것이, 너무도 창피하고 원통하기 때문이외다. 그러나 그러할수록에……(중략)」

「……웨, 愚弄을하세요? 무슨까답에 弄絡을하세요? P子와 저를 노코 戲弄을 하시는것은 愉快하시겠지요. 그러나 넘어 慘酷하지안습니까. 勿論 당신도, 愛는 遊戲가안이라는것은 아시겠지요.」 (26-27면)

편지를 읽은 후, 비로소 이인화는 시즈코를 유희의 대상으로 대했음을 자각한다. 상대를 동등한 인격이 아닌 쾌락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우롱하고 유희함”과 같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같은 태도는 개성을 추구한다는 이인화의 사상과 모순을 이룬다. 이인화는 이같은 모순을 “사랑이니 무어니 머릿살 아프다”는 말로 회피하지만, 이 문제는 세 번째 여성인물 을라를 통해 다시금 표면화된다.

이인화는 충동적으로 고베에서 내려 과거에 교류하였던 신여성 을라를 찾아간다. 을라는 사랑과 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세속적 질서에 타협한 인물이다. 이는 시즈코에 의해 비판받은 이인화의 모습 중 한 측면을 대표한다. 마치 이인화가 시즈코를 물질로 교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듯이, 을라는 여러 남성과의 자유연애를 통해 금전을 얻는다. 다만, 이인화와 달리, 을라는 물질에 대한 단일한 욕망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적 변민을 보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시즈코가 이인화의 현재를 상징하였듯이, 을라는 이인화가 세속적 질서에 타협하였을 때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을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인화는 비판자의 입장에 선다. 그런데, 앞서 시즈코에 대한 이인화의 비판이 스스로에게 돌아왔듯이, 을라를 비판하는 이인화의 논리는 시즈코가 비판한 이인화의 면모와 일치한다. 을라를 방문하기에 앞서, 이인화는 고베의 한 카페에 들러 과거에 만난 소녀를 찾는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연애로 인해 “폭발탄 정사(情死)”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의 내적 충동을 최대치로 실현한 이 소녀의 맞은편에 위치한 것이 이인화와 을라이다. 표면적으로 이인화는 연애를 유희로 여기는 을라를 비판하고 있지만, 과장된 분노 뒤에는 똑같이 타락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자리한다.

그간의 『만세전』의 해석에서 여성인물들은 배제되거나 단순히 비판의 대상으로만 파악되었다.<sup>154)</sup> 그러나 『만세전』에서 여성 인물들은 단순히 타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남성 지식인 이인화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154) 특히 여성인물 시즈코는 일본인이라는 점에서 『만세전』을 민족의 서사로 보는 해석에서 맹점으로 남았다. 일본인 여급 시즈코는 이인화가 최종적으로 결별해야 할 일본제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해석된 것이다. 탈식민주의적 관점을 채택한 노연숙의 연구에서조차 시즈코는 분열된 식민지민인 이인화를 비추는 제국의 거울로서만 존재한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시즈코의 민족성이 부각되는 것은 해방 이후의 개작본부터일뿐 1920년의 판본에서는 강조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서사에서 시즈코는 일본인으로 타자화되기보다 이인화에 의해 동일시되는 인물에 가까우며, 결말에 이르기까지 서사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해석의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적어도 1920년대의 『만세전』 판본에서 시즈코는 제국과 식민지의 이분법만으로는 파악되기 어려운 인물인 것이다.

노연숙, 「염상섭의 「만세전」 연구: 탈식민주의 시각에서 본 ‘나’의 자리 찾기와 ‘일본인의 표상’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43집, 2008.

분신이라 할 수 있다. 이인화는 여성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회피하고자 했던 내적 모순을 의식하게 된다. 앞서 신여성의 엄중한 비판자였던 염상섭은 『만세전』에 이르러 신여성이 곧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사의 전반부는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서술자의 메타적 시선과 여성인물의 활용을 통해 이인화를 모순된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이로써 독자는 이인화의 심리와 행동을 그대로 신뢰하는 대신, 그 이면의 모순과 회피적인 태도를 상상하게 된다. 인물을 바라보는 이 같은 관점은 비단 전반부에서 그치지 않고, 중·후반부의 독해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물론 서사의 표면을 따라간다면, 중반부부터 이인화는 식민지 조선의 관찰자로 물러서면서 내적 갈등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반부에서 인물에 드러난 균열이 중·후반부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식민지에 대한 이인화의 복잡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된다.

『만세전』의 전반부가 『신생활』에 「묘지」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부분이라면, 중, 후반부는 검열로 인해 중단된 후 『시대일보』에 다시 연재된 부분으로 이인화가 고베를 떠나 시모노세키에서 연락선을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전반부의 공간과 등장인물이 이인화가 접촉하는 여성인물로 한정되어 있다면, 중, 후반부에서는 부산-김천-경성 등 공간이 식민지 조선으로 이동하고, 일본인, 조선인, 혼혈 등 다양한 구성원이 이인화의 눈으로 관찰된다.

이인화가 본 조선 사회는 일제에 의해 도입된 자본주의의 질서가 구성원들을 생존경쟁으로 몰아가는 “무덤”과도 같은 공간이다. 식민 통치는 민족 간의 차이를 우열의 위계로 재편성하여 조선인의 착취를 정당화한다. 가령, 이인화는 조선으로 향하는 연락선 안에서, 일본인 협잡꾼들이 조선인들을 속여 일본의 공장으로 팔아넘긴다는 사실을 엿듣는다. 이때 일본인들의 착취는 조선인들이 열등한 ‘요보’라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같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인물들만이 살아남을 뿐, 대다수의 민중은 도태되어가는 것이 조선의 현실인 것이다. 이같은 대목으로부터

『만세전』의 유력한 한 가지 해석이 등장한다. 귀국 후 민족이 착취당하는 현실을 목도함으로써, 이인화는 식민지의 질서를 비판적으로 보는 주체로 거듭난다는 것이다.<sup>155)</sup>

그럼에도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중·후반부에는 이인화의 모순된 태도를 보여주는 이질적 서술들이 혼재하고 있다. 이인화는 한편으로 조선인이라도 태될 수밖에 없는 사회의 질서를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일제가 유포한 열등성 담론을 승인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다. 식민 지배의 원인을 조선인의 열등성에 귀인하는 입장은 다음 대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理由가잇슬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은事實이다.-朝鮮사람은 外國人에게 對하여 아모것도 보여주지 안엇스나, 다만 날만 새이면, 자리스속에서부터 담배를 피어문다는것, 아침부터 술집이 奔走하다는것, 父母를쳐들거나 내가 네애비니, 내가 내 孫子니 하며 弄지거리로 歲月을 보낸다는것, 겨오입을떼어놓는 어린애가 엇먹는말부터 배운다는 것, 주먹업는 입씨름에 밤을 새이고 이튿날에는 대낮에야 내려난다는것……그대신에 科學的知識이라고는 소당쪽경이 묵어워야 밥이 잘무른다는것도 모른다는것을, 外國 사람에게 實物로教育을하앗다는것이다. 하기때문에 그들이 朝鮮에 오래잇다는것은 그들이 우리를 輕蔑할수잇다는 理由와原因을 만히 蒐集하앗다는 意味맞게 안이되는 것이다. (57면)

위 인용문에서, 이인화는 차별의 원인을 민족의 근본적인 성격에서 찾고 있다. 조선인의 태만함, 무례함, 비과학적 태도 등이 외국인에게 조선인을 “경멸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인화의 이러한 견해가 동 시기 논란이 된 이광수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1922년 5월에 발표된 『민족개조론』에서 이광수는 조선인의 지

---

155) 이재선, 앞의 책.

나치계 현실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 심오한 철학적 탐색이나 세밀한 과학적 탐구를 경시하게 했다고 비판하며 “민족성과 민족생활”의 개조를 주장한다.<sup>156)</sup> 이러한 이광수의 급진적인 주장은 조선인은 열등하므로 식민 통치가 필요하다는 일제가 유포한 열등성 담론을 승인한 것이었으므로 당시 지식인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렇다면, 염상섭의 평론에서 나타난 입장보다 이광수의 입장에 근접해보이는 이같은 서술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이인화의 차별적인 시선은 그가 제국의 시선을 전유하였다는 또 하나의 상반된 해석으로 이어졌다.<sup>157)</sup> 이로써 『만세전』의 해석은 이인화를 민족의식을 자각한 주체로 보는 주장과 제국의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으로 갈라진다. 그러나 이인화의 편견을 곧 작가 염상섭의 한계와 등치시키는 후자의 해석은 작가 자신이 비판한 담론을 서사의 표면에 등장시킨 의도성을 간과하게 만든다. 우선, 서사의 외적 맥락을 참조한다면, 염상섭이 열등성 담론에 비판적 거리를 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작품이 연재된 매체의 성격이다. 『만세전』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묘지」를 연재한 『신생활』은 「민족개조론」에 대한 비판 담론이 전개된 매체였다. 「묘지」 연재가 시작되기 두 달 전부터 『신생활』의 필진들은 이광수가 3·1운동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자본주의와 식민 권력의 조건을 간과하여 그 원인을 민족성의 열등함에 귀속시킨다고 비판하였다.<sup>158)</sup> 이처럼 『만세전』이 연재되었던 매체가 주도한 담론의 성격을 고려할 때, 염상섭이 민족개조론과 유사한 열등성 담론을 서사에 무비판적으로 노출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1910년대에 이미 이광수의 담론을 비판하였던 염상섭이 열등성 담론에도 비판적 거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추론이 보다 합당하다.

156) 정윤재, 「일제강점기 민족생존의 정치사상」, 『동양정치사상사』 4집 1호, 2005, 37-39면.

157) 나병철, 『근대서사와 탈식민주의』, 문예출판사, 2001 ; 서재길, 「『만세전』의 탈식민주의적 읽기를 위한 시론」, 『한국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등.

158) 김현주,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와 그 문화, 문화적 표상: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 문화담론의 수사학」, 『대동문화연구』 64집, 2008.

둘째, 열등성 담론은 일찍이 염상섭이 평론을 통해 피력하였던 입장과 상반된다. 염상섭은 1919년에 발표한 평론에서 이미 조선인을 동등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식민 통치를 비판한 바 있다. 이같은 입장은 조선인의 근본 성격에서 차별의 원인을 찾아내는 열등성 담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sup>159)</sup> 따라서 『만세전』에서 주인공에 의해 언급된 열등성 담론을 작가 염상섭의 인식으로 환원하기란 어렵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서술의 표면적인 내용이 아닌, 해당 서술이 배치된 담론(discourse)의 층위이다.<sup>160)</sup> 서술의 내용만을 따라간다면, 『만세전』은 이인화의 분열된 입장을 그대로 병치시킨 총합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담론의 차원에서 본다면, 민족을 열등하게 보는 이인화의 태도가 ‘아이러니’적으로 배치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중·후반부에는 열등성을 내면화한 이인화의 입장을 드러내는 한편, 우열의 위계를 메타적으로 비평하는 서술이 혼재되어 있다.

사람이란 自己보다 優越하거나 劣等한 사람에게 對할때가 티, 自己의 地位나 處地라는 것을 明瞭히 意識할 時가 업다. 同位同格者끼리는 境遇가 갖기 때문에 서로 共鳴하는 點도 만코 서로 同情할 수도 잇슬 뿐 안이라, 누가 잘난 테를 하고 누가 굽힐 餘地가 업다. 그러치만 優劣이 相隔하면 共鳴이나 同情이라 하는 것보다는 먼저 自己의 地位나 處地에 對한 意識이 압흘 서서 한편에서는 거드름을 빼이면, 한편에서는 고개가 숙으러지고, 저편이 등을 두들이는 酬酌을 하면, 이편은 마음이 여린 사람일 지경 가트면, 惶悚無地해서 긴한 테를 하야보이기도 하고, 自尊心이 긋세인 者면 屈辱을 甞기어서 反感을 품을 것이요, 또 저편이 威壓을 하라는 態度로 나오면

159) 廉尙燮, 앞의 글,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 I』, 소명출판, 2013, 47-50면.

160) 담론(discourse)이란 서사의 내용인 이야기(story)를 전달하는 표현의 형식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행해지는 배치와 선별의 모든 구성 방식이 담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Seymour Chatman,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24-26면.

이편은 씩씩해야 납청쟁이가 되거나, 그러치 안흐면 反抗的 態度로 나오는 것이다. 社會 組織이라든지, 敎育이라든지, 한 層 더 드러가서 사람의 心理가 根本的으로 잘되어 그러튼지 못되어 그러튼지 何如間 사람이란 그리하여 보고 심흔 것이다. (46면)

타인을 열등하게 보는 이인화의 시선은 연락선 삼등칸의 하층민을 볼 때 처음으로 표면화된다. 이인화는 승객들이 한정된 재화를 차지하기 위해 생존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하층 사회의 아귀당”이라고 비난한다. 하층민에 대한 이러한 이인화의 “혐오”는 자신이 부르주아 엘리트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의식에서 기인한다. 이로써 그는 스스로를 하층민과 구별하며, 생존경쟁에서 자유로운 주체로 상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층민에 대한 우월의식은 이인화 또한 생존경쟁에서 열등한 위치임이 폭로되면서 아이러니컬하게 깨어진다. 연락선 안에서 조선인 삼등칸 승객이라는 열등한 위치에 놓인 이인화의 행동은 실상 그가 비판한 하층민들의 그것과 유사해진다. 하층민들이 생존경쟁에 몰두하였듯이, 연락선 내의 위계질서를 의식한 순간 이인화는 생존을 위해 약자의 비굴함을 내면화하게 된다. 이인화의 신체는 일본인 순사 앞에서 “아무 반항할 힘도 없이, 관에 들어가는 소같이” 복종하게 되며, 그의 내면은 “나를 한 손 잡고 내려다보는 나보다 훨씬 나은 양반들”을 끊임없이 의식하게 된다. 이같은 이인화의 태도는 연락선에서 하차하는 순간에 더욱 극명해진다. 일, 이등칸의 승객들이 먼저 내리는 특혜를 받는 것을 보며, 이인화는 자신이 혐오하였던 3등칸의 승객들을 “우리들”이라고 부르며 동일시하는 한편 상등칸의 우월한 위치를 부러워한다. 결국 위계질서를 승인한 채 우월한 위치를 동경하며 생존에 몰두한다는 점에서 이인화와 삼등칸 승객들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연락선에서 내려 부산에 도착한 후에도, 이인화의 태도는 아이러니컬한 질서에 놓여 있다. 부산에 내려, 이인화는 부산의 모습에서 식민지 착취의 현장을 목격하는 한편,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조선인의 민족성에 있

다고 주장한다. 그는 조선인이 도태되는 원인이 일제에 의해 자본주의의 경제질서가 장악되었기 때문임을 간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를 자각하지 못한 대다수 조선인들의 “팔자소관이라는 안가(安價)한 낙천”을 비판한다. 이처럼 조선인에 대한 이인화의 마음은 “패자의 때”에 대한 동정을 보이면서도 그 몰주체성을 비난하는 모순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이인화의 이중적인 태도는 일본인 아버지와 조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여자아이를 통해 아이러니컬하게 폭로된다. 국수집에서 만난 혼혈 여자아이는 조선인이라는 출신성분을 열등성의 표식으로 여기고,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일본인 아버지를 택하고자 한다. 이를 이인화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朝鮮사람어머니에게 길리어자라면서도 朝鮮말보다는 日本말을 하고, 朝鮮옷보다는 日本 옷을 입고, 父子息으로태어났스면서도 朝鮮사람인어머니보다는 日本사람인 아버지를 차저가겠다는것은 父母에對한子息의 情理를超越한 어찌한 利害關係나 一種의추세라는 打算이 압홀스기 때문에 離別한지가 벌써 七八年이나된다는 애비를 定處도 없이 차자나스라는것이라고 생각할제, 이 계집애의 八字가 가엿슨것보다도 그 에미가 한층 더 가엿다고 생각지안을 수업섯다. (58면)

혼혈 여자아이에 대한 이인화의 비판은 앞서 그가 민족에 대한 편견을 노출한 뒤에 제시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를 발생시킨다. 이인화는 혼혈 여자아이가 “이해관계나 일종의 추세라는 타산”으로 민족성을 저버리는 것을 비판하지만, 실상 그 역시도 열등한 민족성이 식민통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본 점에서 혼혈 여자아이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조선을 자신을 종속하는 과거로 보는 여자아이를 보며, 이인화는 문득 시즈코를 떠올린다. 앞서, 시즈코가 이인화의 거울상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인화는 혼혈 여자아이를 통해 민족을 동정하는 동시에 혐오하는 자신의 모순된 심정을 비추어본다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는 서사 진행 상 부차적인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김천역에서 이인화는 자신과 형님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본인 사무원을 보고 “순사나 헌병이라도 조선인보다는 일본인 편이 나은 때가 많다”고 생각한다. 열등한 처지에 있는 자들일수록 자신과 동일한 상대에게 더 큰 증오심을 품으므로, 조선 순사가 같은 조선인에게 더욱 혹독하게 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장면에서 이인화의 생각은 정반대의 결과에 직면한다. 이인화를 친절하게 대하였던 일본인 사무원은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조선인 역부에게는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때 “사무원의 살기가 등등한 뚱뚱한 얼굴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는 이인화의 반응에서, 이전 장면에 언급된 이인화의 인식과 현실이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반부의 서사는 등장인물 이인화가 내면화하였던 우, 열의 위계질서가 아이러니컬하게 전복되는 사건들을 통해, 서술자로서의 이인화가 과거 자신의 인식에서 모순을 발견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중반부의 서사에서 이인화가 아이러니를 통해 자신의 내적 모순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고려한다면, 『만세전』의 결말은 전반부의 서사에서 “자기 마음을 살짝 덮어두”며 스스로의 모순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인화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반부와 결말의 연속성은 전반부 서사의 주된 축이었던 세 여성인물이 결말에서 다시 언급되는 구조에서 드러난다. 이인화의 여로는 서울의 구습 가정에 도착하여 아내의 임종을 맞으면서 종결되며, 시즈코의 두 번째 편지가 이인화에게 전송된다. 세 번째 인물이었던 고베의 올라 역시 서울에 귀국하여 이인화와 재회한다. 이러한 여성인물들의 귀환은 전반부에 제시되었던 이인화의 내적 모순을 환기하며, 기존의 위계질서를 승인하는 타율적인 삶과 스스로 세운 주관에 따르는 자율적인 삶 간의 선택을 종용한다. 이에 대한 이인화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즈코의 편지에 대한 이인화의 답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인화는 시즈코에게 편지를 쓰기 전, 올라와 그에게 학비를 제공하는 친척 병화의 방문을 받는다. 학비와 애정을 교환하는 올라와 병화의 모습은 이인화가 마찬가지로 시즈코에게 학비를 제공하였을 때 마주하게

될 미래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인화는 올라와 병화가 지닌 내적 모순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전례를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 이인화의 시각에서, 올라와 병화는 이미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타인을 수단화하지만, 타인을 돕고 있다는 시혜자의 입장에 도취되어 있어 내면의 모순을 성찰하지 못하는 인물인 것이다.

올라와 병화의 길으로부터 단절하여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려는 이인화의 노력은 서사의 결말에서 인용되는 시즈코에 대한 그의 답장에서 뚜렷하게 표명된다. 이인화는 시즈코와의 관계를 “간섭이나 소유”가 수반되는 위계 구도가 아니라, 개인이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며 상호부조하는 문화주의의 이상과 접속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사랑이란 것은 干涉이나 所有에잇는것이 안인것을 당신은 아시겠지요. 彼此의 生活을 干涉하고 그 出部에 들어가서 密接한 關係를 맺는것이 사랑의極致가안인것은 더 말할 것업습니다. 한 사랑의 相對者를 全然히所有하지안으면 滿足할수업다는것도 사랑의 絶頂은못되는 것이외다. 비록 絶頂이라할지라도 사랑의理想은 아니외다. 나는 늘 主張하는것이지만 그 사람의幸福을 眞純한마음으로 祈祝하는 것만이 眞正한 사랑이외다.」(106면)

이인화가 시즈코에게 이상을 언표하는 결말은 서사의 서두와 연결 지을 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앞서 동경에서 이인화는 시즈코를 유학생과 카페 여급이라는 위계 구도를 전제로 대하였다. 그러나 위 편지에서 이인화는 시즈코를 평등한 존재로 소환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같은 변화는 이인화가 타인을 물질적 수단으로 대하는 올라와 병화의 전철을 밟지 않고, 개인이 각자의 내적 이상을 추구하는 문화주의적 가치를 선택하였음을 보여준다.

결국, 『만세전』의 서사는 이인화가 균열된 자신을 관찰한 후 이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스스로를 아이러니컬하게 관찰하는 균열된 자기 서사는 결말에 이인화의 태도 변화와 연

결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인화의 이상은 균열된 자신을 대면하는 과정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성립된다. 마치 염상섭이 평론에서 개성의 자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외부 현실과 스스로에 대한 환멸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듯이, 이인화 또한 자기 환멸과 반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문화주의적 이상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 4.2. 지식인의 내적 모순을 비판하는 장편소설의 아이러니

「만세전」이 작가와 동일시된 남성 지식인의 단일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1인칭 소설이었다면, 대상독자가 넓은 신문매체에 연재된 본격적인 장편소설은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가 여러 인물들의 심리와 행동을 조망하는 형식의 서사이다. 특히 변화의 분기점이 되는 장편소설인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이하 『너희들은』)<sup>161</sup>)는 「만세전」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묘지」가 검열로 인해 중단된 후 창작된 장편소설이다. 「만세전」이 서사의 초점을 한명의 인물에 한정하는 초기 단편의 형식에 가까운 반면, 『너희들은』은 전지적 시점을 취하여 여러 인물의 내면을 제시하는 이후 본격적으로 창작되는 장편소설의 형식을 선취한다.

이 절에서는 형식 및 주제 상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줌에도 비교적 선행 연구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장편 소설 『너희들은』을 아이러니적 기법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앞서 분석된 「만세전」의 아이러니와 『너희들은』의 그것은 효과 및 주제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만세전」의 아이러니가 1인칭 시점과 결합하여 서술자로 하여금 과거의 자신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취하게 하는 장치였다면, 『너희들은』의 아이러니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지닌 모순된 내면을 폭로하는 효과를 유도한다.

『너희들은』은 1923년 8월 27일에서 1924년 2월 5일까지 『동아일

---

161) 염상섭,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 『동아일보』, 1923.8.27.-1924.2.5. 이후 작품의 인용은 연재 횟수만 본문에 표기한다.

보』에 연재된 장편 소설이다. 앞서 같은 지면에 연재된 『해바라기』를 중편으로 보고 1922년에 연재가 중단되어 1924년에야 완결된 『만세전』을 제외한다면, 이 소설은 염상섭의 첫 장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너희들은』은 염상섭의 다른 장편에 비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데, 주로 지적되는 것은 주제의 가벼움과 구성상의 미숙함이다. 즉, 서사의 주제가 지식인 남성들과 기생, 신여성들의 연애사건이며 명확한 중심 없이 사건이 병렬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설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sup>162)</sup>

한편, 『너희들은』을 염상섭의 리얼리즘적 성취로 포섭하려는 연구들은 소설의 주제의식이 근대를 왜곡해서 수용하는 당대 지식인들의 실상을 비판하는 데 있다고 본다. 즉, 염상섭은 부르주아 지식인 계층의 타락상을 폭로함으로써 시대의 리얼리티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해석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은 “돈의 노예”<sup>163)</sup>, “피상적인 모방욕망의 수행자”<sup>164)</sup> 등 악덕으로 설명되었으며, 특히 신여성이 악덕을 체현하는 인물로 지목되었다. 가령, 김윤식은 염상섭이 여성인물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신여성 혐오를 노출한다는 견해를 보였으며<sup>165)</sup>, 이보영은 이 소설의 중심 인물인 마리아를 “타산적 색정적 신여성”으로 간주하며 연애 상대인 명수의 이상적 사랑을 좌절시키는 인물로 파악하였다.<sup>166)</sup>

그러나 『너희들은』의 신여성 인물에서 악덕만을 읽어내는 것은 서사에서 내면의 모순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염상섭의 의도를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 『너희들은』의 신여성 인물은 단순히 세속적인 욕망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욕과 물질욕을 충족하려는 욕구와 개성을 실현하고자

162) 이같은 평가는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서술방식의 측면에서는 박상준, 최시한 등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시한, 「염상섭 소설의 전개-서술자의 객관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강어문』 2집, 1982 ; 박상준, 「너희들은 무엇을 어딴느냐-론-작품의 내적 특질과 소설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51집, 1995.

163) 이현식, 「식민지적 근대성과 민족문학」, 문학과사상연구회,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깊은샘, 1998, 103-104면.

164) 김경수, 「염상섭의 독서체험과 초기소설의 구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 1997, 82면.

165) 김윤식, 앞의 책.

166) 이보영, 앞의 책.

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충동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신여성들은 돈과 사랑 중 돈을 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보영의 지적대로 세속적인 욕망을 지니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들은 남성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랑의 문제에 번민하는 인물들이다. 즉, 작가의 의도는 신여성의 존재 자체를 비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여성을 활용하여 돈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면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같은 염상섭의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신여성 마리아이다. 다른 신여성 인물들처럼 마리아 역시 돈과 사랑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는다. 마리아는 돈많은 석태에 끌린다는 점에서 『제야』의 정인과 같은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첫사랑에 실패한 과거가 있다는 점에서 『해바라기』의 영희와 닮은 인물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돈과 유학을 포기하고 명수에게 진정한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두 여성인물들과 다른 선택을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서사의 결말에서 마리아와 명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마리아는 약혼자 석태와 사랑 없는 결혼을 하게 된다. 이 시점에 마리아는 석태에게 조혼한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는 이미 미두로 인해 파산한 상태이므로, 이 결말을 마리아가 사랑보다 돈을 택한 것으로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서술자가 거듭 강조하는 사랑의 이상에 근접하여가는 인물인 마리아가 결말에 이르러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너희들은』을 상, 중, 하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상편의 서사가 정신적 자유에 대한 지향과 물질에 대한 이기심이 충돌하는 인물의 모순된 내면을 폭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중·하편부터는 인물 간의 연애 사건이 중심 플롯이 된다. 특히 전반부에는 부각되지 않았던 명수와 마리아의 연애가 돌연 서사의 중심이 되는 후반부가 면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상, 중, 하편으로 이루어진 장편소설인 『너희들은』은 상편에서는 덕순이 주최한 잡지 <탈각> 모임에서 남성 지식인과 신여성들이 나누는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반해 중, 하편부터 남성인물들과 기생, 신여성 인물들 간의 연애 사건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이중 마리아와 명수의

사랑은 하편에 등장할 뿐이지만 소설의 결말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해석의 핵심이 된다. 이처럼 『너희들은』은 상, 중, 하편의 이질성과 다양한 인물들로 인해 일견 산만한 구성을 보이지만, 그 원인을 단순히 연재 중의 돌발사건<sup>167)</sup>이라는 외부적 요인에서 찾는다면 이같은 구성을 취하게 된 서사 내적 필연성을 발견할 수 없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 서사의 구조가 내면의 가변성으로 인해 빚어지는 아이러니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신여성 마리아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특징은 ‘가변성’이다. 마리아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선교사 미스 브라운의 지도 아래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지만, 절제, 금욕과 같은 기독교의 덕목 대신 열정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임이 드러난다. 마리아의 변화하는 열정은 연애사건을 통해 극대화된다. 마리아는 부호인 석태와 연애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관에서 만난 소년과 사랑에 빠진 적이 있다.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마리아의 심리는 “격렬한 변동”으로 설명된다.

스물 네 살이나 된 그때의 마리아에게 대하여서는 이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남자이었고 또한 처음 당하는 경험이었다. 이때까지 청춘의 모든 욕구를 절제(節制)라는 미덕으로 누를 만치 눌러 왔스나 우연한 기회로 자괴 압해 내던져준 한 개의 남성은 그 절제력을 인사々정 업시 생키어 버렸다-마리아의 생활에는 이때부터 격렬한 변동이 생기었다. (68회)

“절제라는 미덕”에 억압되었던 마리아의 열정은 첫사랑을 계기로 급격히 표출된다. 서술자는 마리아의 “정열”과 “생명력”이 “이성에게 대한 열렬한 동경”으로 변하여 “아모리 굿세인 절제라도 깨트리고야 말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처럼 사랑의 열정은 인간의 생명력을 발현시키는 강한

---

167) 장두영은 『너희들은』에 일관된 스토리라인이 부재한 원인을 연재 과정상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에서 찾는다. 실제 인물을 모델로 소설을 연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물들이 작가를 찾아와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염상섭은 최초의 기획에서 벗어나 중편부터 이질적인 스토리를 전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장두영, 앞의 글.

힘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마리아의 열정은 급격히 그 힘을 상실한다. “그립은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이 반갑고 사랑스러웠”던 마리아의 마음은 “모든 것이 평범”해진 상태로 돌아가며, 상대가 재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의식하자 마리아는 “용모나 테격이나 의복 입은 풍채까지 아모리 보아도 궁핍이 끼어 보이는 것이 좀 정떠러”진다고 느낀다. 이러한 변화는 마리아의 열정이 생활을 바꿀 정도의 강한 힘이지만, 지속성이 짧고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마리아가 드러내는 마음의 가변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등장인물이 공유하는 특질이다. 인물들은 진정한 사랑을 회구하지만, 처한 상황에 따라 언제든 가치를 배반할 수 있음이 암시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돈과 사랑에 대한 인물들의 이중적인 태도이다. 잡지 <탈각>을 경영하는 덕순은 돈 많은 응화와 사랑없는 결혼을 하지만, 3.1운동 이후 자유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자아의 해방을 꿈꾸는 인물이다. 덕순은 자신의 결단으로 가정의 속박에서 벗어난 노라와 B여사를 흠모하며, 자신도 일본 유학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자아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대화에서 드러나는 덕순의 모습은 사랑이라는 이상과 돈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습이다. 덕순의 딜레마는 이상을 추구하여 “자기를 살리는 것”과 “자기를 죽이고라도 아유구용하야서 성공”하는 것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덕순은 외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살리는 길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성공을 하려면 “어쩔 수 업시 가면두 쓰고 비밀이라는 것도 업슬 수 업”다는 변명을 한다. 이러한 대목에서 덕순이 현실논리를 승인함으로써 자신이 표명한 신념을 행위 원칙으로 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각>의 모임에 참여한 젊은 연인 한규와 경애 역시 오스카 와일드의 『모범 백만장자』<sup>168)</sup>를 읽고 돈과 사랑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두 사람은 돈보다 사랑을 높이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한다. 한규는 “돈으로 살 수가 업는 사랑과 돈에 파라 먹을 수 잇는 사랑”을 구분하며, 돈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랑의 가치를 피력한 바 있다. 또한 경애 역

---

168) 이보영, 앞의 책.

시 “사랑보다는 돈이 맛이 잇다면?”하는 한규의 물음에 “그런 건 사랑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결혼이 될 리가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서술자는 이들이 언표한 이상이 내면의 또 다른 목소리와 충돌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경애는 돈에 사랑을 파는 것은 “기생이나 갈보” 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밥을 굶고 맛붓들고 안저서도 뜨거운 키스를 할 수 잇고 굿세인 포옹을 할 수 잇슬가?」하는 문제는 살짝 덮어 둔다.” 이 대목은 경애조차 자각하지 못한 심리이지만, 서술자는 전지적인 시점에서 이를 지적하며 돈과 사랑 사이에서 방황하는 경애의 이중적인 내면을 드러낸다.

이같은 이중심리는 인물이 가치를 의식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이상을 저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한다. ‘가변성’이라는 내적 특질은 신문기자 중환에 의해서 비판된다. 중환의 논지가 염상섭의 논설과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환을 작가의 분신으로 본 해석은 타당하다.<sup>169)</sup> 중환은 이상과 행동 사이의 괴리를 폭로하는 역할을 하면서, ‘가변성’에 ‘충실성’이라는 미덕을 맞세운다.

「하니까 우리는 위선 우리끼리 심판을 해야할 것이란 말이야. (중략) 내 생각이타야서는 신(神)의 존재라는 것을 애를 써서 인정치 안을 필요도 업지만 엇더한 진리를 붓든 사람에게 대하야 그 진리는 곳 그 사람에게 대하야 신(神) 그것이거나 신의 면영(面影)이요 자기가 붓든 진리에 충실하게 하는 생활이 곳 신의 뜻에 맞는 생활이라 할 수 잇다고 생각하는 터이지만 만일 이것이 정당한 생각이라 하고 또 우리가 천만인이 즐겨하고 천만인을 행복스럽게 하고 천만인을 사랑으로 붓들어 매이게 할 만한 진리를 붓든다 하면 그 진리에 비쳐서 우리가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은 반듯이 하누님의 뜻을 웬 누리에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잇다고 나는 밋소. 엇더튼 우리의 생활을 위선(僞善)에서 구원하여야할 것이요 가면(假面)을

169) 중환을 작가의 분신으로 해석하는 연구자는 김윤식, 신영덕, 류양선, 김경수, 박상준, 이덕화, 장두영 등이 있다.



자기부터 벗고 나스는 것맞게 스스로 구하는 방도도 업고 또  
그리 하는 것이 우리의 심판이라는 것이겠지.....」(24회)

(강조 인용자)

긴 대사로 처리되는 중환의 설교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진리를 스스로 세울 것. 둘째, “자기가 붓든 진리에 충실”할 것. 우선, “진리를 붓든 사람에게 대하여 그 진리는 곧 그 사람에게 대하여 신 그것이거나 신의 면영”이라는 중환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염상섭의 글 「지상선을 위하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염상섭은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 막스 슈티르너(Max Stirner)를 인용하며, 신이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통념을 뒤집고, 신은 오직 “자기를 완성하려는 욕구”만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본다. 신조차 자신만을 위하므로 인간은 마땅히 자신을 중심에 두고 진리를 추구해야한다는 것이다.<sup>170)</sup> 작중인물 중환 역시 스스로 설정한 진리가 곧 “신 그것이거나 신의 면영”이라고 하며, 자율적 진리에서 출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중환의 설교는 주체가 진리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그 진리를 적극적으로 따르려는 ‘충실성’이다. 이 미덕이 강조되는 까닭은 앞서 인물들이 자신이 설정한 이상을 언표하면서도 그 원칙을 따르지 못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중환은 이상을 스스로 배반하는 ‘위선’에서 벗어나 “그 진리에 비쳐서 우리가 우리를 심판”해야한다고 역설한다. 즉, ‘충실성’이란 일회적으로 이상을 언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 순간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정한 원칙에 따라 비판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다. 서사 전체에서 중환이 중시하는 덕목은 “의지”, 춘향이와 같은 “정열이라든지 근기” 등으로 변주되지만, 결국 그 내용은 자신이 정한 원칙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심판하고 행동하라는 명령이다.

자신이 설정한 이상에 충실하지 못한 등장인물들의 가변적인 내면을 서술자는 아이러니를 통해 폭로한다. 덕순은 남편 응화와 일본으로 떠나기

---

170) 염상섭, 앞의 글, 『신생활』 7호, 1922.7.

전 <탈각>에 참여한 필진들을 집으로 초대한다.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 장면에서 유학과 남성 지식인들과 신여성들은 토론을 통해 도덕과 사랑에 대한 자신들의 이상을 공유한다. 그러나 장황한 대화에 비해, 인물들의 심리와 행동은 서술자의 아이러니컬한 시선으로 전달된다. 가령,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함으로써 자유연애사상을 고취한 일본 B여사에 대한 열띤 토론이 끝난 후, 마리아와 한규는 풍금과 바이올린으로 서양음악을 연주한다. 그러나 서술자는 두 사람의 연주가 조화되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는 상황을 묘사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리 찬성을 아니하던 한규는 곡조를 니저 버렸든지 반계곡경으로 마리아의 풍금에 쏘쳐가는 모양이나 매우 서투렀다. 한규는 처음부터 못하겠다는 것이 일종의 수치 갖하여서 그럭저럭 끌려서 시작을 하였다가 확실히 자기가 실패하였다고 깨다른 때에는 다시는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업섯다. 중도에 그만둔다 할 수도 업고 진땀만 붓적 ~ 난다. 한규는 고개를 기우리고 「쑈」를 여전히 놀리면서도 아즉도 마음이 잡히지 안은 모양이다. 얼굴이 점々 빨개졌다. 손이 떨리었다. 그러나 그리할수록 곡조는 독창덕으로 되었다. (중략)

「풍금은 엇더케 치시는지 모르겠소이다만 최선생의 바요링은 확실히 탄복하옵습니다」라 하고 [중환이는] 다시 도라서서 사진을 치어다보았다. 마리아와 덩옥이는 눈쌀을 찌푸리는 듯하며 우섯다. 그러나 경애와 한규는 중환이의 말이 넘어 턴연하기 때문에 진담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업섯다. (28회)

일본 유학생 한규는 오스카 와일드를 읽고 이상적 연애를 꿈꾸고 자유사상에 대한 덕순의 천박한 이해를 비웃는 등 서구 문물에 밝은 청년이다. 그러나 정작 위 장면에서 한규가 보여주는 서툰 연주 실력은 그가

흡수한 지식이 피상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사실을 아이러니컬하게 폭로한다. 이 아이러니를 심화시키는 것은 뒤따르는 중환의 냉소적인 반응이다. 중환은 “최선생의 바요링은 확실히 탄복하셨습니다”라고 하며 한국의 지식이 겉꾸밈에 불과하다는 것을 조롱하고 있다.

이어지는 식사 장면에서도 서구에서 흡수한 이상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는 인물들의 이중성이 아이러니컬하게 드러난다. 서양식으로 꾸민 가정에서 식사를 하기 전 덕순의 남편 응화는 엄숙하게 기도를 올린다. 다른 인물들과 달리 응화는 구세대에 속하지만,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가정에서도 “누구의 방이든지 서양식으로 똑똑 두둑이고 나서 드러오라는 말이 잇서야 열고 드러가는 규측을 세”우는 등 서구지향을 공유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응화는 <탈각>으로 대표되는 신세대의 사상을 “극단”이라고 비난하는 등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이같은 응화의 이중성은 중환의 돌발적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응화가 기도를 올리고 모두가 눈을 감은 동안, 중환은 몰래 손을 뻗어 복숭아를 먹으며 “이 사람들은 지금 내게 제사를 지낸다. 그러기에 내가 먹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웃는다. 중환이 복숭아 먹는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지면서 응화가 형성한 진지한 분위기는 일순간 깨지며, 엄숙함을 가장하던 응화는 “젓가락을 들며 분개한 듯이 험상스럽게 눈을 뜨고 꺾눈으로 중환이를 훑터”본다. 이처럼 중환의 돌발행동에 의해 응화의 기도가 겉으로 드러나는 엄숙함과 달리 내적 깊이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폭로된다.

아이러니는 장면 차원뿐만 아니라 서사 전체의 구조에도 작용하고 있다. <탈각>의 모임을 중심 사건으로 하는 상편의 서사는 사건의 진행보다 등장인물들의 이상을 전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특히 한국, 중환, 명수 등 지식인 남성들은 “근더도 업시 해방해방하며” 일어나는 자유연애 풍조를 비판하며 “남녀간의 교양”이 뒷받침된 “성적 혁명”을 역설한다. 그러나 상편의 말미에서 덕순의 집에서 나와 남성인물들이 향하는 곳은 기생이 나오는 요릿집이다. 신여성의 집에서는 이상적 연애를 설파하고 요릿집에서는 기생의 “육감적”인 자태에 시선을 빼앗기는 남성들의

이중적 태도를 중환은 “기생 보라 요리사집에 오거나 너학생 보라 레베 당에 단이거나 심리작용은 가튼 것”이라고 조롱한다. 즉, 지식인들이 겉으로는 신념을 따르는 체하지만 실상은 욕구를 채우려는 동기로 움직이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상편에서 돈으로 교환불가능한 사랑을 주장하던 덕순, 마리아, 한규가 하편에서 자신의 가치와 상반된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도 전체 서사가 아이러니컬한 구조에 놓여 있음을 입증한다. 아이러니는 인물들이 자신들이 동일시한 외부 텍스트를 스스로 뒤집는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상편에서 언급되듯이, 덕순은 B여사 사건에 대해 “감격한 듯이 비평”한 『B여사의 고민』이라는 글을 자신의 잡지 <탈각>에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B여사 사건이란 1921년 신여성 야나기하라 바쿠렌이 젊은 애인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남편에게 이혼장을 보내고 행방불명된 실제 사건을 말한다. 덕순은 돈을 위해 나이 많은 옹화와 사랑없는 결혼을 한 자신과 B여사를 동일시한다. 그러나 이 동일시가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피상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덕순의 행동에서 드러난다. 덕순의 일본 행에는 옹화가 최종 목적지인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다른 후원자를 찾아 도피성 유학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 남편과 절연한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B여사와 덕순의 행동은 유사하지만, B여사가 금전에서 벗어나 개성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떠났다면 덕순은 연애의 형식으로 물질적 욕망을 채우려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중편에 삽입된 덕순의 연애편지는 낭만성 아래 감추어진 허위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나는 지금 새로운 출발덤에 섰습니다. 공장의 기덕소리가 치 단조한 학교생활과 그 후에 곳 계속된 음울하고 랭々한 가덩생활에서 벗어나서 인제는 새 생활에 향하여 떠나갓다는 이째올시다. 만일 이것이 정말 그러타 할 지경이면 지금 나의 가슴 속에는 당연히 타올르는 희망과 쫓업는 기대와 새벽에 주막을 튀어 나오는 나그네와 가튼 용기가 잇서야 할 것 임니다. 아름다운 쏘에 싸이어 영원을 바라보고 잇슬 것이외

다. 새로운 청춘이 거듭 차저올 것이외다. 그러나 희망보다는  
구슬픈 생각부터 압홀 스고 기대보다는 까닭모를 공포(恐怖)  
가 덜미를 잡는 것 갓습니다. 이게 무슨 까닭일까요? (53회)  
중환은 십여 장이나 되는 편지를 말끔히 본 뒤에 입을 씨쭈  
하며 잠간 안젓다가

「넘어 로골덕인데.....」 하며 명수를 치어다보았다. (중략)

「일본 가 안저서 일본말 선생을 조선으로 주문을 한다! 이  
것은 시대 착오가 아니라 련애착각(戀愛錯覺)이로군.....라군  
이 아니 가면 내라두 가지! 하々々」 (54회)

직접인용된 편지에서 덕순은 B여사와 같이 가정을 떠나 새로운 생활로  
나아가는 기대와 두려움을 고양된 어조로 토로하며, 이후 두 번째로 보  
낸 편지에서는 “노라와 가튼 극단의 리지덕 개인주의보다는 B녀사의 예  
술적 련애생활”(301)을 찬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염상섭의 초기 단편에서  
대개 편지가 진실된 내면을 고백하는 매체였던데 반해, 덕순의 편지는  
표면적인 내용과 다른 의도를 숨겨두고 있다. 즉, 덕순의 편지는 언표된  
이상과 달리 실상 명수를 유혹하기 위해 씌어진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편지가 수신인인 명수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에게도 노출되면서 아이러  
니컬하게 드러난다. 명수는 덕순의 편지를 중환과 마리아에게 보여줌으  
로써 둘만의 배타적인 소통을 전제로 하는 편지의 규약을 깨뜨리며, 중  
환과 마리아는 편지의 본 의도를 간파한다. 특히 중환은 명수가 일본에  
와주기를 바라는 덕순의 의도를 읽어내고 이를 “련애착각”이라고 비판한  
다.

자신이 동일시한 텍스트를 스스로 뒤집는 것은 경애와 한규도 마찬가지  
다. 상편에서 경애와 한규가 토론을 벌이는 텍스트인 오스카 와일드의  
『모범 백만장자』 171)는 돈으로 환원할 수 없는 사랑의 가치를 강조하는  
소설이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가 업는 사랑”을 강조하는 소설과 대조  
적으로 경애와 한규의 연애는 하편에서 파국을 맞이한다. 일본에서 의지

---

171) Oscar Wilde, 정영목 역, 『오스카 와일드 작품선』, 민음사, 2009.

할 사람을 찾던 덕순이 한규와 경애의 연애에 끼어들면서, 덕순과 한규는 함께 미국 유학을 가는 계산 하에 경애를 속이고 잠적한 것이다. 사랑의 가치를 믿는 자에게 돈의 제약은 중요하지 않다는 『모범 백만장자』의 주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등장인물들의 행동은 사랑이 욕욕과 돈이라는 세속적 가치에 밀려나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상편에 배치된 텍스트와 인물들의 이상은 하편에서 뒤집어진다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이같은 아이러니컬한 질서 속에 중편부터 시작되는 명수와 기생도홍, 신여성 마리아의 연애사건이 놓여 있다.

상편에서 드러난 ‘가변성’과 ‘충실성’의 대립은 중·하편에서는 인물 간의 연애사건으로 구체화된다. 중편의 중심사건은 기생도홍-명수-중환의 삼각관계이며, 하편은 신여성 마리아-명수-석태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전자가 도홍과 남성인물이 벌이는 한편의 희극처럼 묘사된다면, 후자는 마리아와 명수의 내면이 편지를 통해 전달되면서 상대적으로 진지하고 비극적인 정조를 띤다. 이처럼 두 사건은 분위기와 서술방식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도홍과 마리아의 핵심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는 점, 사랑이 실패에 이르는 원인이 같다는 점에서 동일한 주제의 두 가지 변주라 볼 수 있다.

도홍은 기생 신분이므로 서사 상에서 신여성 마리아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없다. 석태에 의해 명수가 기생집에 다닌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마리아는 “그런 텔 다니십니까”하고 반문한다.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서사 내에서 기생과 신여성의 세계는 단절되어 있다. 그러나 도홍과 마리아는 ‘가변성’이라는 특성을 공유한다. 다만, 신여성인 마리아의 열정이 주로 심리묘사로 제시된다면, 기생인 도홍은 이를 행동으로 보이는 인물이다. 명수가 도홍을 “<쩍씨-타입>의 <스핑쓰>가튼 여자”라고 느끼는 대목은 도홍이 중환과 명수 모두에게 호감을 보이는 가변적인 열정의 소유자임을 암시한다. 도홍의 열정은 주변 인물들에게까지 전염된다. 도홍에게 호감을 느낀 순간 명수는 “초조하고 안심이 아니 된다는 것처럼 가슴속이 어수선”해지며 그의 “불길 가튼 시선은 어느 때까지 도홍이의 전신에서 헤매”이게 된다.

도홍의 열정은 명수와 중환의 내면에 성적인 끌림을 유발하지만, 한편으로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도홍의 집에 남자가 온 것에 대해 도홍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님이 와서 쫓아버렸다고 해명하지만, 명수는 “허지만 아모리 생각을 해 봐두 그애가 그것말을 곱잘 하는게야”라고 의심한다. 이후 도홍에 대한 명수의 감정은 의심으로 점철된다. 도홍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명수는 도홍의 의도를 간파할 수 없는 것이다.

명수는 머리속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주마등가치 써올러 왔다. 위선 도홍이가 이 집에는 방이 업느냐고 탁 트리노코 하는 수작을 보면 결코 중환이를 깊게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혹은 술이 취하여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케 생각하면 중환이더러 자고 가도 조타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잇섯다. 취중에 본심이 탄로된 것이라고 해석도 할 수 잇고 또는 취한 바람에 정신업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잇다. (63회)

도홍의 행동은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명수의 내면에 의심과 번민을 일으킨다. 석태가 중재하여 도홍에게 마음이 끌리는 상대를 묻자, 도홍의 대답은 예상을 빗나간다. 도홍은 “누가 더 힘이 세실지 어느 분에게 더 끌려갈지는 나두 모를 일애요”라고 답한다. 도홍은 중환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중환의 사랑을 받아줄 결심을 하면서도, 명수의 집에 재산이 있냐고 떠보며 명수와 결합할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즉, 도홍의 열정은 스스로도 알지 못할 정도로 쉽게 변하며 예측불가능한 것이다. 이로써 서사 중반부의 쟁점은 도홍이 중환과 명수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로 집중된다.

유동적인 도홍의 마음이 고정되는 계기는 남성 인물들이 꾸민 연극이다. 중환은 “연극 일판을 한번 꾸미”자고 하며 새로운 기생 명화를 매수하여 “련애의 사각관계”를 연출한다. 예정대로 명수가 명화와 짝을 짓자

도홍은 질투와 소외감을 느끼며 중환에게로 간다. 허구로 연출된 연극 안에서 도홍, 중환, 명수의 감정은 극대화되고 서사의 긴장은 정점에 이른다. 연극은 다음날 아침 도홍의 집 마루에서 깨어난 중환이 안방에서 명수와 도홍이 나란히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명수의 승리로 끝난다.

도홍의 열정이 명수에게 고정되는 계기가 허구적인 연극이라는 점은 열정의 가변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한다. 남성 인물들이 알고자 했던 것은 도홍의 “진심”이었으나, 유동하는 마음에 진심이라는 본질은 존재할 수 없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연극이라는 허구에서 빠져나왔을 때 도홍과 명수의 연애가 지속성을 잃는다는 점이다. 도홍과 연애를 시작하자 명수는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양복을 갖춰 입고 도홍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명수는 일본인 상점에 취직을 하여 돈을 번통한다. 일본인 주인에게 돈을 부탁하는 명수의 행동은 상편에서 제시된 “결벽이 유난한 것”, “솔직한 것”이라는 명수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같은 행동을 서술자는 “명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도홍이가 명수의 혀(굽)스밋홀 붓들고 놀린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허구에서 빠져나왔을 때, 명수가 도홍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세운 자율적인 원칙을 끊임없이 배반해야하는 것이다. 이처럼 도홍의 사랑은 허구적으로 연출된 연극 내에서만 지속되며, 연극에서 빠져나와 현실원리로 복귀할 때 사랑은 언제나 돈으로 매수될 위기에 처한다. 여기서 도홍의 진심은 오히려 허구 안에서만 확인가능하다는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중환과 명수 사이에서 갈등하였던 도홍과 같이, 마리아 역시 석태와 명수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 하편의 도입부에서 마리아의 심리를 설명하는 것은 그의 머리에 거둬해서 떠오르는 첫사랑 남자의 편지 내용이다. 그는 “분을 바르십시오. 금반지를 끼십시오. 금시계를 차십시오. 거기에 당신의 생명이 숨어 있스리다!”라는 구절로 마리아의 변심을 조롱하며, 돈과 사랑 사이에서 언제나 변할 수 있는 마리아의 본성을 폭로한다. 그러나 도홍과 마리아의 차이는 도홍이 변화를 겪지 않는 평면적인



인물인 것과 반대로, 마리아는 변덕스러운 내면에서 진실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도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명수의 연애도 파국을 맞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인물들의 독서 체험이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실현되었듯이, 마리아와 명수의 연애도 작중에서 그들이 감상을 나누는 아리시마 다케오의 소설 『선언』<sup>172)</sup>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선언』은 아리시마 다케오가 기독교 배교 이후 자신의 자아관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씌어진 소설로, Y코와 A, B 사이에서 일어난 연애사건을 A와 B가 주고 받는 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중 서사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여성인물 Y코가 보이는 심경의 변화이다. 표면적으로 Y코가 겪는 갈등은 약혼자 A가 부재한 시기 A의 친구인 B를 사랑하게 된 데 있다. 그러나 편지에서 Y코가 고백하는 내적 갈등의 원인은 독실한 기독교도였던 그녀가 성에 눈뜨면서 느끼게 된 죄의식이다. 결국 B의 도움을 통해, Y코는 교회와 가정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내면에 충실한 삶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된다.

표면적으로 마리아와 명수의 사랑은 『선언』과 유사한 설정을 따르고 있다. 『선언』에서 B가 폐병에 걸렸듯이 명수는 하편부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있으며, 교회의 억압에 고통받는 Y코처럼 마리아는 늘 드나들던 선교학교의 문을 “감옥문”과 같이 여기며 “교회에는 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회의한다. 인물의 설정 뿐만 아니라 플롯의 기본 틀 역시 유사하다. Y코가 약혼자 A의 친구인 B를 사랑하게 되듯이, 마리아 역시 이미 석태와 약혼한 상태이지만 석태의 친구인 명수를 사랑하게 된다. 이처럼 『선언』은 단순히 인물들의 내적 변화를 암시하는 일회적 장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편의 플롯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핵심적인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두 텍스트가 보여주는 설정의 유사성으로 인해, 『너희들은』과 『선언』의 영향관계를 다루는 연구는 작중인물 마리아와 Y코를 동일시하여 분석하였다. 두 인물의 서사는 거의 일치하지만 자아의 각성에 도달하는

---

172) 有島武郎, 『宣言』(1915), 岩波書店, 1989.

Y코와 달리 마리아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단지 식민지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73)</sup> 그러나 표면적인 유사성만을 따라가는 이같은 독법은 작가가 의도한 함정에 빠지는 것과 다름없다. 마리아와 명수가 『선언』의 주인공들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독자의 잠정적 기대와는 달리, 실제 서사는 정확히 『선언』을 배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텍스트의 표면과 심층의 의도가 다름을 끊임없이 환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리아와 명수의 서사는 『선언』을 형식적 측면과 주제적 측면 모두에서 전복하고 있다. 서간체 소설인 『선언』은 편지가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투명하게 전달한다는 규약 속에서 전개된다. 독자들은 편지 내용이 인물의 진실한 고백이라는 전제 하에, 사건의 표면적인 양상보다 인물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하며 서사를 읽어나가는 것이다. 반면, 『너희들은』에서 편지는 앞서 덕순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끊임없이 배후의 다른 의도가 의심되는 매체이다. 따라서 마리아와 명수의 편지에서 표면적인 내용만을 따라간다면 전체 서사를 지배하는 아이러니를 파악하지 못한 것과 같다. 가령, 마리아가 스스로의 처지를 『선언』의 Y코와 동일시하는 대목을 보자.

만일 우리가 그 소설에 나오는 인물과 가튼 길을 밟지 않을 수 업슬 처디에 잇는 것을 분명히 깨다랏다 할 디경이면 피차에 아모 말 업시 그대로 살짝 덤허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겠지요 Y라는 녀자가 약혼한 A라는 남자를 버리고 B에게로 가지 안흐면 아니 된 것과 가튼 비극을 나도 면할 수 업게 된다 하면 어찌케 할까요 그러한 운명을 거역할 수 업게 된다면 어찌케 할가요? (중략)

그러나 선생님! 아모리 한 남자에게 일생을 바치마고 허락한 일이 어렵고 소중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스러지고 저편의 인격을 의심하게 되고 자기의 량심이 허락지 안흐면 엇덕합니까. 자기를 속이고 일생을 망치드라도 그 소위 신의

---

173) 류리수, 앞의 글.

를 직히고 그 소위 도덕을 직혀야 하겠습니까? 자기의 광심을 속이는 것부터 죄가 아닐까요? 선생님! 분명히 대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데삼자로서 공평하게 판단을 나리소서. (105 회)

마리아는 Y의 처지에 자신을 빚대어 약혼자 석태를 버리고 명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수에게 설득하고 있다. 즉, Y코가 오직 B와의 사랑을 택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했듯이, 마리아도 석태와의 약혼과 미국 유학 모두를 버리고 명수를 선택하겠다는 의향을 비친 것이다. 앞서 마리아가 『선언』에 대해 “약혼한 계집애가 A를 버리고 가튼 페스병쟁이의 B에게로 간 것은 그 둥기가 좀 박약하고 심리를 알 수가 업”다고 평가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편지에서 마리아의 내면은 큰 전환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술자는 마리아의 내적 전환이 어떤 계기에서 촉발되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하편의 서두에서 마리아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과 달리, 마리아의 회심이 이루어진 후부터 마리아의 내면은 묘사되지 않으며 명수의 시점에서 마리아의 편지를 통해서만 그녀의 변화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이로써 독자들은 편지에 드러난 마리아의 극화된 목소리가 자신의 이상에 대한 충실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언젠가 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그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서사는 마리아의 편지가 발신인의 의도대로 읽히는 것을 교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가령, 명수는 편지를 읽고 “선생님의 말씀 한 마디만 듯고 십”다는 마리아의 호소에 응답하는 대신, 마리아가 소설 『선언』에 과도한 동일시를 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비록 똑가튼 성격과 똑가튼 처디와 똑가튼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똑가튼 환경(環境)과 관계에 노혀 잇드라도-다시 말하면 지금의 우리가 당신이 넘어 보신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업다 하기로서니 우리도 그와 가튼 운명의 지

배를 빗게 되리라고는 도저히 상々할 수 없을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그워 그와 가치 되고야 말 것이니 자진하여서 그 소설의 인물들을 모방하고 그 소설을 희곡화(戲曲化)하여 우리의 실제생활로써 아조 연극을 실연하자고 하시는 말이라고 해석할 디경이면 그것은 자기라는 것을 작난감으로 알고 인생이란 것을 유희로 아는 어리스광대의 심심푸리겟지요. 그러한 일은 처음으로 문학에나 소설에 취미를 부친 사람에게 흔히 보는 현상이지만 그에서 더한 자기 모욕이 업겠지요. (107회)

명수의 해석이 덧붙여짐으로써, 마리아의 편지는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다. 마리아의 편지 내용을 근거로 언표된 그대로 마리아의 진심을 신뢰하는 해석이 그 하나라면, 명수의 비판에 의거하여 마리아가 자신의 주관을 세우는 대신 소설을 모방하는 “유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만들어내는 긴장은 결말에 이를 때까지 해소되지 않는다. 마리아의 심리가 실제로 어떠한지 제시되지 않은 채로 마리아의 편지는 명수에게 전달되며, 명수는 마리아의 진심을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을 오간다. 명수는 한편으로 “인제 정말 사랑다운 사랑을 경험하는가 보다”고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스스로 언표한 이상을 저버린 덕순, 도홍 등의 여성인물들과 마리아를 동일시하며 마리아 또한 돈과 유학에 언제든 타협할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한편, 마리아의 편지는 명수 역시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내면의 가변성을 노출하고 있음을 폭로한다. 명수는 마리아의 편지를 읽고 “공상과 추측으로만 머리속에서 그려 보든 문제가 인제는 분명한 목전의 문대로 자기의 태도와 결심을 기다리고 잇게 된 것을 깨다랐다.” 그러나 명수는 결단을 내리는 대신 원론적인 입장에서 마리아의 태도를 비판할 뿐 선택을 끊임없이 지연시킨다. 감정에 호소하는 마리아의 편지와 대조적으로 명수의 답장은 자못 “교훈덕”이다. 명수는 “종교와 재산과 련애라는 세 갈대스길” 중 연애가 마리아의 결단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리 해야라 이리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은 나의 주의가 허락지 않는 것”이라고 선택을 회피한다. 즉, 마리아는 자신의 문제에 명수를 끌어들이려는 반면, 명수는 외부자의 입장에 머무르기를 고집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명수의 입장을 “발 빠지는 수작”이라고 표현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비난한다. 마리아의 시각에서 명수의 편지를 독해할 때, 인생을 유희로 생각한다는 명수의 비난은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굵은 사람더러 과식의 폐해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마리아의 답장은 명수의 편지에서 교훈적 어조 뒤에 선택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있음을 지적한다. 마치 명수가 마리아의 편지로부터 이면의 의도를 읽어내려 했듯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명수의 편지 또한 표면과 다른 의도를 지닌 텍스트인 것이다.

결국, 마리아와 명수의 편지는 발신인의 의도와 편지의 내용이 일치한다고 믿는 해석과 불일치한다고 가정하는 두 가지 해석을 동시에 내포한다. 후자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마리아와 명수의 연애와 동시에 진행되는 다른 인물들의 서사이다. 하편이 마리아와 명수의 연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덕순과 한규, 홍진의 연애사건은 주된 사건이 아닌 배경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들이 만들어내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은 마리아와 명수의 상황과 유사성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마리아와 명수의 서사마저 아이러니적으로 독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환기한다.

가령, 마리아가 약혼자 석태와 교회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명수의 “구원”을 바랐듯이, 덕순은 남편 응화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한규와 명수를 유혹한다. 여기서 마리아의 편지가 앞서 제시된 덕순의 편지와 유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덕순이 남편 응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명수에게 “나는 지금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하며 “선생님! 선생님! 엇더케 할까요?”라고 명수의 구원을 바랐듯이, 마리아 역시 “세갈네사길 한복판”에서 “선생님께 나의 구주가 되어 줍시사고 애원”한다. 그런데 하편에서 폭로되는 것은 덕순이 편지에서 표명한 이상이 결

국 허위였으며, 덕순의 욕망이 유학과 육욕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덕순의 파탄과 마리아의 서사가 병렬적으로 배치됨으로써 마리아의 사례 또한 아이러니컬한 질서에 놓이게 된다.

한편, 덕순을 향한 중환의 욕망은 마리아에 대한 명수의 욕망을 연상시킨다. 덕순은 집으로부터 쫓겨나와 오갈 데 없게 된 상태에 놓인다. 중환은 독립된 생활 대신 후원자를 바라는 덕순의 타율적인 태도를 “뒤스길을 두라는 모양이나 넘어도 약은 수작”이라고 비판한다. 이처럼 중환은 교훈적인 태도로 덕순을 훈계하나, 정작 덕순이 자신의 말을 따르자 다음과 같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소리를 들은 홍진이는 자기의 말이 이러케도 힘잇는 것이 깃브고 또 잘되엿다고도 생각하얏스나 한편으로는 겁이 더러 나기도 하고 이 뒤스일이 어찌케 될는지 애가 씨우지 안을 것도 아니다. 인제는 두수 업시 의심을 바들 것이요 짜라서 분에 겨운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할 시기가 정말 도라온 것 가타얏다. 그 대신에 이 녀자에게 대한 애착심은 붓적 머리를 드는 것을 놀날 만치 분명히 깨다랏다. (116회)

홍진은 한편으로 덕순에게 “자기의 말이 이러케도 힘잇는 것”을 기뻐하지만, 정작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회피한다. 즉, 덕순과 결합하고자 하는 “애착심”이 있지만, 덕순의 운명을 자신이 감당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덕순과 중환의 서사는 두 인물이 앞서 연애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사 전개상 돌발적인 부분이지만, 이 대목이 명수와 마리아의 장면이 제시된 직후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치 중환이 덕순에게 충고의 말을 건네지만 그 말의 효력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듯이, 명수의 교훈적 태도의 이면에 마리아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회피적 심리가 자리할 가능성이 암시되는 것이다. 이처럼 서술자는 덕순을 육체적으로 욕망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홍진의 심리를 위와 같이 서술하며 마리아에 대한 명수의 심리를 일종의 아이러

니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후 마리아와 명수의 사랑은 마리아가 석태와의 결혼을 암시하는 편지를 보냄으로써 파국을 맞이한다. 마리아는 “모든 것이 제 죄”라고 하며, 죄를 대속하는 심정으로 석태와의 결혼식을 택하였다고 고백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결혼을 택하게 된 마리아의 내적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편지는 마리아가 내린 선택의 결과만을 전달할 뿐 마리아가 유학과 결혼, 연애 사이에서 왜 결혼을 택하였는지 뚜렷한 내적 원인을 제시하지 않으며, 명수의 반응 역시 그의 내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관찰된 행동으로만 전달된다.<sup>174)</sup> 이로써 독자는 마리아와 명수의 심리가 어디까지 진실이었는지 왜 이같은 결말을 맞이하였는지 스스로 해석의 빈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다. 결국, 마리아와 명수의 서사를 진실된 사랑이 좌절된 것으로 볼 것인지 혹은 서사 전체를 지배하는 아이러니를 통해 언표된 것 이면의 의도를 추측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독자의 몫으로 남는 것이다.

결말의 해석을 열어둠으로써 염상섭은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의 표면과 이면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한다. 『너희들은』이 구성 상의 산만함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해석적 자원을 숨겨둔 텍스트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만일 독자들이 명수와 마리아의 서사에서 『선언』의 등장 인물들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마치 작중의 마리아가 그랬듯이 독자들조차 『선언』의 인물과 마리아를 과도하게 동일시하고 있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전적으로 명수의 말을 믿는다면, 명수가 선택을 끊임없이 회피하면서도 마리아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이중적 태도

---

174) 박상준은 『너희들은』의 ‘산만한 구성’을 비판하는 근거로 ‘인물 행동의 동기가 불분명함’을 든다. 그러나 이 비판은 두 가지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첫째, 이 소설의 주제인 내면의 가변성은 명확한 동기를 추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작중 인물의 동기가 불분명한 것은 작가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작가가 형상화하는 내면 자체가 불분명함을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하편에서 마리아와 명수의 내적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것은 독자의 다양한 해석을 위해 작가가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가령 앞서 덕순의 사례에서 덕순의 욕망은 비교적 뚜렷하게 제시되는데 반해, 마리아의 내면에 대한 단서는 편지를 제외하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인물 행동의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서사의 결함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성이 적극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박상준, 「생활과 심리의 대위법」, 『1920년대 문학과 염상섭』, 역락, 2000.

를 설명할 수 없다. 이처럼 서로 엇갈리는 서술을 병치함으로써 염상섭은 독자가 사태를 단일한 시선이 아니라 이면의 진실이 충돌하는 아이러니적 상황에 노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간의 해석에서 배제되어온 제목 ‘너희들은 무엇을 어뎅느냐’의 함의는 이 서사의 성격을 단적으로 대변한다. 이 제목은 ‘너희들’이라는 불특정 다수의 청자에게 ‘무엇을 어뎅느냐’라는 막연한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여러 갈래의 해석을 가능케 한다. 만일 ‘너희들’을 등장인물들이라 가정한다면, 가변적인 내면으로 스스로 설정한 가치를 배반하는 인물들이 실질적으로 성취한 이상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에게 끊임없이 능동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이 서사의 특성에 비추어본다면, 소설의 청자인 ‘너희들’이 얻은 것은 다름 아닌 사태의 이면을 파악하는 아이러니컬한 시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에서 아이러니를 통해 형상화하고자 하였던 ‘내면의 모순을 지닌 인간형’은 이후 염상섭이 인물을 창작하는 주된 경향으로 자리잡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기에 창작된 『삼대』 175)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복합적인 성격이다. 『삼대』의 등장인물들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가를 수 없는 다양한 면모를 보인다는 점은 『삼대』를 고평하는 근거인 동시에 해석상의 난제가 되어왔다. 가령, 가문의 중심인물 조덕기는 필순의 학비를 지원하는 조력자의 입장에 서지만, 사회주의자 김병화에 의해 그가 계몽의 미명 하에 흥경애를 농락한 부친 조상훈의 욕망을 따를 위협성을 경고받는다. 또한 흥경애는 조상훈의 재력을 물질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욕망을 갖지만 조상훈의 권위에 환멸을 경험한 이후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면모를 보여준다.

또한 『너희들은』의 결말과 마찬가지로, 『삼대』의 경우에도 염상섭은 미해결의 결말을 통해, 독자의 적극적인 해석을 유도한다. 서사 상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종결되는 『삼대』의 결말은 계몽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광수 소설의 결말과 대조된다. 이처럼 여러 등장인물의 내적 모순이 일으키는 여러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

175) 염상섭, 『염상섭전집4』, 민음사, 1987.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염상섭의 소설은 인간의 모순된 내면을 형상화하는 새로운 리얼리티를 획득하고 있다.

## 5. 결론

본고는 1920년대 초기 염상섭 문학에서 ‘개인’이 어떻게 사유되었는가를 밝히기 위해, 염상섭의 평론과 소설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논의는 염상섭의 전반기 문학에 나타난 ‘개인’이 민족의 현실을 외면한 채 관념적인 현실에 머무른다고 평가하거나, 주관의 과잉이라는 낭만주의적 특성을 과대평가해왔다. 그러나 여타 동인지 세대들과 달리, 염상섭의 사상에서는 ‘환멸’, ‘비관’, ‘성찰’과 같은 반성적 인식작용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염상섭의 자아 담론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층위를 간과함으로써 염상섭이 구상한 자아의 차별점을 부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이같은 특성이 ‘개인’에 대한 염상섭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음을 밝힘으로써, 염상섭의 초기 작품을 식민지 조선에 필요한 ‘개인’의 모습을 성찰하는 서사로 재독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2장에서는 염상섭의 평론에 드러난 ‘개인’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1920년대 문화주의 담론의 영향으로, 염상섭은 ‘개인’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본능을 실현하는 존재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선형적 자아 개념이 3.1운동 이후의 현실과 충돌하는 것을 목격한다. 특히, 물질적 이익을 위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종속을 택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염상섭은 개인의 종속을 초래하는 원인이 외부적 제약뿐만 아니라 기존의 권위에 복종하는 내면에 있음에 주목한다. 그 해결책으로서, 염상섭은 개인이 ‘현실폭로의 비애’를 통해 구습으로 인해 굳어진 고정관념을 반성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회복해야한다고 촉구하였다.

3장에서는 염상섭의 초기 단편을 두 계열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하나가 작가와 동일시된 남성 지식인의 서사라면, 다른 하나는 타자인 신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이다. 남성 지식인은 문화주의의 가치를 담지하는 주체로 설정된다면, 신여성은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지만 언젠든 물질적 수단을 타인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존재로 표상된다. 이같은 주체의 성격에서 드러난 차이로 인해, 두 계열의 서사를 통해 염상섭이 제시하는 ‘개인’의 모습은 각각 다르게 서사화된다. 「표본실의 청개고리」

와 「암야」에서 주동인물인 지식인 남성은 외부 사회의 구속과 단절하여 내면의 정신적 가치를 지키려는 지향을 보인다. 이러한 인물형을 통해, 염상섭은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배타적인 소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두 번째 계열의 서사에서 염상섭은 신여성 인물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물질적 욕망에 대해서 고찰한다. 염상섭에게 신여성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할 가능성을 지녔지만 언제든지 주어진 자유를 잘못된 방향으로 추구할 수 있는 존재였다. 「제야」와 『해바라기』에서 신여성은 타인의 금전으로 얻어진 욕망의 무제한적 향유를 자유로 오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구축한 자기서사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염상섭은 물질적 조건을 타인에게 의탁하는 행위가 오히려 종속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폭로한다.

4장에서는 염상섭이 ‘개인’을 내적 모순을 가진 존재로 사유함에 따라, 인물을 형상화하는 방식이 ‘아이러니’ 기법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장편소설 『만세전』과 『너희들은 무엇을 어딴느냐』는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의 모순된 내면을 아이러니로 포착한 작품이다. 『만세전』은 지식인 이인화가 과거의 자신을 아이러니컬한 시선으로 회고함으로써,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를 발견하는 균열된 자기서사이다. 『만세전』에서 아이러니의 대상이 1인칭 주인공 한 사람이었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어딴느냐』에서 그 대상은 여러 지식인 인물로 확장된다. 정신적 가치를 회구하면서도 물질적 욕망에 이끌리는 지식인 인물들은 전지적 서술자에 의해 비판된다. 이로써, 염상섭의 장편소설은 내적 모순을 지닌 인간형을 비판하는 고유한 미학적 형상화 방식을 정립하게 된다.

염상섭은 초기 평론과 소설을 통해, 일본 유학 시절 수용한 ‘개인’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켜 나갔다. 염상섭은 문화주의 사상을 통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의 본성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귀국 후 물질적 이익 다툼으로 변질한 국내 문화운동을 대면하고 ‘자기반성이 가능한 자율적 주체’의 모습을 역설하게 된다. 본고는 이같은 염상섭의

문제의식을 미학적 형상화 방식과 결부시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염상섭 문학에서 나아가 1920년대 조선에서 구상된 개인의 모습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개벽』, 『기독교청년』, 『동명』, 『동아일보』, 『매일신보』, 『삼광』, 『신생활』, 『신태양』, 『여자계』, 『조선일보』, 『청춘』, 『폐허』, 『학지광』, 『현대』

『太陽』, 『早稻田文學』, 『國家學會雜誌』

염상섭, 『萬歲前』, 고려공사, 1924.

\_\_\_\_\_, 『牽牛花』, 박문서관, 1924.

\_\_\_\_\_, 『염상섭전집』, 민음사, 1987.

\_\_\_\_\_,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 I·III, 소명출판, 2013.

김동인, 『김동인전집』 16, 조선일보사, 1988.

### 2. 국내논저

강민기, 「조선물산공진회와 일본화의 공적(公的) 전시」, 『한국근현대 미술사학』 16, 2006.

강인숙, 『자연주의 문학론: 불일한 삼국의 대비연구』, 고려원, 1987.

권보드래, 「3.1운동과 개조의 후예들」, 『민족문화사연구』 58, 2015.

\_\_\_\_\_, 「미래로의 도약, 3.1운동 속 직접성의 형식」, 『한국학연구』 33, 2014.

\_\_\_\_\_, 「영혼, 생명, 우주-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의 충격과 ‘죽음’의 극복」, 『개념과 소통』 7, 2011.

\_\_\_\_\_, 「진화론의 갱생, 인류의 탄생-1910년대의 인식론적 전환과 3.1운동」, 『대동문화연구』 66, 2009.

- 권영민, 「염상섭의 민족문학론과 그 성격」, 권영민 편, 『염상섭 문학 연구』, 민음사, 1987.
- \_\_\_\_\_, 『한국현대문학사1』, 민음사, 2002.
- 권철호, 「『만세전』과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적 정치미학」, 『민족문학사연구』 52, 2013.
- 김경수, 「염상섭의 독서체험과 초기소설의 구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 1997.
- \_\_\_\_\_, 「염상섭의 초기 소설과 개성론과 연애론-암야와 제야를 중심으로」, 『어문학』 77, 2002.
- \_\_\_\_\_,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1999.
- 김복순, 『1910년대 한국문학과 근대성』, 소명출판, 1999.
-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4.
- 김종균, 「염상섭 연구 성과와 과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2001.
- \_\_\_\_\_, 『염상섭연구』, 고려대출판부, 1974.
- 김한식, 「이야기의 논리와 재현의 패러다임」, 『프랑스어문교육』 34, 2010.
- 김현경, 「근대교육의 확산과 유학의 제도화」, 『사회와 역사』 70, 2006.
- 김현주,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와 그 문화, 문화적 표상: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 문화담론의 수사학」, 『대동문화연구』 64, 2008.
- \_\_\_\_\_, 『사회의 발견』, 소명출판, 2013.
- 나병철, 『근대서사와 탈식민주의』, 문예출판사, 2001.
- 노연숙, 「염상섭의 「만세전」 연구: 탈식민주의 시각에서 본 ‘나’의 자리 찾기와 ‘일본인의 표상’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43, 2008.
- 류리수, 「아리시마 다케오의 『선언』과 염상섭의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신여성의 자아각성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57-2, 2003.
- 박명규, 「1920년대 ‘사회’ 인식과 개인주의」, 김경일·박명규 외 편,

- 『한국사회사상사연구』, 나남출판, 2003.
- \_\_\_\_\_, 「근대 사회과학 개념구성의 역사성: 한말 국가-사회-개인의 상호연관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34, 2003.
- \_\_\_\_\_, 「한말 사회개념의 수용과 그 의미 체계」, 『사회와역사』 59, 2001.
- 박상준,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 론-작품의 내적 특질과 소설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51, 1995.
- \_\_\_\_\_, 「생활과 심리의 대위법」, 『1920년대 문학과 염상섭』, 역락, 2000.
- 박정희, 「『만세전』 개작의 의미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31, 2010.
-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역사비평사, 1992.
- 박현호, 「염상섭과 ‘조선문인회」」, 『한국문학연구』 43, 2012.
- 박현수, 「『묘지』에서 『만세전』으로의 개작과 그 의미」, 『상허학보』 19, 2007.
- \_\_\_\_\_, 「동일시와 차별화의 지식 체계, 문화 그리고 문학」, 『상허학보』 12, 2004.
- \_\_\_\_\_, 「염상섭의 초기 소설과 문화주의」, 『상허학보』 5, 2000.
- 상허학회, 『1920년대 동인지 문학과 근대성』, 깊은샘, 2000.
- 서영채, 「사랑의 리얼리즘과 장인적 주체: 염상섭」,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 서재길, 「『만세전』의 탈식민주의적 읽기를 위한 시론」, 『한국근대문학학』 1, 소명출판, 2003
- 손유경, 「『개벽』의 신칸트주의 수용 양상 연구」, 『철학사상』 20, 2005.
- \_\_\_\_\_, 「1910년대 이광수 소설의 개인과 인류」, 『프로문학의 감성 구조』, 소명출판, 2012.
- \_\_\_\_\_, 「값싼 동정의 신화」,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 \_\_\_\_\_, 「최근 프로 문학 연구의 전개 양상과 그 전망」, 『상허학보』 19, 2007.
- 손정수, 「「묘지」와 「만세전」의 거리」, 『텍스트의 경계』, 태학사, 2002.
- 신인섭, 「교양개념의 변용을 통해 본 일본 근대문학의 전개 양상 연구」, 『일본어문학』 23, 2004.
- 양문규, 「근대성·리얼리즘, 민족문화적 연구로의 도정」, 문학과사상연구회,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깊은샘, 1998.
- 오문석, 「1차대전 이후 개조론의 문학사적 의미」, 『인문학연구』 46, 2013.
- 우정권, 『한국 근대 고백소설의 형성과 서사양식』, 소명출판, 2004.
- 유선영, 「식민지의 ‘문화’주의, 변용과 사후」, 『대동문화연구』 86, 2014.
- 유승환, 「1920년대 초반 비평에 나타나는 ‘사실성’ 개념의 전개 양상」, 『춘원연구학보』 7, 2014.
- \_\_\_\_\_, 「김동인 문학의 리얼리티 재고」, 『한국현대문학연구』 22, 2007.
- 윤해동·천정환·허수·황병주·이용기·윤대석 엮음, 『근대를 다시 읽는다 1·2』, 역사비평사, 2006.
- 이경수, 「1910~20년대 재일본 조선유학생 친목회지에 나타난 신여성 담론: 「학지광」과 「여자계」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1, 2009.
- 이보영, 「오스카 와일드문학의 수용과 그 한국적 변용」, 이보영 외, 『한국문학과 외국문학』, 규장각, 1998.
- \_\_\_\_\_, 『난세의 문학』, 예지각, 1991.
- 이은지, 「1920년대 오상순의 예술론과 이상적 공동체상」, 『상허학보』 43, 2015.
- 이재선, 「일제의 검열과 「만세전」의 개작」, 『문학사상』 84, 1979.11.
- 이종호, 「염상섭 문학과 사상의 장소-초기 단행본 발간과 그 맥락을 중



- 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6, 2014.
- 이철호, 『영혼의 계보』, 창비, 2013.
- \_\_\_\_\_,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종교적 자아 담론: 영, 생명, 신인 담론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이태숙, 「염상섭의 1920년대 연애소설과 2세대 유학생」, 『근대의 수정구슬』, 소명출판, 2016.
- 이행미, 『염상섭 초기소설에 나타난 생명의식의 변모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현식, 「식민지적 근대성과 민족문학」, 문학과사상연구회, 『염상섭문학의 재인식』, 깊은샘, 1998.
- 이혜령, 「소시민, 레드콤플렉스의 양각」, 한기형·이혜령 편, 『저수하의 시간, 염상섭을 읽다』, 소명출판, 2014.
- 임병권, 「고백을 통해 본 내면성의 정착과 주체의 형성-현상윤과 양건식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 임정아,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와 '종속으로부터의 자유' 비교」, 『범한철학』 64집, 2012.
-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 장두영, 「염상섭의 『만세전』에 나타난 '개성'과 '생활'의 의미-아리시마 다케오의 『아낌없이 사랑은 빼앗는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34, 2011.
- \_\_\_\_\_, 「염상섭의 모델소설 창작 방법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4, 2011.
- \_\_\_\_\_, 『염상섭 소설의 서사 시학과 현실 인식의 관련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 장문석, 「전통 지식과 사회주의의 접변」, 한기형·이혜령 편, 『저수하의 시간, 염상섭을 읽다』, 소명출판, 2014.
- 장인성, 「유길준에 나타난 '도덕'과 '정치'-자기-타자인식의 정치적 사유」, 『국제문제연구』 23,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1999.

- 정명환, 「염상섭과 줄라」, 권영민 편, 『염상섭 문학연구』, 민음사, 1987.
- 정미량, 「1920년대 제일조선유학생의 자유주의적 문화운동론 연구-『학지광』의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74, 2007.
- 정윤재, 「일제강점기 민족생존의 정치사상」, 『동양정치사상사』 4-1, 2005.
- 조경란, 「사회진화론 수용의 비교사적 검토: 중국에서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극복」, 『역사비평』 26, 1994.
- 조남현, 「서술방법의 변모과정」, 김종균 편, 『염상섭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 조연현, 『한국 현대문학사 개론』, 정음사, 1964.
- 최시한, 「염상섭 소설의 전개」, 김종균 편, 『염상섭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 \_\_\_\_\_, 「염상섭 소설의 전개-서술자의 객관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강어문』 2, 1982.
- 최인숙, 「염상섭 문학에 나타난 ‘노라’와 그 의미」, 『한국학연구』 25, 2011.
- 최주한, 「개조론과 근대적 개인-1920년대 초반 <개벽>지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2-4, 2004.
- 최태원, 「<묘지>와 <만세전>의 거리-“묘지”와 “신석현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27, 2001.
-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나무, 2000.
- 최호영, 「야나기 무네토시의 생명사상과 1920년대 초기 한국시의 공동체 문제」, 『일본비평』 11, 2014.
- 한기형, 「『개벽』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근대문학의 사상화」, 『상허학보』 17, 2006.
- \_\_\_\_\_,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 수용과 탈식민적 태도-잡지 『삼광』에 실린 염상섭 자료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43, 2003.
- 한승옥, 「염상섭연구의 변증법적 전개」, 김종균 편, 『염상섭소설연

- 구』, 국학자료원, 1999.
- \_\_\_\_\_, 「염상섭연구의 변증법적 전개」, 김종균 편, 『염상섭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 허수, 「러셀 사상의 수용과 「개벽」의 사회개조론 형성」, 『역사문제연구』 21, 2009.
- 홍선영, 「1920년대 일본 문화주의의 조선 수용과 그 파장」, 『일어일문학연구』 55, 2005.

### 3. 국외논저

- 九野收·鶴見俊輔, 심원섭 역, 『일본 근대 사상사』, 문학과지성사, 1994.
- 稻毛詛風, 『オイケンの哲學』, 大同館, 1914.
- \_\_\_\_\_, 이범일 역술, 『어이켄 哲學』, 조선도서, 1921.
- 鈴木登美, 한일문학연구회 역, 『이야기된 자기』, 생각의 나무, 2004.
- 柳父章, 『번역어의 성립』, 마음산책, 2011.
- 成田龍一, 이규수 역, 『다이쇼 데모크라시』, 어문학사, 2011.
- 有島武郎, 『宣言』, 岩波書店, 1989.
- \_\_\_\_\_, 「다시 태어나는 고통」, 유은경 역, 『돌에 짓눌린 잡초』, 소화, 2006.
- 倉數茂, 한태준 역, 『나 자신이고자 하는 충동』, 갈무리, 2015.
- Abbott, H. Potter, 우찬제·이소연·박상익·공성수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 Chatman, Seymour,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 Eucken, Rudolf, 사회과학연구회 역, 『인생의 의의와 가치』, 신조문화사, 1963.
- Hunt, Lynn, 전진성 역, 『인권의 발명』, 들베개, 2009.
- Muecke, D.C, 문상득 역, 『아이러니』,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 Ricoeur, Paul, 「서술적 정체성」, Genette, Gérard 외, 석경정 외 역, 『현대 서술 이론의 흐름』, 솔, 1997.

Wilde, Oscar, 정영목 역, 『오스카 와일드 작품선』, 민음사, 2009.

Williams, Raymond, 『키워드』, 민음사, 2010.

## **Abstract**

# A Study of Discourse on the 'Individual' as found in the Early Works of Yom Sang-seop

Kim Yoon-ju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d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identifies how the 'individual' is used in the early critical and literary works of Yom Sang-seop(1897-1963), and as result of examining this concept, intends to show the new ways in which identity was formed in the 1920s. When Yom started his literary career in the 1920s, the modern understanding of the 'individual' arrived in colonial Joseon by way of Japan. As a university student in Japan, Yom utilized the trend of 'culturalism', which placed importance on the individual's spiritual value, to establish his concept of the 'individual.'

The second chapter will analyze the process of Yom creating his concept of the 'individual' in his critical work published before his creative literary career began in earnest. In criticism written before his return to Joseon from studying in Japan, he conspicuously states that the basis for his position on the individual is established in the context of 'culturalism.' Yom Sang-seop's critical writings of this

period show culturalism's main view of humanity as one which realizes each individual's inner personality under the assumption of a dicotomy of mind and matter. After returning to Joseon, Yom's concept of the 'individual' changed from one founded in culturalism to one understood through the 'grief of disillusion.' Differing from his fellows at 'P'yehö' who emphasized the unmediated union of the self and nature, Yom put importance on the process of reflecting on identity. By putting the emphasis on the 'grief of disillusion' undergone during an individual's recovery of autonomy after heteronomously accepting an outside authority, Yom Sang-seop stresses self-reflection through formulating knowledge of identity oneself.

Chapter three analyzes Yom's early novels. If Yom's critical work is understood to have qualified the meaning 'individual' as an autonomous subject capable of self-reflection, then his novels narrativize the process of his characters attempting to reach an ideal of the individual. His early short stories separate into two affiliations of central characters, male intellectuals and New Women. In the narrative of the male intellectual, intellectual characters form interindividual exclusive small christian communities, reject the rampant materialism of society, and show intellectual inclinations to preserve spiritual value. On the other hand, the narrative of the New Woman warns that an individual's autonomy may not be able to be preserved when the individual's manifestation of the self corrupts to a material relationship of exchange. Through the failure of New Women, Yom Sang-seop criticizes characters who confuse individual rights with the pursuit of material desires.

Chapter four looks at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reasons behind the 'individual' through the form of full-length novels by close

analysis of Yom's early novels 'Before the Hurrah' and 'What Have You Gained.' The intellectual characters of his novels are created as beings with two coexisting conflicting core natures; one which attempts to realize their individuality and the other which is in pursuit of material gains. In order to express the internal contradictions of these characters, Yom adopts a narrative technique of 'irony.' By analyzing the existence of ironic set-ups in 'Before the Hurrah', this narrative can be re-read as a process of the narrator conducting a self-examination of the contradictory mentality and actions of his past self. Arriving at the newspaper serialized novel 'What Have You Gained', as the subject of criticism is expanded to include multiple intellectual characters. By ironically showing the characters in conflict between spiritual value and material desire as represented by the 'ideal of free love', Yom the lack of self-reflection in the intellectual characters.

The early work of Yom Sang-seop holds significance in how it seeks to understand how the people of colonial Joseon will arrive at the ideal 'individual.' He starts with the dichotomy of mind and matter found in the values of 'culturalism' and establishes the 'autonomous subject capable of self-reflection.' This process criticizes the internal contradictions of intellectuals who emphasize spiritual value while also being driven by material desires. Through a narrative style that fully exposes its characters inner contradictions, Yom Sang-seop's early works hold significance in literary history for the formation of a different form of human from the clear Enlightenment vision in narratives of the 1910s.

Keywords: Yom Sang-seop, individual, individuality, culturalism, renovation theory, life-ism, irony, self narrative

Student Number: 2015-20035